

# 2008년 우리 경제와 새 정부의 과제

2007년 12월

최근 경제동향

국내경제전망

이슈분석 : 2008년 우리 경제와 새 정부의 과제

# 2008년 우리 경제와 새 정부의 과제

2007. 12.

한국경제연구원

## 집 필 진

|           |       |
|-----------|-------|
| 선임연구위원    | 허 찬 국 |
| 연 구 위 원   | 이 태 규 |
| 연 구 위 원   | 김 학 수 |
| 부 연 구 위 원 | 김 필 현 |
| 선 임 연 구 원 | 김 창 배 |

< 제 목 차 례 >

|  |           |
|--|-----------|
| 요약   | V         |
| <b>제 I 장 최근 경제동향</b>                       | <b>1</b>  |
| 1. 실물경제                                    | 3         |
| 2. 물가                                      | 17        |
| 3. 노동시장                                    | 20        |
| 4. 금융시장                                    | 23        |
| 5. 외환시장                                    | 35        |
| 6. 해외경제                                    | 40        |
| <b>제 II 장 국내경제전망</b>                       | <b>47</b> |
| 1. 대내외 여건                                  | 49        |
| 2. 경제전망                                    | 55        |
| <b>제 III 장 이슈분석: 2008년 우리 경제와 새 정부의 과제</b> | <b>67</b> |
| 1. 현 상황에 대한 인식 및 주요 현안 이슈                  | 69        |
| 2. 금융시장 및 거시경제 이슈와 대응방안                    | 70        |
| 3. 기타 현안관련 정책 주안점                          | 79        |
| <b>〈부록〉 주요 경제지표</b>                        | <b>85</b> |

< 표 차례 >

|                                  |    |
|----------------------------------|----|
| <표 I-1> 지출항목별 증가율                | 4  |
| <표 I-2> 지출항목별 기여도                | 5  |
| <표 I-3> 제조업과 서비스업 생산             | 7  |
| <표 I-4> 소비                       | 9  |
| <표 I-5> 투자                       | 11 |
| <표 I-6> 품목별 수출                   | 13 |
| <표 I-7> 지역별 수출                   | 14 |
| <표 I-8> 용도별 수입                   | 15 |
| <표 I-9> 최근 경상수지                  | 17 |
| <표 I-10> 물가 추이                   | 19 |
| <표 I-11> 전국 주택매매가격 증가율           | 20 |
| <표 I-12> 취업자 추이                  | 22 |
| <표 I-13>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 추이         | 23 |
| <표 I-14> 주요 통화지표 증가율 추이          | 24 |
| <표 I-15> 주요 금리 현황                | 27 |
| <표 I-16> 신규취급액 기준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 추이 | 28 |
| <표 I-17> 기업 자금조달 추이              | 29 |
| <표 I-18> 은행의 가계대출                | 30 |
| <표 I-19> 가계신용 추이                 | 30 |
| <표 I-20> 주요 금융기관 수신 현황           | 32 |
| <표 I-21> 주요 금융기관의 단기수신 비중        | 33 |
| <표 I-22> 주식시장 주요 지표              | 34 |
| <표 I-23> 원/달러 환율                 | 36 |
| <표 I-24> 자본 유출입 추이               | 39 |
| <표 I-25> 미국의 경제지표                | 41 |
| <표 I-26> 일본의 경제지표                | 43 |
| <표 I-27> EU의 주요 경제지표             | 44 |

|   |    |
|---|----|
| 〈표 I -28〉 중국의 주요 경제지표 추이 .....              | 45 |
| 〈표 I -29〉 유가 및 CRB지수(기말기준) .....            | 46 |
| 〈표 II -1〉 주요국의 경제성장 전망 .....                | 50 |
| 〈표 II -2〉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환부담 추이(추정) .....     | 57 |
| 〈표 II -3〉 설비투자조정 압력 추이 .....                | 59 |
| 〈표 II -4〉 중국, 미국, EU에 대한 아시아 각국의 수출비중 ..... | 60 |
| 〈표 II -5〉 2007~2008년 국내경제전망 .....           | 65 |
| 〈표 III -1〉 노사관계 국민의식조사(2,000명) 결과 .....     | 82 |
| 〈표 III -2〉 한·미 FTA 이행 관련 입법 추진 현황 .....     | 84 |

<그림 차례>

<그림 I-1> 국내총생산 증가율 추이 .....4  
 <그림 I-2> 생산증가율 추이 .....6  
 <그림 I-3> 소비증가율 추이 .....8  
 <그림 I-4> 투자증가율 추이 .....10  
 <그림 I-5> 최근 수출 추이 .....12  
 <그림 I-6> 최근 수입 추이 .....15  
 <그림 I-7> 소비자물가와 생산자물가 .....18  
 <그림 I-8> 시장금리 추이 .....25  
 <그림 I-9> 신용스프레드 추이 .....26  
 <그림 I-10> 외평채 가산금리 추이 .....26  
 <그림 I-11> 주가지수 추이 .....34  
 <그림 I-12> 주요 통화 대비 원화환율 추이(2006. 1. 4=100) .....37  
 <그림 II-1> 주요국별 세계수출시장 점유율 .....61  
 <그림 III-1> 장기(좌) 및 단기(우) 금리 추세 .....72  
 <그림 III-2> 노사 및 인사담당 임원대상 2004년 노사관계 전망조사(경총) .....81

# I. 최근 경제동향

## 1. 국내경제

### ■ 3/4분기 성장세 지속

- 3/4분기 설비투자 감소 및 수출 둔화에도 불구하고, 민간소비 증가세 확대, 건설투자 감소세 둔화 및 수입 감소 등에 기인
  - 전기비: 0.9%('07년 1분기) → 1.8%(2분기) → 1.3%(3분기)
  - 전년동기비: 4.0%('07년 1분기) → 5.0%(2분기) → 5.2%(3분기)
- 내수의 GDP 성장기여도는 감소한 반면, 순수출의 기여도는 확대

### ■ 3/4분기 및 10월 제조업과 서비스업 생산 증가세 확대 및 지속

- 반도체 · 영상 · 음향통신 산업과 자동차 및 트레일러 산업의 호조로 10월 두 자릿수의 제조업 생산 증가율 시현
  - 전년동기비: 3.4%('07년 1분기) → 7.1%(2분기) → 8.5%(3분기) → 18.3%(10월)
- 금융 및 보험업, 운수업 등의 높은 생산 증가로 서비스업 증가세 확대
  - 전년동기비: 5.6%('07년 1분기) → 6.4%(2분기) → 6.9%(3분기) → 9.0%(10월)

### ■ 3/4분기 및 10월 소비 증가세 확대

- 내구재 판매 호조를 중심으로 소비 증가세 확대
  - 도소매 판매: 5.3%('07년 1분기) → 4.4%(2분기) → 4.2%(3분기) → 9.2%(10월)
  - 소비재 판매: 7.1%('07년 1분기) → 5.2%(2분기) → 8.6%(3분기) → 7.9%(10월)

### ■ 3/4분기 설비투자 감소, 10월 소폭 증가

- 2/4분기 12.1% 증가했던 설비투자추계(통계청 발표)는 반도체장비의 투자 감소와

ATM 교체투자 둔화로 전년 3/4분기 대비 1.9% 감소했으나 10월 3.3%의 증가율을 보이며 소폭 회복

■ 3/4분기 건설투자 증가율 둔화, 10월 회복세

- 3/4분기 민간·공공부문 공사실적 부진으로 3.4%로 증가율 둔화, 10월 민간부문의 호조로 7.8% 증가
  - 6.5%('07년 1분기) → 5.2%(2분기) → 3.4%(3분기) → 7.8%(10월)

■ 수출 호조세 지속

- 수출증가율이 3/4분기에는 추석연휴의 영향으로 한 자릿수(9.5%)로 낮아졌으나 10~11월 중에는 20.3%로 반등
  - 일평균 수출금액도 2/4분기 13.5억 달러, 3/4분기 13.7억 달러 10~11월 중 14.7억 달러로 꾸준히 상승

■ 수입, 증가세 큰 폭 확대

- 수입은 국제유가 상승, 환율하락, 내수회복 등으로 7~11월 중 약 15.2% 증가하며 상반기 증가율(13.8%)을 상회
  -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금액도 2/4분기 12.7억 달러, 3/4분기 13.0억 달러 10~11월 중 13.9억 달러로 꾸준히 상승

■ 경상수지, 수출호조, 소득수지 개선 등 영향으로 상반기 적자에서 7~10월 중에는 흑자로 전환

-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7~10월 중 71.1억 달러
  - 상반기 적자(16.3억 달러)에 비해 약 87억 달러 개선

### ■ 소비자물가 상승률 10~11월 중 3%대에 진입

- 10월 3.0%, 11월 3.5%로 상승해 2005년 5월 이후 처음 3%대 증가율
  - 원유 및 국제 원자재가격의 급등에 따른 수입물가 급등에 기인
  - 원화기준 수입물가 상승률은 3/4분기 2.0%에서 10~11월 중에는 15.0% 급등

### ■ 고용지표 소폭 개선

- 3/4분기 이후 취업자수 증감은 양적 고용지표의 소폭 개선을 시사
  - 취업자수 증가: 29.5만 명('07년 3분기) → 28.7만 명(10월) → 28.1만 명(11월)
- 연령별과 취업시간대별 취업자수의 추이는 질적 고용지표도 소폭 개선을 시사하나 여전히 다소 미흡한 것으로 판단
  - 청년층(15~29세)의 취업자수: 감소세 지속
  - 주당 36시간 이상의 취업자수: 3/4분기 2.4% 감소, 10, 11월 소폭 증가
  - 주당 36시간 미만의 취업자수: 3/4분기 23.7% 증가, 10월 0.3% 증가

### ■ 시장금리는 글로벌 신용경색 및 단기 채권발행 급증 등으로 높은 상승세 시현

- 회사채 유통수익률: 5.87%(9월 3일) → 6.27%(11월 23일) → 6.79%(12월 12일)
- CD금리: 5.3%(9월 3일) → 5.5%(11월 23일) → 5.7%(12월 12일)

### ■ 지속적인 하락안정세를 보이던 원/달러 환율은 11월 중순 글로벌 증시 불안의 여파로 급등한 후 수출대금 공급과 외국인 주식배당 역송금 등이 겹치며 혼조세를 보임.

- 933.8(8월 말) → 932.4(9월 말) → 918.9(10월 12일) → 927.70(12월 17일)

## 2. 해외경제

### ■ 미국경제: 경기둔화 및 인플레이션 압력 심화

- 주택시장의 침체와 금융시장 불안으로 인한 신용경색의 여파에 대한 우려감 확대
  - 더불어 원유 및 원자재 가격의 급등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력이 증가

■ 일본경제: 경기회복세 주춤

- 3/4분기 실질GDP 성장률이 전년동기 대비 1.5%로 기대치(2.6%)를 크게 하회
  - 이는 대미수출의 위축과 더불어 고유가 및 건축규제의 강화 등으로 민간소비와 투자가 감소한 데 기인

■ EU경제: 회복세 둔화

- 2007년 3/4분기 성장률(0.7%)은 전기(0.3%)에 비해 소폭 개선
  - 이는 대신홍시장국 수출시장의 호조에 따른 것이나, 물가상승률이 억제목표치를 상회함에 따라 경기둔화 가능성이 확대됨.

■ 중국경제: 고성장세 유지, 긴축정책 강화

- 중국의 고성장세 지속으로 물가상승 압력이 더욱 증대됨.
  - 총통화는 금리와 기준율의 인상 등 중국당국의 긴축정책에도 불구하고 신규대출의 확대 등으로 증가 추세를 보임.
  - 이와 함께 10~11월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사상최고치를 기록함.

■ 2007년 들어 원자재가격 상승기조

- 올 상반기 상승세를 유지하던 유가는 지속적인 중동정세 불안과 미국시장의 재고 감소 및 계절적 요인으로 인한 정제시설 가동차질, 그리고 세계 원유수요의 증가전망 등과 맞물려 높은 상승세 유지

## II. 2008년 경제전망

### 1. 대내외 여건

#### (1) 대외여건

- 세계경제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여파,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 등으로 성장세 둔화(2007년 5.2% ⇒ 2008년 4.8%, IMF)
  - 미국경제: 주택경기 침체, 금융시장의 불안 등
  - 중국경제: 미 경기 둔화, 긴축정책, 위안화 절상 등
  - 일본경제: 민간 주택투자 부진, 미국경제 둔화 등
  - 유로지역경제: 세계경제 둔화, 유로 강세 등
  -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로 주요국 금리인하가 쉽지 않을 전망
- 국제유가는 두바이유 기준으로 약 80달러 내외에서 등락할 전망
  - 지정학적 위험 등으로 수급불균형이 지속될 전망
  - 달러약세에 따른 실물자산 투자가 가세
- ☞ 국제유가의 강세,
  - 단, 세계경제 감속으로 원유수요가 감소하면서 추가 상승폭 제한
- 국제금융시장은 신용경색 등으로 불안정성 증대
  -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 따른 금융기관 손실 확대
  - 인플레이션 우려에 따른 주요국 긴축통화 정책

#### (2) 대내여건

- 새 정부 출범과 적극적인 경기활성화 추진
  - 새 정부가 실용성을 강조하는 만큼 실질적인 경제활성화 기대
-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험의 완화
  - 6자회담의 순조로운 진행, 남북정상회담으로 한반도 위험 완화

■ 통화정책의 긴축기조 지속

- 물가불안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통화정책 완화 가능성 하락

■ 재정정책은 확장적

- 정부는 내년 지출예산 증가율(7.4%)은 2002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

## 2. 2008년 국내경제전망

### (1) 실물경제

■ 실질GDP 5.1% 성장 전망

- 세계경제의 성장둔화와 원화절상으로 8.4%의 수출증가율 둔화가 예상되지만, 건설 및 설비투자자와 민간소비 등 내수부문의 증가로 인해 2008년 실질GDP는 2007년(4.8%)보다 높은 5.1% 증가할 것으로 전망

■ 민간소비 4.8% 증가 전망

- 2008년 민간소비는 정부의 2007년 세계개편안 및 소비심리 개선 등에 의해 회복세가 예상되나 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부채 부담 증가 등이 민간소비 회복세의 제한요인으로 작용하여 연간 4.8% 증가할 것으로 전망

■ 건설투자 2.8% 증가 전망

- 2008년 민간부문의 건설투자는 크게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나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및 기업도시의 착공 등으로 공공부문의 주도로 연간 2.8%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설비투자 8.0% 증가 전망

- 2008년 설비투자는 2007년의 회복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나 세계경제 둔화에 따른 수출 둔화로 인해 그 증가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어 연간 8.0% 증가 전망

## (2) 대외거래

### ■ 수출증가율 소폭 둔화, 수입증가율은 수출증가율 상회

- 미국경제의 둔화, 중국의 긴축강화, 달러약세 지속, 국제 원자재가격 강세 등의 영향으로 수출증가율이 둔화될 전망
  - 하지만 수출다변화, 비가격경쟁력 제고 등이 악화된 대외여건을 어느 정도 극복 하면서 두 자릿수 수출증가율 유지는 가능
- 수입증가율은 내수회복세, 원화절상, 원자재가격 강세 등의 영향으로 2007년 하반기에 이어 2008년에도 수출증가율을 상회

### ■ 2008년 경상수지는 '98년 이후 10년 만에 적자(약 -14억 달러)전환

- 상품수지의 흑자폭이 축소되고 서비스수지는 국내 서비스부문의 낮은 경쟁력, 원화절상 등으로 해외 서비스 수요 증가하면서 적자확대 지속

## (3) 소비자물가

### ■ 2008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07년(2.6%)보다 높은 3.2%로 전망됨.

- 국제 원자재가격 강세, 내수회복, 중국발 인플레이션 파급 등이 물가상승요인으로 작용

## (4) 시장금리

### ■ 2008년 시장금리(회사채 수익률 기준)는 2007년(5.7%)보다 0.8%포인트 높은 6.5%로 전망됨.

- 내수회복세에 따른 자금수요의 증가, 적어도 2008년 상반기까지는 지속될 글로벌 신용경색 등이 국내금리 상승압력으로 작용

(5) 환율

■ 2008년 원/달러 환율(연평균)은 2007년(928원으로 추정)에 비해 하락한 910원으로 전망됨.

– 원화 강세요인이 약세요인보다 우세

- 강세요인: 글로벌 달러 약세 현상, 외국인의 국내주식 순매수 재개, 한반도 긴장 완화에 따른 국가신용등급의 상향조정 등
- 약세요인: 미국경기 둔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적자 전환

<표 1> 2007~2008년 국내경제전망

(단위: 전년동기비, %, 억 달러)

|                   | 2006년  | 2007년  |        | 2008년  |        |        |        |
|-------------------|--------|--------|--------|--------|--------|--------|--------|
|                   | 연간     | 상반기    | 하반기    | 연간     | 상반기    | 하반기    | 연간     |
| GDP               | 5.0    | 4.5    | 5.1    | 4.8    | 5.3    | 5.0    | 5.1    |
| 민간소비              | 4.2    | 4.1    | 4.7    | 4.4    | 4.9    | 4.7    | 4.8    |
| 건설투자              | -0.4   | 3.5    | 0.1    | 1.6    | 1.8    | 3.7    | 2.8    |
| 설비+무형고정자산         | 7.8    | 10.5   | 3.6    | 7.0    | 6.3    | 9.7    | 8.0    |
| 수출(재화+서비스)        | 12.4   | 10.9   | 11.0   | 10.9   | 8.8    | 8.0    | 8.4    |
| 수입(재화+서비스)        | 11.3   | 12.0   | 10.0   | 11.0   | 9.0    | 9.3    | 9.2    |
| 소비자물가             | 2.2    | 2.3    | 2.8    | 2.6    | 3.4    | 3.0    | 3.2    |
| 생산자물가             | 2.3    | 2.2    | 3.0    | 2.6    | 3.9    | 3.1    | 3.5    |
| 경상수지(억 달러)        | 60.9   | -16.3  | 89.8   | 73.5   | -26.8  | 13.0   | -13.9  |
| 상품수지(억 달러)        | 292.1  | 130.1  | 185.4  | 315.5  | 123.1  | 156.6  | 279.6  |
| 수출(억 달러, BOP 기준)  | 3318.4 | 1793.6 | 1986.2 | 3779.9 | 1986.9 | 2175.0 | 4161.9 |
| 증가율%              | 14.8   | 13.6   | 14.2   | 13.9   | 10.8   | 9.5    | 10.1   |
| 수입(억 달러, BOP 기준)  | 3026.3 | 1663.6 | 1800.8 | 3464.4 | 1863.8 | 2018.5 | 3882.3 |
| 증가율%              | 18.4   | 14.5   | 14.5   | 14.5   | 12.0   | 12.1   | 12.1   |
| 서비스 및 기타수지        | -231.2 | -146.4 | -95.6  | -242.0 | -149.9 | -143.6 | -293.5 |
| 환율(원/달러, 평균)      | 954.8  | 934.0  | 923.0  | 928.5  | 915.0  | 904.8  | 910.0  |
| 회사채수익률(3yrs, AA-) | 5.2    | 5.4    | 6.0    | 5.7    | 6.6    | 6.4    | 6.5    |
| 실업률(%)            | 3.5    | 3.4    | 3.1    | 3.2    | 3.3    | 3.0    | 3.2    |

### III. 새 정부의 2008년 정책 실행 과제

#### 1.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 대한 대응

- 미분양 주택수의 증가, 저신용 주택대출, 주택건설 관련 PF 부실 등을 고려할 때 주택금융시장 부실 우려 점증 ⇒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여파 차단 등 적극적인 대응 필요
  - 시중금리 하향 안정화 유도
  - 부실 PF와 관련 자산의 정리 절차 착수

#### 2. 고유가 및 곡물류 가격 앙등에 따른 글로벌 인플레이션 대응방안

- 고유가 부담완화를 위한 탄력적으로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
  - 휘발유에서 유류세 비중은 약 57%, 일본, 캐나다, 미국에 비해 높음.
    - ☞ 유류세 인하 ⇒ 소비자 세금 및 기업의 생산원가 부담 감소 ⇒ 소비, 투자 회복세 유지
    - ☞ 조금이라도 소비자들의 구매력을 보전해 주는 대책이 필요
- 서비스 제공기관의 효율성 제고를 통해 공공요금 인상요인을 최대한 억제해서 물가부담을 완화
- 장기계약, 수입선 대체 등을 활용해 원자재를 안정적으로 확보
- 해외자원 투자사업과 국제 정보 네트워크를 강화

#### 3. 국내외 금융시장 불안 등을 고려한 통화정책 결정

- 현재 국내외 경제상황은 미국을 진원지로 하는 독자적이고 심대한 금융시장 불안요인으로 불확실성이 고조되어 있어 경제심리의 심각한 경색을 완화하는 정책방향이 바람직함.

- 향후 물가안정을 위한 금리인상 압력이 예상되지만 정책금리 결정에 있어 국내의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는 점도 비중 있게 고려해야 함.
- 주목할 만한 것은 미 연준과 유럽중앙은행은 고유가로 인한 물가상승이 가시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금리인하, 유동성 공급 정책 등을 펼치고 있다는 점

#### 4. 규제완화 방향과 일정을 빨리 제시하여 기업투자 촉진

- 조속한 시일 내에 수도권 및 토지사용 규제에 대한 완화 방침과 일정을 제시하여 기업들의 투자계획 수립을 적극 유도
  - 수도권 및 토지사용 규제는 그동안 기업투자 부진의 중요한 원인이었기 때문에 이 분야 개혁은 기업투자 활성화의 촉매제가 될 것임.

#### 5. 새 정부 법질서 준수원칙 취임 초부터 확실히 확립

- 출범 첫째, 강성 노동단체들이 새 정부의 의지를 시험하기 위한 각종 집단행동을 펼칠 가능성
  - 실제로 참여정부 첫째인 2003년 경기부양을 위한 다양한 정책시행에도 불구하고 노조와 이익집단의 극심한 불법행동 등으로 효과가 크지 않았음을 상기할 필요
- 이는 엄정한 법질서 확립이 경제활성화에 전념할 수 있는 전제조건임을 시사하는 것임.
  - 사회적 피해를 초래하는 이익집단의 사적 이익 추구 관행 종식
  - 명분에 상관없이 불법적, 폭력 시위는 엄격히 차단

#### 6. 한·미 FTA 국회비준 조기 추진

- 한·미 FTA는 개방경제 한국의 앞날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칠 이슈. 새 정부는 취임 이전 현 정부와 공조하여 국회비준 방안을 모색
  - 선진국 경제 둔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조금이라도 경쟁국에 비해 비교우위를 차지하는 것이 경제활성화 관점에서 중요

# 제 I 장

## 최근 경제동향

1. 실물경제
2. 물가
3. 노동시장
4. 금융시장
5. 외환시장
6. 해외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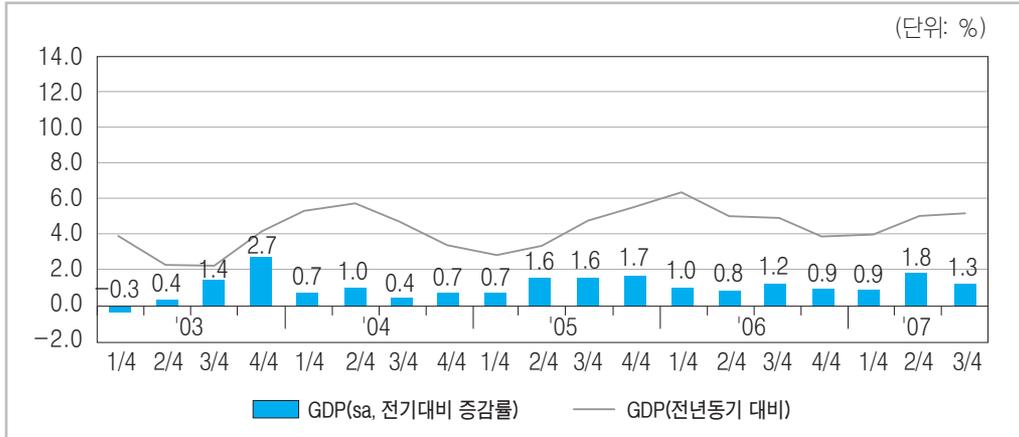
# 1. 실물경제

## (1) 국내총생산

### ■ 3/4분기 성장세 지속, 증가율 둔화

- 2007년 3/4분기 실질GDP 증가율(계절조정, 전기비)은 1.3%로, 2/4분기 이후 증가세 지속, 2007년 2/4분기(1.8%) 대비 0.5%포인트 증가율 둔화
  - 전기비: 0.9%('07년 1분기) → 1.8%(2분기) → 1.3%(3분기)
  - 전년동기비: 4.0%('07년 1분기) → 5.0%(2분기) → 5.2%(3분기)
- 지출항목별 증가율(계절조정, 전기비)을 살펴보면
  - 2/4분기 0.8%로 크게 둔화된 민간소비 증가세는 1.2%로 확대
  - 2/4분기 -1.3%로 하락 반전한 건설투자 감소세는 -0.5%로 둔화
  - 2/4분기까지 지속된 설비투자 증가세는 기계류 투자의 급감으로 6.3% 감소로 반전
  - 2/4분기까지 증가세가 확대되던 총수출은 0.8%의 증가율을 보이며 증가세 크게 둔화
  - 2/4분기까지 유지되던 총수입증가세는 3.2% 감소 반전
- 내수의 GDP 성장기여도는 -0.6%포인트로 낮아진 반면, 순수출의 기여도는 2.1%포인트로 확대
  - 증가세가 다소 회복된 민간소비에도 불구하고, 감소세로 하락 반전한 설비투자와 건설투자의 감소세 지속으로 인해 내수의 GDP 성장기여도는 2007년 2/4분기 1.3%포인트에서 3/4분기 -0.6%포인트로 악화
  - 지난 2/4분기에 비해 수출증가세는 크게 둔화되었으나 수입 감소로 인해, 순수출의 GDP 성장기여도는 2007년 2/4분기 0.3%포인트에서 3/4분기 2.1%포인트로 높아짐.

<그림 1-1> 국내총생산 증가율 추이



자료: 한국은행

<표 1-1> 지출항목별 증가율

(단위: 계절조정, 전기대비, %)

|             | 2006년 |     |      |      | 2007년 |      |      |
|-------------|-------|-----|------|------|-------|------|------|
|             | 2/4   | 3/4 | 4/4  | 연간   | 1/4   | 2/4  | 3/4  |
| 민간소비        | 0.6   | 0.9 | 1.0  | 4.2  | 1.5   | 0.8  | 1.2  |
| 건설투자        | -0.9  | 2.0 | 1.9  | -0.4 | 0.8   | -1.3 | -0.5 |
| 설비투자        | 2.2   | 3.8 | 0.1  | 7.6  | 4.4   | 3.4  | -6.3 |
| 수출(재화와 서비스) | 4.9   | 2.2 | 0.5  | 12.4 | 3.1   | 4.6  | 0.8  |
| 수입(재화와 서비스) | 4.5   | 2.2 | -0.6 | 11.3 | 5.4   | 4.9  | -3.2 |

자료: 한국은행

〈표 1-2〉 지출항목별 기여도

(단위: 계절조정, 전기대비, %p)

|             | 2006년 |     |     |      | 2007년 |      |      |
|-------------|-------|-----|-----|------|-------|------|------|
|             | 2/4   | 3/4 | 4/4 | 연간   | 1/4   | 2/4  | 3/4  |
| 내수          | 0.3   | 1.0 | 0.2 | 3.7  | 1.6   | 1.3  | -0.6 |
| 민간소비        | 0.3   | 0.4 | 0.5 | 2.1  | 0.7   | 0.4  | 0.6  |
| 건설투자        | -0.1  | 0.3 | 0.3 | -0.1 | 0.1   | -0.2 | -0.1 |
| 설비투자        | 0.2   | 0.4 | 0.0 | 0.8  | 0.5   | 0.4  | -0.7 |
| 수출(재화와 서비스) | 2.7   | 1.3 | 0.3 | 6.7  | 1.8   | 2.7  | 0.5  |
| 순수출         | 0.6   | 0.3 | 0.6 | 1.6  | -0.8  | 0.3  | 2.1  |

자료: 한국은행

## (2) 생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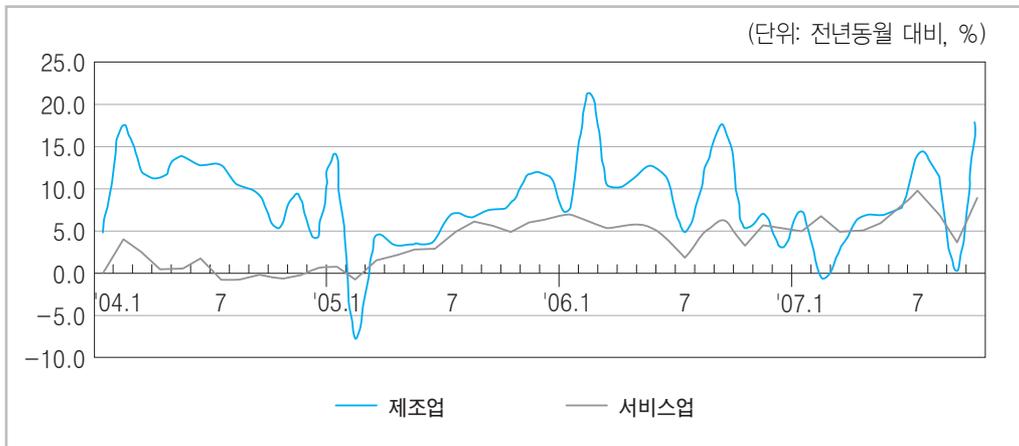
### ■ 제조업 생산 증가세 확대

- 3/4분기 제조업 생산은 컴퓨터 및 사무용기기 산업 회복세의 큰 폭 둔화에도 불구하고, 반도체·영상·음향통신 산업과 자동차 및 트레일러 산업의 높은 증가세로 전년동기 대비 8.5%의 높은 증가율 시현
  - 2/4분기 11.1%의 증가세를 보였던 반도체·영상·음향·통신 업종은 전년 3/4분기 대비 22.3% 증가
  - 정보통신업종을 대표하는 ICT제조업지수도 지난 2/4분기 10.8%의 증가세에 이어 3/4분기에도 전년동기 대비 20.7% 증가하며 증가세 확대
  - 지난 2/4분기 8.5%의 견조한 증가를 보였던 자동차 및 트레일러 산업도 전년동기 대비 7.5% 성장하며 증가세 유지
  - 3/4분기에 견조한 증가세를 보인 반도체·영상·음향·통신, ICT 제조업지수, 자동차 및 트레일러 산업생산은 10월에도 25% 안팎의 높은 성장세 지속
  - 컴퓨터 및 사무용기기 산업은 2/4분기까지 지속된 두 자릿수의 증가세는 크게 둔화되어 1.6% 생산 증가에 그쳤으며, 10월에는 전년동월 대비 3.4% 감소
  - 1/4분기의 감소세에서 2/4분기 1.1% 증가로 반전한 경공업 생산은 3/4분기에 다시

전년동기 대비 -3.4% 감소했고, 10월에 9.8% 증가하며 불안정한 모습을 지속

- 3/4분기와 10월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전년동기 대비 1.8%포인트와 1.5%포인트 증가하여 2/4분기의 회복세 유지

<그림 1-2> 생산증가율 추이



자료: 통계청

■ 서비스업 증가세 지속

- 3/4분기 서비스업 생산은 전년동기 대비 6.9% 증가했고 10월에는 9% 증가하며 증가세 확대
  - 전년동기비: 5.6%('07년 1분기) → 6.4%(2분기) → 6.9%(3분기) → 9.0%(10월)
- 금융 및 보험업(18.2%)과 운수업(9.0%)이 3/4분기 서비스업 생산 증가세를 주도하고 10월에는 더욱 높은 증가율로 증가세 확대
  - 3/4분기 숙박 및 음식점업은 전년동기 대비 1.4% 증가율을 보이며 증가세 둔화되며 서비스업 전체 증가율을 크게 하회하였으나 10월에는 5.2%로 증가세 회복되는 모습
  - 도소매업(3.7%), 통신업(1.8%), 부동산 및 임대업(3.8%), 교육서비스업(1.9%) 등

이 3/4분기 서비스업 전체 증가율을 크게 하회

- 도소매업(8.0%)과 통신업(7.9%)은 10월 서비스업 전체 증가율에 달하는 수준의 증가세 회복, 그러나 부동산 및 임대업(-0.4%)과 교육서비스업(-4.0%)은 감소세로 전환

〈표 1-3〉 제조업과 서비스업 생산

(단위: 전년동기 대비, %, %p)

|              | 2006년 |      |      |      | 2007년 |      |      |      |
|--------------|-------|------|------|------|-------|------|------|------|
|              | 2/4   | 3/4  | 4/4  | 연간   | 1/4   | 2/4  | 3/4  | 10월  |
| 제조업 전체       | 12.1  | 11.8 | 5.6  | 10.5 | 3.4   | 7.1  | 8.5  | 18.3 |
| 중공업          | 14.7  | 13.9 | 7.0  | 12.6 | 4.3   | 8.3  | 10.9 | 19.8 |
| 컴퓨터 및 사무용 기기 | -9.4  | 6.4  | 22.5 | -0.1 | 22.5  | 12.8 | 1.6  | -3.4 |
| 반도체·영상·음향·통신 | 33.7  | 25.1 | 11.8 | 25.2 | 3.1   | 11.1 | 22.3 | 26.5 |
| 자동차 및 트레일러   | 8.6   | 7.6  | 3.5  | 8.6  | 0.2   | 8.5  | 7.5  | 24.5 |
| 경공업          | 0.3   | 2.4  | -1.7 | 1.1  | -1.2  | 1.1  | -3.4 | 9.8  |
| ICT지수        | 29.6  | 23.3 | 12.0 | 22.8 | 3.9   | 10.8 | 20.7 | 24.5 |
| 평균가동률 증감(%p) | 1.2   | 0.8  | 1.2  | 1.4  | -0.2  | 2.1  | 1.8  | 1.5  |
| 서비스업 전체      | 5.4   | 4.4  | 4.8  | 5.2  | 5.6   | 6.4  | 6.9  | 9.0  |
| 도소매업         | 4.2   | 4.3  | 3.7  | 3.4  | 4.9   | 3.8  | 3.7  | 8.0  |
| 숙박 및 음식점업    | 2.4   | 2.3  | -0.2 | 1.5  | 1.6   | 2.3  | 1.4  | 5.2  |
| 운수업          | 6.3   | 5.9  | 7.0  | 5.0  | 6.7   | 5.5  | 9.0  | 11.4 |
| 통신업          | 2.9   | 3.2  | 2.6  | 3.5  | 3.3   | 3.2  | 1.8  | 7.9  |
| 금융 및 보험업     | 9.2   | 4.8  | 4.7  | 10.6 | 9.1   | 15.6 | 18.2 | 21.8 |
| 부동산 및 임대업    | 8.2   | 7.4  | 14.3 | 9.4  | 5.8   | 3.3  | 3.8  | -0.4 |
| 사업서비스업       | 5.7   | 5.7  | 6.3  | 3.7  | 5.3   | 6.7  | 6.5  | 8.6  |
| 교육서비스업       | 2.4   | 1.4  | 4.4  | 1.1  | 2.7   | 1.7  | 1.9  | -4.0 |
|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 8.1   | 11.9 | 8.9  | 9.4  | 9.6   | 9.6  | 6.3  | 5.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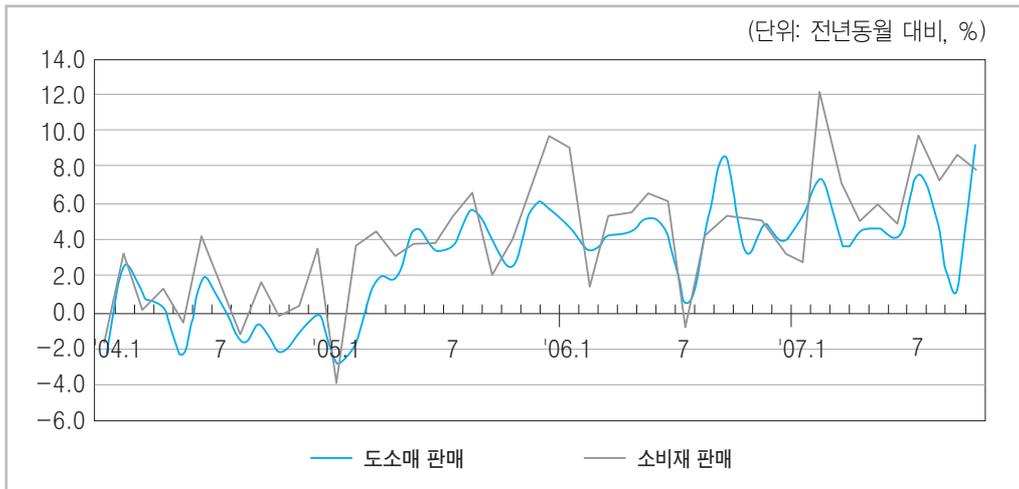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 (3) 소비

#### ■ 소비 증가세 확대

- 3/4분기 도소매 판매와 소비재 판매는 각각 전년동기 대비 4.3%와 8.6% 증가
  - 도소매 판매: 5.3%('07년 1분기) → 4.4%(2분기) → 4.3%(3분기) → 9.2%(10월)
  - 소비재 판매: 7.1%('07년 1분기) → 5.3%(2분기) → 8.6%(3분기) → 7.9%(10월)
  - 내구재 판매 증가(3/4분기 14.6%, 10월 21.1% 전년동기비)를 중심으로 소비 증가세 확대되는 양상
  - 2/4분기까지 지속되던 백화점 매출은 3/4분기에 2.9% 증가했으나 10월 1.5% 증가하며 증가세 다소 둔화
  - 기타소매점(재래시장 포함) 매출은 저조한 증가세 지속
  - 3/4분기 대형할인점 매출은 전년동기 대비 11.9% 증가했으나 10월 0.3% 증가에 그치며 증가세 크게 둔화
  - 3/4분기와 10월 무점포판매 매출은 각각 전년동기 대비 10.8%와 28.9%로 크게 증가

<그림 1-3> 소비증가율 추이



자료: 통계청

〈표 1-4〉 소비

(단위: 전년동기 대비, %)

|                | 2006년 |      |      |      | 2007년 |      |      |      |
|----------------|-------|------|------|------|-------|------|------|------|
|                | 2/4   | 3/4  | 4/4  | 연간   | 1/4   | 2/4  | 3/4  | 10월  |
| 도소매 판매         | 4.5   | 4.4  | 4.0  | 4.2  | 5.3   | 4.4  | 4.3  | 9.2  |
| 소비재 판매         | 6.1   | 2.9  | 4.5  | 4.7  | 7.1   | 5.3  | 8.6  | 7.9  |
| 백화점            | 6.0   | 0.4  | 0.7  | 3.7  | -2.1  | -1.6 | 2.9  | 1.5  |
| 대형할인점          | 10.1  | 6.4  | 11.6 | 8.8  | 10.2  | 8.4  | 11.9 | 0.3  |
| 무점포판매          | 20.2  | 21.4 | 5.2  | 16.5 | 9.1   | 8.1  | 10.8 | 28.9 |
| 기타소매점(재래시장 포함) | 1.8   | 0.4  | 1.7  | 0.6  | 2.1   | 0.2  | 2.4  | 0.0  |

자료: 통계청

#### (4) 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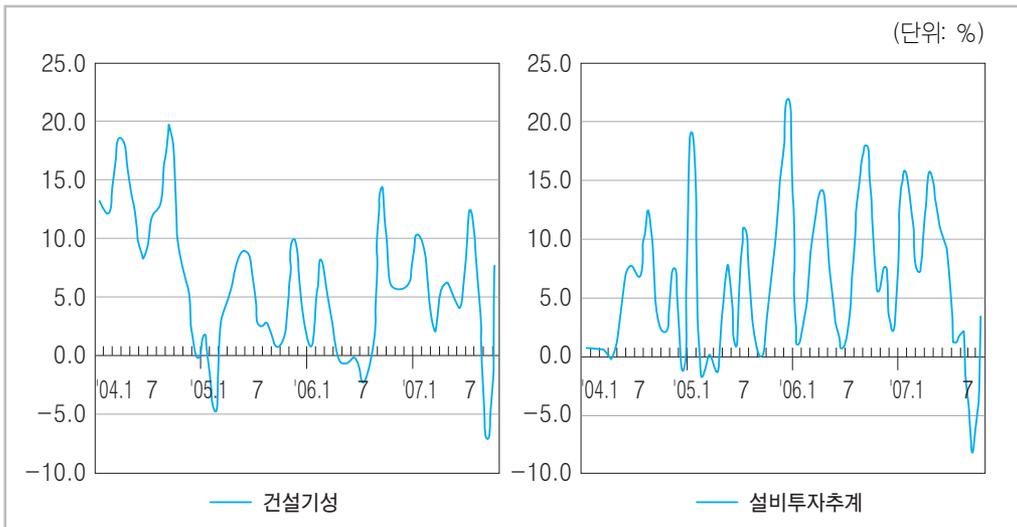
##### ■ 설비투자 3/4분기 감소, 10월 소폭 증가

- 2007년 2/4분기 12.1% 증가를 보였던 설비투자추계(통계청 발표)는 반도체 장비의 투자 감소와 ATM 교체투자의 완료 등으로 3/4분기 -1.9% 감소했으나 10월 들어 운수장비 및 통신기기 등의 투자 증가로 인하여 전년동월 대비 3.3% 소폭 증가 반전
- 설비투자의 선행지표인 국내기계수주(불변 기준)는 전년 3/4분기 대비 14.8% 증가하였으며 지난 10월 대비 30.5%의 높은 증가세 시현, 이는 향후 설비투자가 회복될 것을 시사
  - 공공운수업(전동차) 등의 발주 감소로 공공부문 기계발주는 3/4분기 15.2% 감소했고 10월에도 74.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지난 1/4분기부터 지속되던 민간부문 제조업 기계발주 증가세의 둔화 기조는 큰 폭으로 증가한 선박용 엔진 등의 발주에 의해 3/4분기 29.0%, 10월 108.8%의 증가율로 증가세 확대로 전환되며 설비투자가 회복세로 전환될 가능성을 시사

■ 3/4분기 건설투자 증가율 둔화, 10월 회복세

- 3/4분기 국내건설기성(경상)은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공사실적 부진으로 인해 전년동기 대비 3.4% 증가에 그쳤으나, 10월에는 민간부문의 호조로 7.8% 증가
  - 6.5%('07년 1분기) → 5.2%(2분기) → 3.4%(3분기) → 7.8%(10월)
- 건설투자의 선행지표인 건설수주금액은 3/4분기에 민간부문의 민간주택수주 부진으로 전년동기 대비 5.6% 감소하였으나 10월에는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의 호조로 전년동월 대비 104.7% 증가
  - 10월 큰 폭 증가는 민간부문 103.8% 증가와 공공부문 104.2% 증가에 기인할 뿐만 아니라 민자 유치사업의 큰 폭 증가도 기여

<그림 1-4> 투자증가율 추이



자료: 통계청

〈표 1 -5〉 투자

(단위: 전년동기 대비, %)

|            | 2006년 |       |       |      | 2007년 |       |       |       |
|------------|-------|-------|-------|------|-------|-------|-------|-------|
|            | 2/4   | 3/4   | 4/4   | 연간   | 1/4   | 2/4   | 3/4   | 10월   |
| 설비투자추계(불변) | 6.7   | 11.8  | 5.1   | 7.4  | 11.3  | 12.1  | -1.9  | 3.3   |
| 국내기계수주(불변) | 24.4  | 21.0  | 16.7  | 18.8 | 15.3  | 7.4   | 14.8  | 30.5  |
| 공공         | 24.7  | 19.0  | 22.1  | 7.1  | 12.1  | -23.5 | -15.2 | -74.5 |
| 민간         | 24.4  | 21.3  | 15.8  | 20.4 | 15.6  | 10.5  | 18.8  | 61.6  |
| 제조업        | 30.0  | 35.0  | 32.8  | 32.3 | 7.0   | 5.8   | 29.0  | 108.8 |
| 비제조업       | 19.1  | 10.8  | 2.9   | 10.4 | 24.8  | 15.3  | 9.3   | 14.0  |
| 건설기성액(경상)  | -0.3  | 4.8   | 6.0   | 3.7  | 6.5   | 5.2   | 3.4   | 7.8   |
| 건설수주(경상)   | -14.7 | 37.1  | 27.1  | 9.0  | 26.3  | 26.3  | -5.6  | 104.7 |
| 공공부문       | -29.9 | 21.2  | 2.7   | -6.3 | 49.3  | 21.2  | 7.3   | 104.2 |
| 민간부문       | -6.0  | 36.8  | 28.3  | 12.8 | 21.8  | 17.0  | -12.9 | 103.8 |
| 민자         | -73.0 | 552.5 | 362.1 | 55.9 | -64.3 | 683.4 | 62.5  | 133.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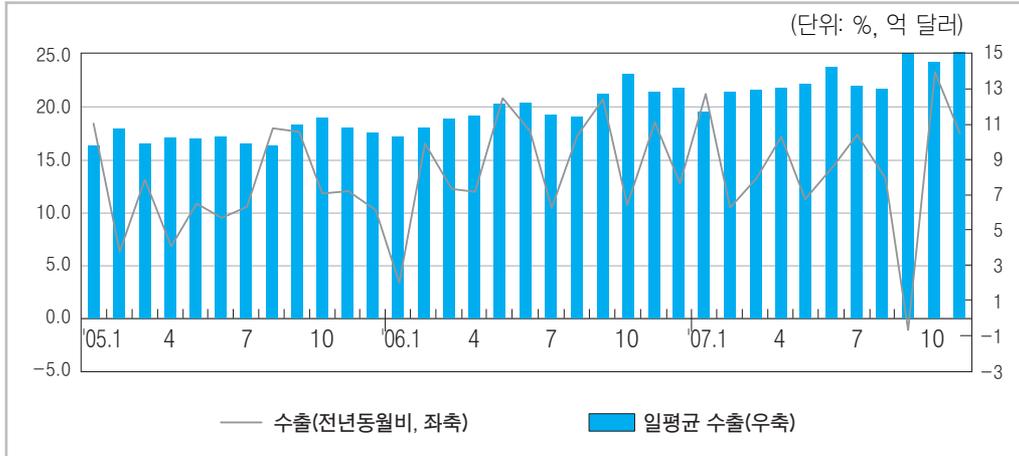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 (5) 수출

### ■수출 호조세 지속

- 수출증가율은 3/4분기 9.5%로 낮아졌으나 10~11월 중에는 20.3%로 상승, 1~11월 평균으로는 14.2%
  - 3/4분기 수출 둔화는 추석연휴로 인한 조업일수 감소로 9월의 증가율이 -1.1%로 나타난 데 기인
  - 일평균 수출금액도 2/4분기 13.5억 달러, 3/4분기 13.7억 달러 10~11월 중 14.7억 달러로 꾸준히 상승

〈그림 1-5〉 최근 수출 추이



자료: 산업자원부

— 품목별 수출

- 자동차는 수출전략차종의 확대 및 동유럽·중남미·중동 등으로의 수출증가에 힘입어 두 자릿수의 증가세를 지속. 하지만 경쟁심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 따른 수요 감소, 유가급등, 환율하락 등의 영향으로 증가율은 소폭 둔화(2/4분기 20.4% → 3/4분기 18.6% → 10~11월 중 17.7%)
- 무선통신기기는 북미 및 신흥시장 및 아시아 시장에서 수요증가, 컴퓨터는 프린터, 모니터, HDD등 주변기기 호조로 높은 증가세 지속
- 선박 수출은 안정된 수주물량과 신공법에 의한 건조능력 확대 등을 바탕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
- 석유제품은 유가상승에 따른 단가상승 등의 영향으로 10~11월 중 높은 증가세
- 반도체는 3/4분기 중 전년동기 대비 9.3% 증가했으나 10~11월 중에는 주력제품 가격<sup>1)</sup> 하락의 영향으로 하락세

1) D램 평균 가격추이(달러/개, DDR2 512M): ('07.1)5.69 → (3)3.37 → (5)1.66 → (6)1.97 → (7)2.16 → (8)2.02 → (9)1.57 → (10)1.31 → (11)1.01

〈표 1-6〉 품목별 수출

(단위: 전년동기 대비, %)

|        | 2006년 |       |       |      |       | 2007년 |      |      |       |         |           |
|--------|-------|-------|-------|------|-------|-------|------|------|-------|---------|-----------|
|        | 1/4   | 2/4   | 3/4   | 4/4  | 연간    | 1/4   | 2/4  | 3/4  | 10월   | 11.1~20 | 1.1~11.20 |
| 수출전체   | 10.6  | 16.9  | 16.3  | 13.8 | 14.4  | 14.6  | 14.4 | 9.2  | 23.1  | 17.9    | 14.0      |
| 반도체    | 13.9  | 16.3  | 19.6  | 48.1 | 24.6  | 20.8  | 4.3  | 9.3  | -3.1  | -7.3    | 8.3       |
| 자동차    | 10.5  | 7.8   | 15.3  | 13.4 | 11.6  | 3.4   | 20.4 | 18.6 | 31.9  | -1.8    | 14.8      |
| 무선통신기기 | 1.4   | -2.0  | 1.7   | -7.4 | -1.7  | -0.5  | 8.9  | 10.1 | 40.7  | 28.3    | 11.3      |
| 컴퓨터    | -4.0  | -15.5 | -14.5 | -9.6 | -10.9 | -4.5  | 12.6 | 18.2 | 15.8  | 13.9    | 9.4       |
| 선박     | -1.1  | 48.2  | 11.6  | 41.0 | 24.8  | 30.5  | 40.7 | 5.2  | -13.1 | 42.2    | 19.8      |
| 석유제품   | 35.3  | 54.2  | 47.9  | 2.1  | 32.8  | 20.7  | 10.1 | -8.4 | 37.5  | 46.5    | 9.9       |

자료: 한국무역협회

## - 지역별 수출

- 대중국 수출은 3/4분기 15.7% 그리고 10~11월 중 약 23.1%의 증가세를 보이는 등 상반기 증가율(16.6%)을 상회하는 호조 지속
- 대ASEAN 수출은 2006년(16.9%)에 이어 2007년(1. 1~11. 20: 20.6%)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는 지역
- 대미국 수출은 자동차, 철강제품의 부진으로 3/4분기 4.1% 감소했으나 10~11월 중에는 무선통신기기와 석유제품 수출증가에 힘입어 증가세로 반전
- 대일본 수출은 자동차, 철강제품의 감소로 2/4분기 -1.5%, 3/4분기 -6.8%로 크게 부진했으나 10~11월 중에는 반도체와 석유제품 수출증가에 힘입어 두 자릿수 증가세
- 대EU 수출도 일반기계, 철강 등을 중심으로 수출이 확대되면서 지난해에 이어 두 자릿수 증가세 지속

<표 1-7> 지역별 수출

(단위: 전년동기 대비, %)

|       | 2006년 |      |      |      |      | 2007년 |      |      |      |         |           |
|-------|-------|------|------|------|------|-------|------|------|------|---------|-----------|
|       | 1/4   | 2/4  | 3/4  | 4/4  | 연간   | 1/4   | 2/4  | 3/4  | 10월  | 11.1~20 | 1.1~11.20 |
| 중국    | 12.6  | 11.2 | 11.8 | 13.2 | 12.2 | 18.9  | 14.4 | 15.7 | 28.7 | 23.1    | 17.9      |
| 일본    | 11.6  | 9.2  | 13.3 | 7.8  | 10.4 | -1.6  | -1.5 | -6.8 | 10.8 | 12.5    | -1.1      |
| 미국    | 0.0   | 10.7 | 9.0  | -1.0 | 4.5  | 11.0  | 7.8  | -4.1 | 27.0 | 0.0     | 6.4       |
| ASEAN | 10.3  | 14.0 | 17.1 | 25.4 | 16.9 | 27.4  | 25.4 | 7.4  | 30.3 | 23.6    | 20.6      |
| EU    | 7.4   | 16.1 | 13.3 | 7.7  | 11.0 | 14.6  | 17.3 | 13.1 | 12.2 | 5.7     | 12.6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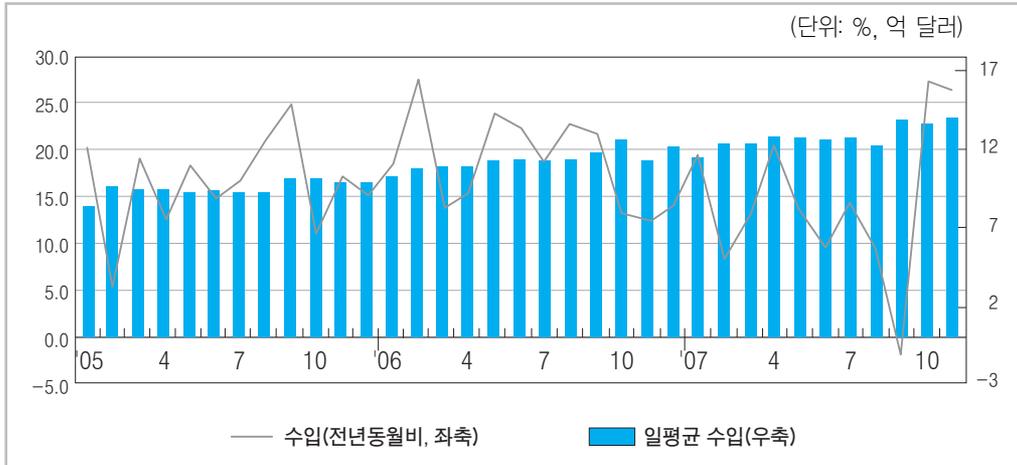
자료: 한국무역협회

## (6) 수입

### ■ 수입, 증가세 큰 폭 확대

- 수입은 국제유가 상승, 환율하락, 내수회복 등으로 7~11월 중 약 15.2% 증가하며 상반기 증가율(13.8%)을 상회
  -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금액도 2/4분기 12.7억 달러, 3/4분기 13.0억 달러 10~11월 중 13.9억 달러로 꾸준히 상승

〈그림 1-6〉 최근 수입 추이



자료: 산업자원부

- 용도별로는 원자재, 자본재, 소비재 모두 10~11월 중 높은 증가세
  - 원자재는 원유 및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전년동기 대비 약 30% 증가
  - 자본재는 설비투자 증가추이 둔화 등으로 인해 2007년 2/4분기 16.5%에서 3/4분기 5.2%로 증가폭 둔화, 그러나 10~11월 중에는 약 25%의 높은 증가세 회복
  - 소비재 수입도 민간소비 회복세의 영향으로 25%대의 높은 증가세

〈표 1-8〉 용도별 수입

(단위: 전년동기 대비, %)

|      | 2006년 |      |      |      |      | 2007년 |      |      |      |         |           |
|------|-------|------|------|------|------|-------|------|------|------|---------|-----------|
|      | 1/4   | 2/4  | 3/4  | 4/4  | 연간   | 1/4   | 2/4  | 3/4  | 10월  | 11.1~20 | 1.1~11.20 |
| 수입총액 | 19.7  | 20.4 | 21.1 | 13.0 | 22.8 | 13.4  | 14.5 | 7.2  | 27.3 | 27.5    | 14.1      |
| 원자재  | 24.6  | 24.7 | 26.7 | 16.0 | 11.7 | 13.0  | 14.8 | 8.1  | 27.3 | 32.8    | 14.7      |
| 자본재  | 12.0  | 11.9 | 14.4 | 8.6  | 19.9 | 12.8  | 16.5 | 5.2  | 26.0 | 23.6    | 13.7      |
| 소비재  | 19.5  | 21.8 | 20.8 | 17.8 | 18.4 | 21.4  | 14.7 | 11.8 | 34.6 | 15.6    | 17.5      |

자료: 한국무역협회

## (7) 경상수지

■ 수출호조, 소득수지 개선 등 영향으로 상반기 적자에서 7~10월 중에는 흑자로 전환 악화

-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7~10월 중 71.1억 달러
  - 상반기 적자(16.3억 달러)에 비해 약 87억 달러 개선
  
- 수출(BOP 기준) 증가율이 7~10월 중에는 수입증가율을 상회하면서 상품수지 흑자 확대
  - 상반기: 수출증가율 13.6% < 수입증가율 14.5%
  - 하반기: 수출증가율 14.9% < 수입증가율 11.9%
  - 7~10월 중 상품수지 흑자(134.1억 달러)는 상반기 흑자(130.1억 달러)를 상회
  
- 소득수지가 큰 폭으로 흑자로 전환
  - 상반기 22.3억 달러 적자에서 7~10월 중에는 21.7억 달러 흑자로 전환
  - 높은 외국인 주식보유비중, 주가 급상승 등에 따른 외국인 배당수익 증가는 소득수지 적자 요인이 되어 왔음.
  - 하지만 최근 내국인 해외투자가 급증하면서 투자소득수지가 크게 개선
  
- 여행수지 등 서비스수지 적자추세는 지속
  - 서비스수지: 상반기 -105.8억 달러 → '07년 7~10월 -73.0억 달러
  - 여행수지: 상반기 -72.7억 달러 → '07년 7~10월 -55.4억 달러

〈표 1-9〉 최근 경상수지

(단위: 억 달러)

|                | 2006년 |       |       |       |        | 2007년 |       |       |
|----------------|-------|-------|-------|-------|--------|-------|-------|-------|
|                | 1/4   | 2/4   | 3/4   | 4/4   | 연간     | 1/4   | 2/4   | 7~10월 |
| 경상수지(=A+B+C+D) | -11.2 | 6.9   | 3.7   | 61.4  | 60.9   | -16.6 | 0.3   | 71.1  |
| A. 상품수지        | 52.2  | 74.1  | 62.3  | 103.5 | 292.1  | 60.4  | 69.7  | 134.1 |
| B. 서비스수지       | -50.0 | -38.8 | -53.8 | -45.0 | -187.6 | -61.8 | -44.0 | -73.0 |
| 여행수지           | -29.5 | -28.4 | -37.8 | -33.4 | -129.2 | -36.1 | -36.6 | -55.4 |
| 사업서비스수지        | -15.1 | -15.1 | -18.5 | -19.6 | -68.3  | -22.6 | -17.1 | -28.1 |
| C. 소득수지        | -4.8  | -16.5 | 6.1   | 9.8   | -5.4   | -6.9  | -15.4 | 21.7  |
| D. 경상이전수지      | -8.6  | -11.9 | -10.8 | -6.8  | -38.2  | -8.3  | -10.0 | -12.9 |

자료: 한국은행

## 2. 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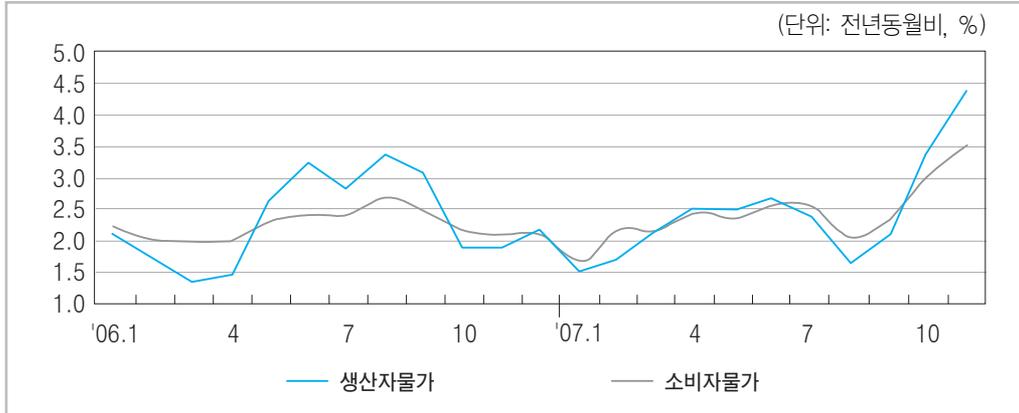
### ■ 소비자물가 오름세 3%대로 상승

- 10월 3.0%, 11월 3.5%로 상승해 2005년 5월 이후 처음 3%대 증가율 기록
  - 공업제품 가격이 가장 높은 상승세를 보임(3/4분기 1.5% → 10~11월 중 3.5%).
  - 원유 및 국제 원자재가격의 급등에 기인
- 반면 근원물가(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지수)는 2%대의 안정세 지속
  - 2.1%('06년 4분기) → 2.2%('07년 1분기) → 2.3%(2분기) → 2.3%(3분기) → 2.4%(10~11월)

### ■ 생산자물가 오름세는 더욱 빠르게 상승

- 3/4분기 2.1%에서 10월 3.4%로 높아진 후 11월에는 4.4%로 더 빠르게 상승
  - 2.0%('06년 4분기) → 1.8%('07년 1분기) → 2.6%(2분기) → 2.1%(3분기) → 3.4%(10월) → 3.4%(11월)

〈그림 1-7〉 소비자물가와 생산자물가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

■ 수입물가, 큰 폭 상승

- 올 3/4분기까지 하향안정세를 보이던 수입물가 상승률이 최근 국제 원유 및 곡물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다시 큰 폭의 오름세를 보임.
  - 원화기준 수입물가 상승률은 3/4분기 2.0%에서 10~11월 중에는 15.0% 급등
  - 달러기준 및 계약통화기준 수입물가는 10~11월 중에는 각각 18.6%, 17.8% 증가

〈표 I -10〉 물가 추이

(단위: 전년동기 대비, %)

|            | 2006년 |      |      |      |      | 2007년 |      |     |     |      |      |
|------------|-------|------|------|------|------|-------|------|-----|-----|------|------|
|            | 1/4   | 2/4  | 3/4  | 4/4  | 연간   | 1/4   | 2/4  | 3/4 | 10월 | 11월  |      |
| 소비자물가      | 2.1   | 2.2  | 2.5  | 2.1  | 2.5  | 2.0   | 2.4  | 2.3 | 3.0 | 3.5  |      |
| 상품         | 1.8   | 1.6  | 2.0  | 0.8  | 2.7  | 0.9   | 1.4  | 1.3 | 3.2 | 4.2  |      |
| 농축수산물      | -0.1  | -2.1 | 0.7  | 1.0  | 0.9  | 1.4   | 2.0  | 0.5 | 4.4 | 4.5  |      |
| 공업제품       | 2.3   | 2.6  | 2.4  | 0.8  | 3.4  | 0.7   | 1.4  | 1.5 | 2.8 | 4.1  |      |
| 서비스        | 2.2   | 2.7  | 2.9  | 3.0  | 2.2  | 2.8   | 3.0  | 2.9 | 2.9 | 3.1  |      |
| 집세         | -0.2  | 0.2  | 0.5  | 1.1  | -0.3 | 1.6   | 1.8  | 2.0 | 1.8 | 1.9  |      |
| 공공서비스      | 2.5   | 3.3  | 4.0  | 4.1  | 2.7  | 2.7   | 3.4  | 2.9 | 2.6 | 3.4  |      |
| 개인서비스      | 2.9   | 3.1  | 3.1  | 2.9  | 3.0  | 3.1   | 3.1  | 3.2 | 3.3 | 3.2  |      |
| 근원인플레이션    | 1.3   | 1.7  | 2.1  | 2.1  | 1.9  | 2.2   | 2.3  | 2.3 | 2.4 | 2.4  |      |
| 생산자물가      | 1.7   | 2.4  | 3.1  | 2.0  | 1.8  | 1.8   | 2.6  | 2.1 | 3.4 | 4.4  |      |
| 수 입<br>물 가 | 원화기준  | 8.1  | 8.8  | 5.1  | -0.4 | 4.8   | 1.2  | 2.8 | 2.0 | 11.2 | 18.8 |
|            | 계약기준  | 14.7 | 16.2 | 13.6 | 9.7  | 15.3  | 5.2  | 5.3 | 4.7 | 15.3 | 20.4 |
|            | 달러기준  | 13.0 | 15.4 | 13.3 | 10.1 | 14.6  | 5.4  | 5.1 | 4.9 | 15.9 | 21.3 |
| 가 공<br>단계별 | 원재료   | 22.4 | 19.0 | 9.5  | 1.5  | 20.4  | -1.6 | 0.4 | 3.8 | 20.5 | 31.0 |
|            | 중간재   | 1.6  | 3.5  | 4.8  | 1.9  | 0.5   | 3.2  | 4.1 | 2.2 | 4.6  | 7.2  |
|            | 최종재   | 0.3  | 0.5  | 0.6  | 0.4  | 0.4   | 0.4  | 1.1 | 0.6 | 1.6  | 2.9  |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

#### ■ 부동산 가격 상승세 둔화 지속

- 2006년 11·15 대책과 2007년 1·11 대책 등 일련의 부동산 대책의 영향으로 올 1월 이후 크게 둔화
  - 강북지역이 재개발 추진 및 그에 따른 기대감으로 인해 강남지역에 비해 상대적 인 강세

〈표 1-11〉 전국 주택매매가격 증가율

(단위: 전기대비, %)

|            | 2006년 |     |     |     | 2007년 |     |     |     |      |     |     |     |     |     |     |
|------------|-------|-----|-----|-----|-------|-----|-----|-----|------|-----|-----|-----|-----|-----|-----|
|            | 9월    | 10월 | 11월 | 12월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 전국         | 0.5   | 1.3 | 3.1 | 1.9 | 0.9   | 0.4 | 0.2 | 0.1 | 0.1  | 0.1 | 0.3 | 0.2 | 0.3 | 0.3 | 0.3 |
| 서울강북(14개구) | 0.7   | 1.5 | 4.1 | 3.8 | 2.0   | 0.6 | 0.6 | 0.5 | 0.4  | 0.5 | 0.7 | 0.4 | 0.6 | 0.6 | 0.9 |
| 서울강남(11개구) | 0.9   | 0.2 | 5.4 | 2.2 | 1.1   | 0.2 | 0.2 | 0.0 | -0.2 | 0.1 | 0.4 | 0.3 | 0.2 | 0.2 | 0.0 |

자료: 국민은행

### 3. 노동시장

#### ■ 양적·질적 고용지표 소폭 개선

- 2007년 3/4분기 취업자수는 전년동기 대비 29.5만 명 증가하며 양적 고용지표의 소폭 개선을 시현했으나 10월과 11월 취업자수는 전년동월 대비 28.7만 명과 28.1만 명 증가해 양적 고용지표 소폭 개선에 그침.
  - 28.9만 명('07년 2분기) → 29.6만 명(3분기) → 28.7만 명(10월) → 28.1만 명(11월)
- 연령별과 취업시간대별 취업자수의 추이는 질적 고용지표도 소폭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미흡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
  - 청년층(15~29세)의 취업자수의 감소세는 지속되고 있으며 중년층(30~49세)의 취업자수의 감소세는 올 10월까지 지속되다 11월에 들어 전년동월 대비 0.4% 증가하는 데 그쳤음.
  - 주당 36시간 이상의 취업자수는 3/4분기 2.4% 감소한 이후 10월과 11월에 각각 1.3%와 2.7% 증가하며 다소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음.
  - 주당 36시간 미만의 취업자수는 3/4분기와 10월에 각각 23.7%와 0.3% 증가하며 일자리의 질적 개선을 저해했으며, 11월에 8.7% 감소에 그쳤음.

■ 임금근로자 증가세 소폭 확대, 비임금근로자 감소세 지속

- 3/4분기 이후 임금근로자는 전년동기 대비 2% 후반대의 증가율을 보이며 2006년 1/4분기 이후 지속된 2% 중반의 증가세 소폭 확대
  - 3/4분기 상용근로자는 전년동기 대비 6.2% 증가하여 2006년 4/4분기부터 전년동기 대비 4%를 상회하는 높은 증가세 지속, 10월과 11월에도 5% 초반의 증가세 유지
  - 임시직근로자는 3/4분기에 전년동기 대비 0.3% 감소하기 시작하여 11월까지 지속
  - 2006년 3/4분기부터 전년동기 대비 2% 안팎의 감소세가 지속된 일용직근로자는 2007년 3/4분기 1.5% 감소한 후, 10월과 11월에는 0.7~0.8% 수준의 소폭 증가
- 3/4분기 비임금근로자는 전년동기 대비 2.2% 감소하고 10월과 11월에도 2% 내외 감소하여 2006년 1/4분기부터 감소 추세 지속
  - 3/4분기 이후 비임금근로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자영업 종사자수는 전년동기 대비 1.3% 내외 감소하였고, 무급가족 종사자수는 3/4분기와 10월에 전년동기 대비 5.9%와 5.5% 감소를 보인 후 11월에 2.9% 감소로 다소 둔화

〈표 1-12〉 취업자 추이

(단위: 천 명, 전년동기 대비, %)

|                |          | 2006년  |        |        | 2007년  |        |        |        |        |
|----------------|----------|--------|--------|--------|--------|--------|--------|--------|--------|
|                |          | 3/4    | 4/4    | 연간     | 1/4    | 2/4    | 3/4    | 10월    | 11월    |
| 취업자수           |          | 23,314 | 23,303 | 23,151 | 22,841 | 23,698 | 23,610 | 23,750 | 23,739 |
| 전년동기비 증감       |          | 287    | 278    | 295    | 264    | 289    | 296    | 287    | 281    |
| 취업<br>시간<br>대별 | 36시간 미만  | 2.1    | 2.4    | 0.6    | 6.4    | 1.8    | 23.7   | 0.3    | -8.7   |
|                | 36시간 이상  | 1.2    | 0.9    | 1.5    | 0.3    | 1.1    | -2.4   | 1.3    | 2.7    |
| 연령별            | 15~29세   | -3.8   | -3.7   | -4.0   | -2.1   | -1.6   | -1.5   | -0.2   | -0.6   |
|                | 30~49세   | 1.0    | 0.4    | 0.9    | -0.1   | -0.5   | -0.4   | -0.2   | 0.4    |
|                | 50세 이상   | 5.5    | 6.4    | 6.0    | 6.2    | 6.5    | 6.3    | 4.7    | 4.0    |
| 종사상<br>지위별     | 비임금근로자   | -1.1   | -1.5   | -0.9   | -2.2   | -1.1   | -2.2   | -2.0   | -1.8   |
|                | 자영업주     | -1.0   | -1.0   | -0.6   | -1.9   | -0.9   | -1.3   | -1.1   | -1.5   |
|                | 무급가족 종사자 | -1.3   | -3.6   | -2.2   | -3.2   | -1.8   | -5.9   | -5.5   | -2.9   |
|                | 임금근로자    | 2.4    | 2.6    | 2.4    | 2.8    | 2.4    | 3.0    | 2.8    | 2.6    |
| 지위별            | 상용       | 3.7    | 4.8    | 3.6    | 4.3    | 4.6    | 6.2    | 5.2    | 5.1    |
|                | 임시       | 2.5    | 1.3    | 1.7    | 2.5    | 0.7    | -0.3   | -0.2   | -0.5   |
|                | 일용       | -2.1   | -2.4   | -0.4   | -2.4   | -1.7   | -1.5   | 0.8    | 0.7    |
|                | 임금근로자비율  | 66.7   | 67.6   | 67.2   | 68.5   | 67.8   | 67.9   | 68.0   | 68.0   |

자료: 통계청

■ 실업률 소폭 개선

- 3/4분기 이후 실업률은 전년동기 대비 0.2%포인트 개선
  - 3/4분기 실업자는 75.6만 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4.3만 명 감소하였고 실업률도 2006년 3/4분기에 비해 0.2%포인트 낮아진 3.1% 수준
  - 3/4분기 청년(15~29세)실업률도 전년동기 대비 0.4%포인트 낮아진 7.1%로 소폭 개선
  - 3/4분기 비경제활동인구는 1,486.5만 명으로 전년동기의 1,472.2만 명에 비해 14.3만 명 증가하는 데 그쳤고, 3/4분기 구직단념자는 10.8만 명으로 전년동기에 비해 약 1.1만 명 감소

〈표 I -13〉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 추이

(단위: 천 명, %)

|               | 2006년  |        |        | 2007년  |        |        |        |        |
|---------------|--------|--------|--------|--------|--------|--------|--------|--------|
|               | 3/4    | 4/4    | 연간     | 1/4    | 2/4    | 3/4    | 10월    | 11월    |
| 실업자           | 799    | 780    | 827    | 851    | 791    | 756    | 733    | 733    |
| 실업률           | 3.3    | 3.2    | 3.5    | 3.6    | 3.2    | 3.1    | 3.0    | 3.0    |
| 청년(15~29세)실업률 | 7.5    | 7.8    | 7.9    | 7.6    | 7.3    | 7.1    | 6.5    | 7.1    |
| 계절조정실업률       | 3.5    | 3.4    | 3.4    | 3.2    | 3.3    | 3.3    | 3.1    | 3.2    |
| 비경제활동인구       | 14,722 | 14,807 | 14,784 | 15,305 | 14,647 | 14,865 | 14,808 | 14,845 |
| 구직단념자         | 119    | 125    | 121    | 129    | 95     | 108    | 95     | 100    |

자료: 통계청

## 4. 금융시장

### (1) 통화지표

■ 11월 중 M2 증가율은 전월보다 소폭 상승하여 11% 내외로 추정

- 11월 중 M2 증가율은 법인세, 부가세액납부액 증가 등으로 정부부문으로의 통화 환수가 지속되었던 10월에 비해 소폭 증가한 11% 내외로 추정

- 11월 들어 정부부문이 통화 환수에서 공급으로 돌아섰고 중소기업대출을 중심으로 한 민간신용 증가세에 기인

- 11월 중 Lf(금융기관 유동성) 증가율은 10월의 10.4%에 비해 다소 낮아진 10% 초반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

〈표 1-14〉 주요 통화지표 증가율 추이

(단위: 전년동기 대비, %, 평잔 기준)

|                  | 2006년 |     |     |      |     | 2007년 |      |      |      |        |
|------------------|-------|-----|-----|------|-----|-------|------|------|------|--------|
|                  | 1/4   | 2/4 | 3/4 | 4/4  | 연중  | 1/4   | 2/4  | 3/4  | 10월  | 11월    |
| M2               | 7.0   | 7.2 | 8.1 | 10.9 | 8.3 | 11.5  | 11.0 | 11.1 | 10.8 | 11% 내외 |
| Lf <sup>1)</sup> | 7.2   | 7.4 | 7.5 | 9.2  | 7.9 | 10.0  | 10.2 | 10.2 | 10.4 | 10% 초반 |

주: 1) 광의유동성(L) 지표 신규편제에 따라 M3가 Lf(금융기관 유동성)로 개칭되어 유동성지표로 활용  
 자료: 한국은행, 금융시장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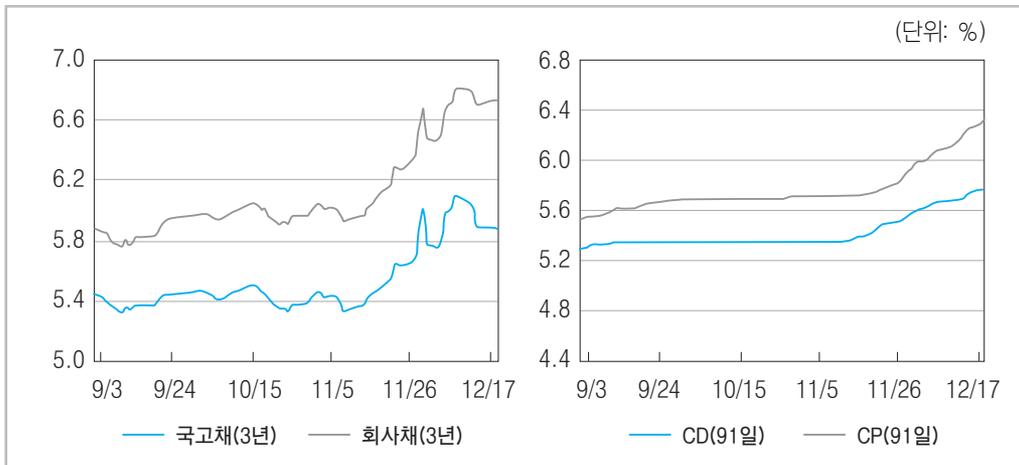
## (2) 금리

### ■ 시장금리는 글로벌 신용경색 및 단기 채권발행 급증 등으로 높은 상승세 시현

- 글로벌 신용경색 등으로 상승기조에 있던 시장금리는 국채 매도 증가와 CD 등 단기채권 발행 급증으로 높은 상승세를 시현
  - 11월 말에는 지속적 국채금리 상승으로 본드-스왑 스프레드가 급속하게 확대되자 평가손을 우려한 기관들의 손절매성 국채 매도가 급증(국채 매수-IRS페이 포지션의 급격한 청산)하여 큰 폭의 금리상승을 기록
  - 국고채 유통수익률: 5.45%(9월 3일) → 5.46%(11월 1일) → 5.62%(11월 23일) → 5.88%(12월 18일)
  - 회사채 유통수익률: 5.87%(9월 3일) → 6.05%(11월 1일) → 6.27%(11월 23일) → 6.73%(12월 18일)
- 은행권으로부터의 자금 이탈로 인하여 은행들의 CD발행이 급증하면서 CD금리는 최근 급상승
  - CD발행 급증의 영향으로 CP금리도 크게 상승하였으며 특히 은행의 자금부족으로 은행계열의 캐피털사 등의 CP발행이 급증한 것도 한 요인
  - CD금리: 5.3%(9월 3일) → 5.32%(11월 1일) → 5.70%(12월 18일)
  - CP금리: 5.53%(9월 3일) → 5.71%(11월 1일) → 6.18%(12월 18일)
- 금융시장 불안이 지속됨에 따라 신용스프레드는 상승세를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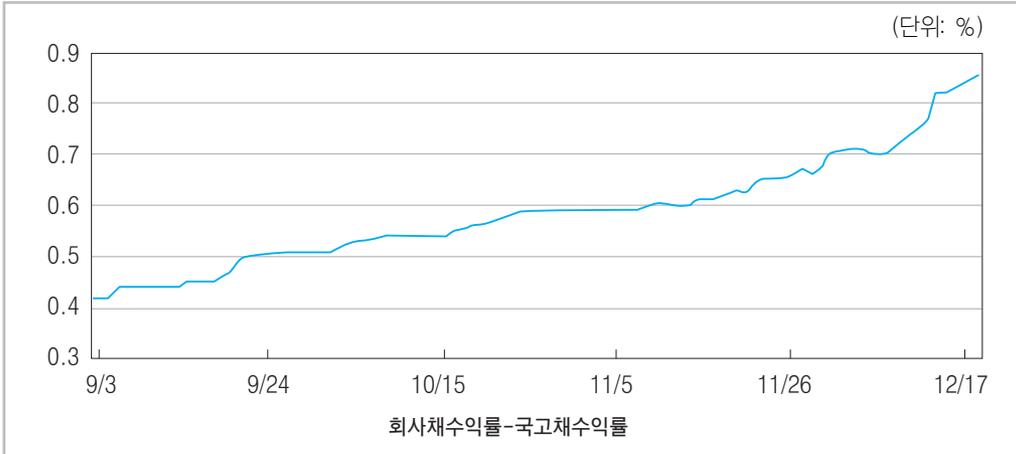
- 뚜렷한 기업실적의 호조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금융시장의 불안이 지속됨에 따라 신용스프레드는 지속적인 상승세를 시현
- 9월 이후 하락 안정세를 찾았던 외평채 가산금리는 11월 중 급상승한 이후 다시 하락으로 반전
  -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재확산에 대한 우려 등 국제금융시장 불안으로 11월 중 외평채 가산금리가 급증하였다가 최근 다시 하락세를 회복
  - 외평채 가산금리(bp): 84(9월 3일) → 107(11월 23일) → 98(12월 17일)

<그림 1-8> 시장금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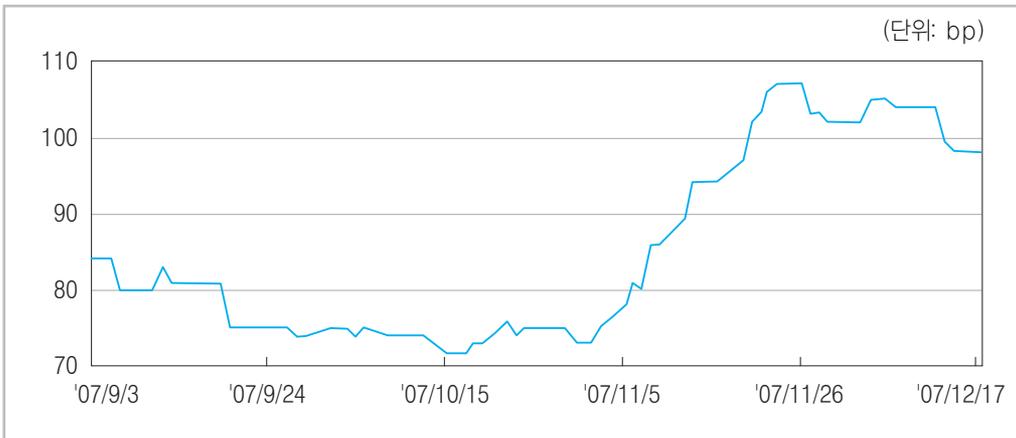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그림 1-9〉 신용스프레드 추이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그림 1-10〉 외평채<sup>1)</sup> 가산금리 추이



주: 1) 2014년 만기 기준

자료: 국제금융센터

〈표 I -15〉 주요 금리 현황

(단위: 연리 %, 말일 기준)

| 구 분             | 2005년 | 2006년 | 2007년 |      |      |      |         |
|-----------------|-------|-------|-------|------|------|------|---------|
|                 | 12월   | 12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18일 |
| 콜금리(1일물)(A)     | 3.76  | 4.60  | 4.98  | 4.98 | 5.02 | 5.02 | 5.00    |
| CD유통수익률(91일)    | 4.09  | 4.86  | 5.29  | 5.35 | 5.35 | 5.60 | 5.70    |
| CP유통수익률(91일)    | 4.32  | 5.03  | 5.51  | 5.69 | 5.71 | 5.99 | 6.18    |
| 국고채(3년)(B)      | 5.08  | 4.92  | 5.43  | 5.46 | 5.43 | 5.77 | 5.88    |
| 회사채(3년, AA-)(C) | 5.52  | 5.29  | 5.85  | 5.97 | 6.02 | 6.47 | 6.73    |
| B-A (%포인트)      | 1.32  | 0.32  | 0.45  | 0.48 | 0.41 | 0.75 | 0.88    |
| C-A (%포인트)      | 1.76  | 0.69  | 0.87  | 0.99 | 1.00 | 1.45 | 1.73    |
| C-B (%포인트)      | 0.44  | 0.37  | 0.42  | 0.51 | 0.59 | 0.70 | 0.85    |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 예금은행의 수신 평균금리는 상승세 둔화, 대출 평균금리는 상승세 지속

- 연초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던 예금은행의 저축성수신 평균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10월 들어 소폭 하락
  - 약정기간이 짧은 공공기관 정기예금 취급이 증가하여 저축성수신 평균금리는 10월 들어 전월에 비해 0.01%포인트 하락(9월: 5.24% → 10월: 5.23%)
  - 시장형금융상품 금리는 전월과 동일한 수준 유지(5.32%)
- 대출 평균금리는 상승세를 지속하여 10월 들어 전월에 비해 0.09%포인트 상승
  - 시장금리 자체가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어 기업대출 및 가계대출 금리 모두 전월에 비해 상승(기업대출 금리: +0.08%포인트, 가계대출금리: +0.05%포인트)
  - 일부 의료재단 및 종교기관에 대한 고금리 대출로 공공·기타 대출금리는 전월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9월: 5.63% → 10월: 6.41%)

〈표 1-16〉 신규취급액 기준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 추이

(단위: 연%, %p)

|                          | 2005년 | 2006년 | 2007년 |      |      |      |       |
|--------------------------|-------|-------|-------|------|------|------|-------|
|                          | 12월   | 12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월중 증감 |
| 저축성수신 평균금리 <sup>1)</sup> | 4.14  | 4.60  | 4.97  | 5.11 | 5.28 | 5.27 | -0.01 |
| 순수저축성예금                  | 4.05  | 4.53  | 4.87  | 5.05 | 5.24 | 5.23 | -0.01 |
| 시장형금융상품                  | 4.27  | 4.66  | 5.06  | 5.16 | 5.32 | 5.32 | 0.00  |
| 대출 평균금리 <sup>2)</sup>    | 5.74  | 6.19  | 6.41  | 6.56 | 6.70 | 6.79 | 0.09  |
| 기업대출                     | 5.80  | 6.30  | 6.46  | 6.59 | 6.74 | 6.82 | 0.08  |
| (대기업)                    | 5.24  | 5.88  | 5.92  | 6.01 | 6.29 | 6.32 | 0.03  |
| (중소기업)                   | 5.92  | 6.40  | 6.61  | 6.74 | 6.86 | 6.93 | 0.07  |
| 가계대출                     | 5.63  | 5.97  | 6.38  | 6.51 | 6.66 | 6.71 | 0.05  |
| (주택담보대출)                 | 5.60  | 5.88  | 6.24  | 6.38 | 6.52 | 6.55 | 0.03  |
| (신용대출)                   | 5.61  | 6.13  | 6.60  | 6.71 | 6.90 | 6.98 | 0.08  |
| 공공·기타대출                  | 5.01  | 5.45  | 5.58  | 5.72 | 5.63 | 6.41 | 0.78  |

주: 1) 예금은행 수신상품 중 요구불예금 및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을 제외

2) 당좌대출 및 마이너스통장대출 제외

자료: 한국은행,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동향

### (3) 기업 및 가계의 자금조달

■ 최근 호조세를 보이고 있는 은행의 기업대출은 11월 들어서도 큰 폭으로 증가

- 은행의 기업대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11월 들어서도 10.2조 원의 큰 폭의 증가세 시현
  - 대기업의 설비투자 증가, 중소기업의 법인세 납부 수요 등으로 대기업 및 중소기업 대출 모두 양호한 증가세 시현
  - 특히 그동안 부진했던 대기업의 설비투자 회복으로 2006년 1~11월 기간 중 2.5조 원의 감소를 보였던 대기업 대출이 올해 동 기간의 경우 8.7조 원이나 증가

- 11월 들어 주식발행규모는 소폭 축소되었으며 CP, 회사채의 순발행 규모는 큰 폭으로 축소
  - 주식발행액: 10월: 0.8조 원 → 11월: 0.7조 원
  - 회사채는 10월 0.7조 원의 순발행에서 11월 0.8조 원의 순상환으로 전환되었으며 CP 순발행규모는 10월 1.5조 원에서 11월 0.3조 원으로 대폭 축소

〈표 1-17〉 기업 자금조달 추이

(단위: 조 원, 기간 중 말잔 증감)

|                        | 2006년 |       |      | 2007년 |      |      | 2007년<br>11월 말잔액 |
|------------------------|-------|-------|------|-------|------|------|------------------|
|                        | 연중    | 1~11월 | 11월  | 1~11월 | 10월  | 11월  |                  |
| 은행원화대출 <sup>1)</sup>   | 42.2  | 40.1  | 4.5  | 77.9  | 9.5  | 10.2 | 395.5            |
| (대기업)                  | -1.3  | -2.5  | -1.1 | 8.7   | 1.2  | 1.6  | 36.1             |
| (중소기업)                 | 43.5  | 42.6  | 5.6  | 69.2  | 8.2  | 8.6  | 359.4            |
| 은행사모사채인수 <sup>2)</sup> | 16.6  | 14.9  | 1.6  | -5.1  | -1.2 | -0.5 | 25.8             |
| 회사채순발행 <sup>3)</sup>   | -2.9  | -2.2  | -1.0 | -2.0  | 0.7  | -0.8 | -                |
| CP순발행 <sup>4)</sup>    | 2.8   | 6.4   | -1.6 | 7.2   | 1.5  | 0.3  | 21.7             |
| 주식발행                   | 5.0   | 4.4   | 0.5  | 6.0   | 0.8  | 0.7  | -                |

주: 1) 은행신탁포함, 산업은행 제외

2) 국내은행 원화사모사채(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제외), 공기업 발행분 포함

3) 일반기업이 발행한 공모회사채(ABS 제외, P-CBO 포함) 기준

4) 증권·종금사 및 은행신탁 취급분, 2007년 11월은 11월 1~20일 기준

자료: 한국은행, 금융시장 동향

#### ■ 11월 중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폭 소폭 축소

- 11월 들어 은행의 가계대출은 전월에 비해 소폭 축소  
(10월: 3.9조 원 → 11월: 3.3조 원)
  -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11월 들어 입주물량 증가로 집단대출이 늘어남에 따라 전월에 비해 증가폭 확대(10월: 1.1조 원 → 11월: 1.6조 원)
  - 11월 중 마이너스통장대출은 전월에 비해 증가폭 축소  
(10월: 2.8조 원 → 11월: 1.7조 원)

〈표 1-18〉 은행의 가계대출

(단위: 조 원, 기간 중 말잔 증감)

|                         | 2005년 | 2006년 |     | 2007년 |     |     | 2007년   |
|-------------------------|-------|-------|-----|-------|-----|-----|---------|
|                         | 연중    | 1~11월 | 11월 | 1~11월 | 9월  | 10월 | 11월     |
| 가계대출 <sup>1)</sup>      | 29.4  | 35.9  | 5.6 | 18.1  | 0.9 | 3.9 | 3.3     |
| (주택담보대출 <sup>2)</sup> ) | 20.6  | 23.6  | 4.2 | 4.5   | 0.3 | 1.1 | 1.6     |
| (마이너스통장대출 등)            | 9.2   | 12.3  | 1.5 | 13.4  | 0.6 | 2.8 | 1.7     |
|                         |       |       |     |       |     |     | 11월 말잔액 |
|                         |       |       |     |       |     |     | 363.7   |
|                         |       |       |     |       |     |     | 221.5   |
|                         |       |       |     |       |     |     | 140.4   |

주: 1) 신탁포함, 중별대출은 신탁 제외

2) 주택자금대출 포함

자료: 한국은행, 금융시장 동향

■ 가계신용 잔액은 3/4분기 들어 증가폭이 확대

- 2007년 3/4분기 가계신용 잔액은 전 분기에 비해 증가폭이 확대되었으며 전년동기 대비 9.3% 증가

〈표 1-19〉 가계신용 추이

(단위: 십억 원, %)

|                 | 2005년              | 2006년               |                     |                     | 2007년               |                    |                    |
|-----------------|--------------------|---------------------|---------------------|---------------------|---------------------|--------------------|--------------------|
|                 | 12월 말              | 6월 말                | 9월 말                | 12월 말               | 3월 말                | 6월 말               | 9월 말               |
| 가계신용잔액<br>(A+B) | 521,495.9<br>(9.9) | 545,495.9<br>(10.4) | 558,817.6<br>(10.4) | 581,963.5<br>(11.6) | 586,516.9<br>(10.9) | 596,440.7<br>(9.3) | 610,643.8<br>(9.3) |
|                 | [46,833.6]         |                     | [60,467.6]          |                     |                     | [28,680.3]         |                    |
|                 |                    | <16,728.7>          | <13,321.7>          | <23,145.9>          | <4,553.4>           | <9,923.8>          | <14,203.1>         |
| 가계대출잔액<br>(A)   | 493,468.7<br>(9.8) | 516,661.6<br>(10.2) | 529,452.7<br>(10.2) | 550,431.3<br>(11.5) | 555,278.3<br>(10.9) | 564,723.4<br>(9.3) | 578,496.4<br>(9.3) |
|                 | [44,070.5]         |                     | [56,962.6]          |                     |                     | [28,065.1]         |                    |
|                 |                    | <15,816.1>          | <12,791.1>          | <20,978.6>          | <4,847.0>           | <9,445.1>          | <13,773.0>         |
| 판매신용잔액<br>(B)   | 28,027.3<br>(10.9) | 28,834.4<br>(13.9)  | 29,365.0<br>(15.1)  | 31,532.2<br>(12.5)  | 31,238.6<br>(11.9)  | 31,717.3<br>(10.0) | 32,147.4<br>(9.5)  |
|                 | [2,763.2]          |                     | [3,504.9]           |                     |                     | [615.2]            |                    |
|                 |                    | <912.6>             | <530.6>             | <2,167.2>           | <-293.6>            | <478.7>            | <430.1>            |

주: ( ) 안은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 < > 안은 전 분기 말 대비 증감액, [ ] 안은 연간 증감액

자료: 한국은행, 가계신용 동향

- 2007년 3분기 중 판매신용은 전 분기에 비해 소폭 축소되었으나 금융기관의 가계대출 증가폭이 확대되면서 전체 가계신용 잔액 증가폭이 확대
- 2007년 3분기 중 가계대출은 13조7,730억 원 증가하여 전 분기(9조4,451억 원 증가)에 비해 증가폭이 확대되었으며 판매신용은 전 분기(4,787억 원 증가)보다 증가폭이 소폭 감소(4,301억 원 증가)
- 가계대출 증가폭의 확대는 계절적 수요와 입주물량 증가로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한 데 기인

#### (4) 자금흐름 동향

##### ■ 최근 은행 및 자산운용사 수신은 큰 폭의 증가세 시현

- 최근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는 은행 수신은 11월 들어 증가폭이 크게 확대
  - 은행 수신: 6.5조 원('07년 9월) → +7.6조 원('07년 10월) → +11.3조 원('07년 11월)
  - 자금이탈을 막기 위한 일부 은행의 특판 예금 취급으로 인한 정기예금 수신고 증가와 결제성 자금 유입으로 인한 수시입출식예금 수신고가 크게 증가
  - 국제금융시장 여건 악화로 은행의 해외차입이 여의치 않은 상태에서 은행의 대출 재원 마련 및 유동성 관리를 위해 단기시장성 수신(CD 등)과 은행채 발행의 증가세 지속
- 자산운용사 수신도 큰 폭의 증가세를 지속
  - 자산운용사 수신: +3.3조 원('07년 9월) → +13.0조 원('07년 10월) → +14.3조 원('07년 11월)
  - 주식형 및 혼합형 펀드 수신이 큰 폭의 증가세를 지속한 데 기인
- 증권사 수신은 11월 들어 전월 대비 1.9조 원 감소
  - 증시의 변동성 심화로 인한 개인투자자의 투자심리 위축으로 고객예탁금이 급감한 데 기인(-2.3조 원)
  - 단기투자의 확대로 RP 수신은 증가세는 지속되고 있으나 11월 들어 증가폭이 소폭 둔화

- 총금사 수신은 10월의 4.2조 원 증가에서 11월 들어 0.4조 원 감소로 반전
  - 발행어음 및 CP는 전월 말 대비 각각 0.2조 원 및 0.1조 원 증가하였으나 CMA 수신이 0.7조 원 감소하여 전체 총금 수신은 감소로 전환

〈표 1-20〉 주요 금융기관 수신 현황

(단위: 조 원, 기간 중 말잔 증감)

|                      | 2005년<br>연중 | 2006년<br>연중 | 2007년 |      |      | 2007년<br>11월 말 잔액 |
|----------------------|-------------|-------------|-------|------|------|-------------------|
|                      |             |             | 9월    | 10월  | 11월  |                   |
| 은행 수신                | 36.0        | 41.5        | 6.5   | 7.6  | 11.3 | 815.1             |
| 수시입출식 <sup>1)</sup>  | 22.0        | 10.8        | 5.1   | 0.9  | 4.5  | 226.8             |
| 정기예금                 | -8.0        | 16.5        | -2.4  | 0.8  | 5.0  | 274.8             |
| 단기시장성                | 20.2        | 15.7        | 0.1   | 4.0  | -0.3 | 131.5             |
| 은행채                  | 8.2         | 31.6        | 3.8   | 2.9  | 3.1  | 137.8             |
| 자산운용사 수신             | 17.3        | 30.3        | 3.3   | 13.0 | 14.3 | 296.9             |
| MMF                  | 5.0         | -7.7        | -0.4  | 1.7  | -0.1 | 52.6              |
| 주식형                  | 17.6        | 20.3        | 3.3   | 10.6 | 12.0 | 106.6             |
| 채권형                  | -24.5       | -1.0        | -0.4  | -1.3 | -1.1 | 43.8              |
| 혼합형                  | 7.9         | 5.6         | 0.3   | 3.5  | 3.7  | 48.8              |
| 신종펀드                 | 11.2        | 13.1        | 0.4   | -1.5 | -0.2 | 45.1              |
| 증권사 수신               | 6.5         | 8.0         | 2.3   | 1.4  | -1.9 | 42.7              |
| 고객 예탁금               | 3.8         | -3.5        | -0.1  | 0.4  | -2.3 | 10.8              |
| RP                   | 2.7         | 11.5        | 2.4   | 1.0  | 0.4  | 31.9              |
| 총금사 수신 <sup>2)</sup> | 5.9         | 10.1        | 1.6   | 4.2  | -0.4 | 54.2              |
| 발행어음                 | 1.1         | 6.0         | 1.0   | 1.0  | 0.2  | 20.5              |
| CMA                  | 0.9         | 0.8         | 0.0   | 0.2  | -0.7 | 4.5               |
| 어음매출(CP)             | 3.9         | 3.3         | 0.6   | 3.0  | 0.1  | 29.2              |

주: 1) 요구불예금 포함

2) 총금사 수신은 11.28 기준

자료: 한국은행, 금융시장 동향; 산업은행, 시중자금동향

- 은행의 단기시장성예금 및 MMF 수신의 감소와 주식형·혼합형 펀드의 큰 폭 증가로 인해 주요 금융기관의 단기수신 비중은 11월 들어 큰 폭으로 하락
  - 금융기관의 단기수신 비중의 하락세: 50.2%('07년 8월) → 50.1%('07년 9월) → 49.9%('07년 10월) → 49.1%('07년 11월)

〈표 1-21〉 주요 금융기관의 단기수신<sup>1)</sup> 비중

(단위: %, 조 원)

|         | 2005년 | 2006년 | 2007년 |       |       |       | '07.11월 평균잔액 |
|---------|-------|-------|-------|-------|-------|-------|--------------|
|         | 12월   | 12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
| 단기수신 비중 | 51.8  | 51.1  | 50.2  | 50.1  | 49.9  | 49.1  | 491.2        |
| 장기수신 비중 | 48.2  | 48.9  | 49.8  | 49.9  | 50.1  | 50.9  | 509.5        |
| 계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8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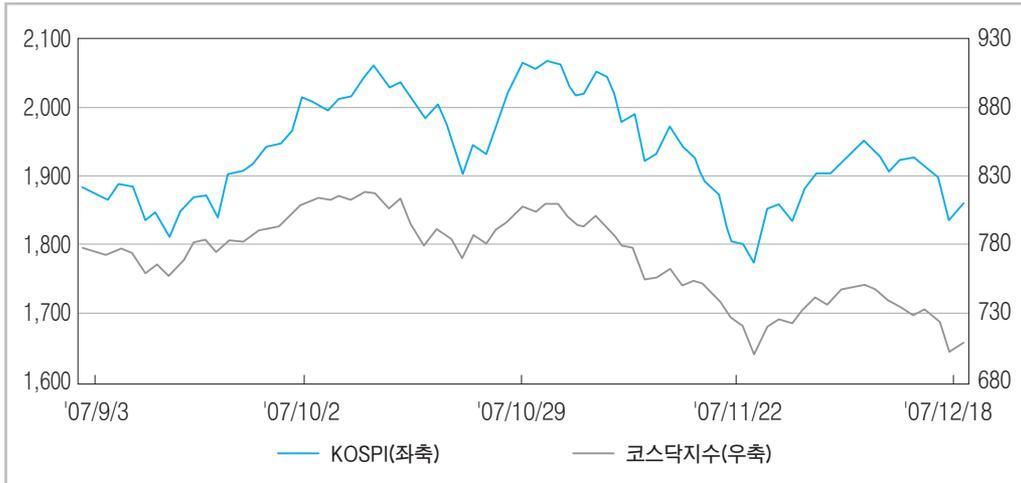
주: 1) 단기수신: 은행, 은행신탁, 자산운용사, 종금사의 만기 6개월 미만 금융상품 수신의 평균잔액 기준(요구불예금, 수시입출식예금, 6개월 미만 정기예금, CD, RP, 표지어음, MMF, 단기채권형펀드, CMA, 자발어음 등)  
 자료: 한국은행, 금융시장 동향

## (5) 주식시장

-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해 국제금융시장 불안정성이 심화됨에 따라 국내 주가도 높은 변동성 시현
  - 미국 증시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확산에 대한 우려로 인한 급락, 경제지표 호전 및 금리인하로 인한 급등을 반복함에 따라 국내 증시도 높은 변동성을 시현
    - 10월 말 미국 대형투자은행의 3/4분기 실적 악화 발표에 따라 미국 증시는 한때 급락한 후 미 FOMC의 금리인하로 다시 급등하는 등 불안정한 모습을 시현
    - 한국 증시도 국제금융시장에 영향을 받아 하향추세 속에서 높은 변동성을 시현
    - 코스피지수는 글로벌 증시의 급락, 서브프라임 위기 재확산, 고유가 등으로 11월 말 한때 1,770pt대까지 급락하였다가 양호한 경제지표 발표와 미 금리인하 기대감으로 다시 상승
    - 코스피지수: 1,881.81(9월 3일) → 2,064.85(10월 31일) → 1772.88(11월 23일) → 1,861.47(12월 18일)

- 코스닥지수: 778.89(9월 3일) → 810.07(10월 31일) → 700.68(11월 23일)  
→ 709.47(12월 18일)

〈그림 1-11〉 주가지수 추이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표 1-22〉 주식시장 주요 지표

(단위: 조 원, %, 말일 기준)

| 구 분           | 2006년    | 2007년    |          |          |          |          |
|---------------|----------|----------|----------|----------|----------|----------|
|               |          | 7월       | 8월       | 9월       | 11월      | 12월 18일  |
| 종합주가지수(KOSPI) | 1,434.46 | 1,873.24 | 1,946.48 | 2,064.85 | 1,906.00 | 1,861.47 |
| 거래대금(평균)      | 2.0      | 6.2      | 5.7      | 8.2      | 7.3      | 5.3      |
| 시가총액          | 704.6    | 932.1    | 974.0    | 1029.3   | 953.8    | 933.8    |
| 연월 중 외국인 순매수  | -10.753  | -8.704   | -1.896   | -0.081   | -6.745   | -2.022   |
| 코스닥지수(KOSDAQ) | 606.15   | 755.13   | 794.56   | 810.07   | 741.84   | 709.47   |
| 거래대금(평균)      | 1.7      | 2.0      | 2.1      | 2.3      | 1.8      | 1.6      |
| 시가총액          | 72.1     | 103.5    | 106.0    | 110.8    | 103.6    | 100.4    |
| 연월 중 외국인 순매수  | -0.454   | -0.264   | -0.002   | -0.118   | -0.215   | -0.012   |
| 고객예탁금         | 8.4      | 12.8     | 12.7     | 13.1     | 10.8     | 10.7     |

자료: 재정경제부, 주요 금융통계

## 5. 외환시장

### (1) 원화 환율

- 지속적인 하락안정세를 보이던 원/달러 환율은 11월 중순 글로벌 증시 불안의 여파로 급등한 후 수출대금 공급과 외국인 주식배당 역송금 등이 겹치며 혼조세를 보임.
- 11월 초 900원대까지 하락했던 원/달러 환율은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의 재개와 외국인투자자들의 순매도 급증으로 한 달 만에 930원대로 급등함.
- 12월 들어 원/달러 환율은 수출대금의 꾸준한 공급과 외국인 투자자들의 주식배당 역송금 등이 겹치면서 변동폭이 확대됨.
  - 12월 17일 현재 원/달러 환율은 927.70원을 기록
- 미 연준은 점차 뚜렷해지는 미국경제의 침체기조에 전방위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11~12월 중 연방기금금리를 0.5% 추가 인하했고, 단기금융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유동성 지원에 나서고 있음.
  - FOMC는 주택시장의 부실이 심화되고, 소비자지출 등의 최근 경제지표들의 부진에 대응하기 위해 10월 31일에 이어 12월 12일에도 연방기금금리를 0.25% 인하함.
  - 유가 및 원자재 가격의 급등으로 인한 인플레이 압력이 증가하고 있어 향후 금리인하 가능성은 다소 줄어든 상태이나, 일부에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연기금리가 3.75%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함.
  - 이와 관련해 달러스 연은 총재 피셔는 과도한 금리인하는 달러약세와 물가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함.
  - 미 연준은 신용경색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방안으로 장기 환매조건부채권과 각국 중앙은행들과의 공조를 통하여 단기금융시장에 12월 현재 640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투입

〈표 1-23〉 원/달러 환율

|              | 2004년   | 2005년   | 2006년 | 2007년 |       |       |       |       |       |       |       |      |
|--------------|---------|---------|-------|-------|-------|-------|-------|-------|-------|-------|-------|------|
|              | 연평균     | 연평균     | 연평균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 원/달러 환율      | 1,144.7 | 1,024.3 | 955.5 | 943.3 | 931.5 | 927.9 | 928.3 | 918.9 | 933.8 | 932.4 | 915.7 | 917  |
| (전년평균 대비, %) | -4.0    | -10.5   | -6.7  | 1.9   | 0.6   | 0.2   | 0.3   | -0.7  | 0.9   | 0.7   | -1.1  | -0.9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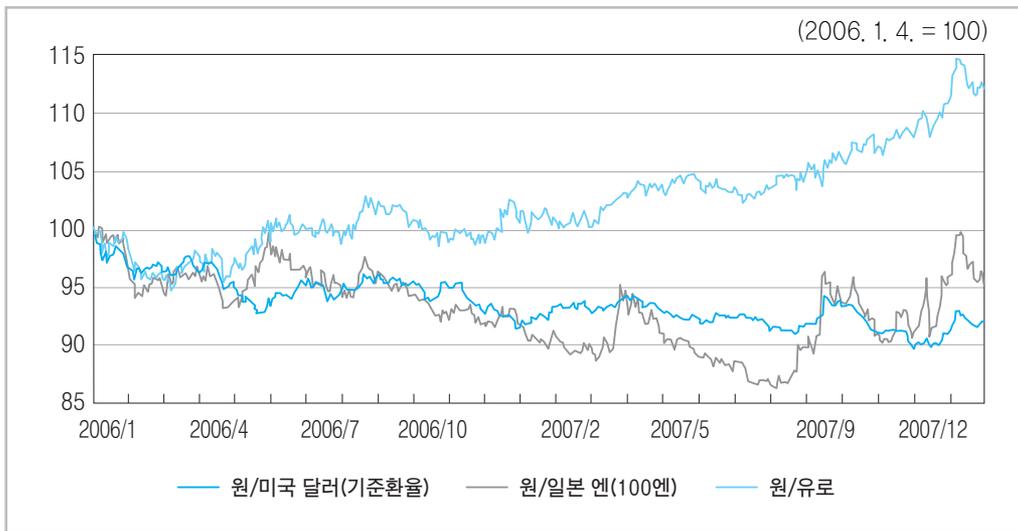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 11월 들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확대 등으로 상승기조를 보이던 원/엔 환율은 콜금리 동결 및 경기회복의 부진 등으로 12월 들어 하락세로 반전
- 10월 중 원/엔 환율은 일본경제와 신용시장의 불확실성 등으로 790원대에서 등락을 보임.
- 일본경제가 3/4분기 성장률의 하향수정(1.5%) 등 예상보다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미국경제의 둔화로 인한 수출시장의 위축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BOJ는 11월 14일 기준금리를 0.5%로 동결함.
  - BOJ 총재 후쿠이는 “미 경제둔화가 일본경제에 미칠 영향이 예상보다 클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언급(11월 14일)한 바 있으나 과도하게 낮은 금리로 인한 자원분배의 왜곡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기도 함(12월 4일).
  - 시장상황에 따라 점진적인 금리인상을 주장하던 BOJ 부총재 무토 또한 미국경제의 침체와 신용경색 등으로 금리인상 시기를 결정하기 어렵다고 발언함(11월 19일).
- 원/유로 환율은 유럽의 경제 회복세 지속과 ECB의 금리인상 가능성 등으로 상승기조 유지
  - ECB는 11~12월 중 두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4%로 동결하기로 결정함.
  - 동결 결정은 최근 신용경색과 유로경제 둔화 가능성 증대에도 불구하고 유가 등 원자재 가격의 급등으로 인한 물가상승과 인플레이 기대심리의 억제에 더 큰 비중을 둔 결과
  - ECB 총재 트리셰는 12월 10일 인플레이율 억제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발언함.

- 또한 내년 유로지역 물가상승률이 목표치를 상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향후 ECB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

〈그림 1-12〉 주요통화 대비 원화환율 추이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 (2) 자본 유출입 현황

- 9~10월 중 자본수지는 은행의 해외차입 상환과 외국인의 직접투자 회수 등이 우세를 보 이면서 총 54.7억 달러의 순유출을 시현
  - 9월 중 소폭 감소를 보이던 직접투자수지 순유출은 10월 들어 내국인의 해외투자 와 외국인의 국내직접투자 회수의 급증으로 44.4억 달러의 순유출을 기록
  - 순유출을 보여 오던 증권투자수지는 9~10월 중 순유입으로 반전
    - 채권을 중심으로 한 외국인 증권투자가 내국인의 해외증권투자를 압도하면서 9 월 중 증권투자수지는 37.2억 달러의 순유입을 기록

- 10월 중에도 외국인의 국내채권 투자가 60.6억 달러를 기록하는 등 외국인에 의한 자금유입이 전달에 비해 상승했으나 내국인의 해외증권투자가 6배 이상 급등하면서 증권투자수지는 1.5억 달러의 순유입을 기록
- 지속적인 순유입을 보이던 기타투자수지는 9월 중 은행들이 해외단기차입을 대량 상환하면서 잠시 순유출로 돌아섰다가 10월 중 다시 순유입으로 전환
  - 9월 중 해외단기차입이 69.8억 달러의 순유출을 보이고, 지속적인 순유입을 보이던 외국인기타투자가 46.4억 달러의 순유출을 보이면서, 기타투자수지는 60.8억 달러의 순유출을 시현
  - 그러나 은행의 해외단기차입 급증 등으로 10월 중 기타투자수지는 25.4억 달러의 순유입을 보임.

〈표 I -24〉 자본 유출입 추이<sup>1)</sup>

(단위: 억 달러)

|                     | 2004년 | 2005년  | 2006년  | 2007년  |        |       |        |       |       |
|---------------------|-------|--------|--------|--------|--------|-------|--------|-------|-------|
|                     | 연간    | 연간     | 연간     | 1/4    | 2/4    | 7월    | 8월     | 9월    | 10월   |
| 자본수지                | 76.0  | 47.6   | 186.2  | 53.1   | 64.4   | 5.37  | -3.04  | -35.6 | -19.1 |
| 직접투자수지              | 45.9  | 20.1   | -34.8  | -9.6   | -28.7  | -0.03 | -13.7  | -10.7 | -44.4 |
| (내국인해외투자)           | -46.6 | -43.0  | -71.3  | -20.7  | -29.4  | -11.5 | -7.3   | -5.8  | -30.8 |
| (외국인국내투자)           | 92.5  | 63.1   | 36.5   | 11.1   | 0.75   | 11.5  | -6.4   | -4.9  | -13.6 |
| 증권투자수지              | 86.2  | -17.3  | -225.4 | -10.5  | -0.27  | -69.3 | -61.9  | 37.2  | 1.5   |
| 내국인증권투자             | -74.0 | -106.8 | -225.8 | -151.3 | -119.6 | -40.4 | -3.7   | -10.5 | -65.8 |
| (주 식)               | -36.2 | -36.9  | -152.0 | -132.3 | -121.7 | -57.7 | -12.7  | -26.2 | -82.8 |
| (채 권)               | -37.7 | -70.0  | -73.8  | -19    | 2.05   | 17.4  | 9.1    | 15.7  | 17.1  |
| 외국인증권투자             | 160.1 | 90.0   | 0.33   | 46.4   | 119.4  | -28.9 | -58.3  | 47.8  | 67.3  |
| (주 식)               | 94.7  | 32.8   | -84.2  | -4.3   | 6.9    | -50.3 | -105.1 | -24   | 6.7   |
| (채 권)               | 65.5  | 56.6   | 84.5   | 50.7   | 112.4  | 21.4  | 46.9   | 71.8  | 60.6  |
| 기타투자수지              | -38.6 | 68.1   | 476.8  | 175.8  | 100.2  | 76.9  | 71.7   | -60.8 | 25.4  |
| 내국인기타투자             | -81.4 | -26.6  | -87.6  | -10.5  | -38.4  | -18.1 | -28.3  | -14.4 | -66   |
| (대 출)               | -23.9 | 2.5    | -9.4   | -5.4   | -12.5  | -7.1  | -22.9  | -8.6  | -36.6 |
| 외국인기타투자             | 42.8  | 94.7   | 564.4  | 186.3  | 138.6  | 95.1  | 99.8   | -46.4 | 91.3  |
| (차 입)               | -9.4  | 10.2   | 433.6  | 146.7  | 94.2   | 59.9  | 78.5   | -69.8 | 88.2  |
| 자본이전 및<br>비금융자산취득수지 | -17.6 | -23.4  | -30.3  | -8.1   | -6.9   | -2.3  | -2.1   | -1.4  | -1.7  |
| 자본이전수지              | -17.5 | -23.4  | -29.7  | -7.3   | -6.8   | -2.3  | -2.1   | -1.4  | -1.5  |
| 비생산·비금융자산<br>순취득    | 0.03  | -0.005 | -0.7   | -0.885 | -0.017 | 0.013 | 0.03   | 0.05  | -0.2  |

주: 1) 순유출입액 기준으로 (+)는 순유입, (-)는 순유출, 2) 잠정치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 6. 해외경제

### (1) 주요국 경제

#### ■ 미국경제: 경제성장세 둔화

- 3/4분기 실질GDP는 1%포인트 상향조정 되었지만 10월 들어 산업생산이 감소하고 소비자신뢰지수가 100 이하로 떨어지는 등 경기둔화의 가능성이 확대
  - 3/4분기 성장률이 종전의 3.9%에서 4.9%로 상향조정됨.
  - 10월 산업생산은 자동차와 가전제품 생산이 부진을 보이면서 전월 대비 0.5% 감소
  - 10월 중 비농업부문 고용이 서비스산업 고용의 증가에 힘입어 전월보다 16.6만 명 늘었으나 제조업 고용의 감소로 실업률은 전월과 같이 4.7%를 기록
  
- 3/4분기까지 안정세를 보이던 소비자 물가는 10월 들어 유가 및 원자재 가격의 급등으로 인해 3.5%를 기록
  - 반면 10월 생산자물가는 예상보다 낮은 0.1%의 상승을 기록
  - 미 연준 버냉키 의장은 미국경제가 성장둔화와 인플레이 압력에 동시에 직면하고 있다고 발언(11월 9일)
  
- 한편 미국의 3/4분기 경상적자는 1,785억 달러로 2005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
  - 이는 달러약세에 따른 무역수지적자의 감소와 해외자산의 소득이 증가한 데 기인함.
  - 10월 들어 무역수지적자는 수출시장의 호황에도 불구하고 유가상승에 따른 수입액의 증가로 전월에 비해 1.2% 확대
  
- 미국경제 둔화의 근본원인인 서브프라임 관련 금융시장 위기 현상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음.
  - FRB 이사 Kroszner는 주택시장의 침체가 내년까지 이어지고 주택가격도 상당기간 침체될 것이라고 전망(11월 6일)
  -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한 자산가치의 손실이 최대 4천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
  - 주택시장의 불안과 높은 수준의 주택재고 등으로 미국의 11월 주택시장지수는 19

- 를 기록하면서 1985년 이래 최저수준을 지속
- S&P/Case-Shiller 3분기 주택가격지수는 전년동기 대비 4.5% 하락하면서 20년 내 최대의 하락폭을 보임.
- 미국 정부는 금리동결 및 대출한도의 증가, 국제공조하에 단기자본시장 유동성 공급 등 여러 대응방안을 내놓고 있으나 그 효과는 미지수임.
- 연방 감독당국 및 대출업체들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금리 동결기한을 5년으로 결정
  - 미국 의회는 연방주택공사의 대출보증 상한선을 점보 모기지 기준액인 41만 7000달러로 높이는 연방주택공사 현대화 법안을 승인(12월 17일)
  - 이러한 주택시장 지원방안에 대해 전 미 연준 의장 그린스펀은 주택차압 위기에 처한 주택소유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구제금융(bailout) 제공 방안을 긍정적으로 평가
  - 그러나 리만브라더스가 내년 모기지 관련 부도건수가 올해 30만 건에서 1백만 건으로 급증할 것을 예상하는 등 주택경기 침체는 내년까지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임.
  - 또한 미 연준은 신용경색을 완화하기 위해 통화스왑과 단기자금 대출시스템의 도입 등을 통해 단기자본시장의 유동성 강화에 나서고 있음.
  - 유로지역 단기자금의 기준금리인 3개월 만기 유리보 금리가 4.95% 수준으로 여전히 7년 내 최고치에 근접하는 등 시장의 반응은 다소 미온적인 상태임.

〈표 1-25〉 미국의 경제지표

(단위: 전기대비, %)

|                       | 2005년  | 2006년  |        |        |        | 2007년  |        |        |        |      |
|-----------------------|--------|--------|--------|--------|--------|--------|--------|--------|--------|------|
|                       | 연간     | 1/4    | 2/4    | 3/4    | 4/4    | 연간     | 1/4    | 2/4    | 3/4    | 10월  |
| 실질GDP <sup>1)</sup>   | 3.2    | 5.6    | 2.6    | 2.0    | 2.5    | 3.3    | 0.6    | 4.0    | 4.9    | -    |
| 산업생산 <sup>2)</sup>    | 3.2    | 5.0    | 4.2    | 5.1    | 3.5    | 4.0    | 0      | 0.3    | 0.3    | -0.5 |
| 소비자물가                 | 3.4    | 0.6    | 1.2    | 3.3    | 1.9    | 3.2    | 2.4    | 2.7    | 2.4    | 3.5  |
| 실업률(%)                | 5.1    | 4.7    | 4.6    | 4.7    | 4.5    | 4.6    | 4.5    | 4.5    | 4.7    | 4.7  |
| 소비자신뢰지수 <sup>3)</sup> | 100.3  | 105.6  | 106.6  | 103.9  | 106.8  | 105.9  | 110    | 106.5  | 105.8  | 95.2 |
| 무역수지(억 달러)            | -7,828 | -2,079 | -2,106 | -2,186 | -1,980 | -8,360 | -2,003 | -1,944 | -2,063 | -578 |

주: 1) 전기비연율 2) 분기수치는 전기비 연율 3) Conference Board(1985=100)

자료: 한국은행, 미 연준(Federal Reserve Bulletin)

■ 일본: 주춤한 회복세

- 3/4분기 실질GDP 성장률은 전년동기 대비 1.5%로 애초 전망치 2.6%를 크게 하회함.
  - 이는 미국의 수요감소와 건축물의 환경등급제 도입 등의 건축규제 강화 등에 기인함.
  - 일부에서는 고유가와 원자재 가격의 급등으로 기업이익이 감소하고 설비투자가 위축되면서 일본경제의 회복세가 위협받고 있다고 분석
  
- 상대적으로 호조를 보이는 수출시장과는 달리 내수세의 회복이 불투명해지면서 일본경제의 회복세 기조가 흔들리고 있음.
  - 고유가에 따른 개인소비와 기업이익의 부진 등으로 경기회복 기조가 약화되고 있음.
  - 중소기업 도산의 증가 등으로 11월 중 기업도산건수가 전월대비 20% 증가
  - 10월 서비스업지수가 전월에 비해 1.1% 증가했으나 이는 컴퓨터업계의 수요증가와 도요타 신차출시에 따른 자동차 판매량의 증가 등 일시적 반등의 성격을 띠고 있음.
  
- 10월 중 실업률은 4.0%로 전기에 비해 증가했으며, 임금증가도 부진한 상황이어서 내수침체에 더욱 큰 요인으로 작용
  
- 10월 중 수출은 전기에 이어 호조세를 지속
  - 대중국 및 대유로지역 수출이 증가세를 보이면서 10월 민간기계수주도 3개월 만에 첫 증가세를 보임.
  - 이에 따라 10월 중 경상수지는 전년동월 대비 45.7% 증가한 2조2,291억 엔의 흑자를 기록
  - 10월 중 무역수지는 자동차 및 부품수출의 증가에 힘입어 1조1,584억 엔을 기록

〈표 I -26〉 일본의 경제지표

(단위: 전년동기 대비, %)

|                     | 2005년 | 2006년 |      |      |      | 2007년 |      |      |      |
|---------------------|-------|-------|------|------|------|-------|------|------|------|
|                     | 연간    | 2/4   | 3/4  | 4/4  | 연간   | 1/4   | 2/4  | 3/4  | 10월  |
| 실질GDP <sup>1)</sup> | 1.9   | 1.3   | 0.5  | 5.5  | 2.2  | 2.8   | 1.6  | 1.9  | -    |
| 광공업생산               | 1.1   | 4.7   | 5.6  | 5.9  | 4.8  | 3.2   | 2.4  | 2.8  | 4.7  |
| 소비자물가               | -0.3  | 0.2   | 0.6  | 0.3  | 0.3  | -0.1  | -0.1 | -0.1 | 0.3  |
| 실업률(%)              | 4.4   | 4.1   | 4.1  | 4.0  | 4.1  | 4.0   | 3.8  | 3.8  | 4.0  |
| 수출                  | 7.3   | 14.7  | 15.7 | 11.2 | 14.6 | 10.3  | 13.2 | 10.9 | 13.9 |

주: 1) 전기비연율

자료: 한국은행, 일본은행(금융경제통계월보)

#### ■ EU경제: 회복세 둔화

- 3/4분기 성장률(0.7%)은 전기(0.3%)에 비해 소폭 개선됨.
  - 이는 유로화 강세와 신용시장 경색에도 불구하고 대신흥시장국 수출의 호조세의 지속에 따른 설비투자의 증가에 기인함.
- 반면 최근 더욱 확대된 물가상승 압력은 유로경제의 회복에 위협요인으로 작용
  - 10월 중 유로지역의 물가상승률은 2.6%를 기록하면서 ECB의 인플레이 억제목표치인 2%를 상회함.
  - 이와 더불어 소매판매지수는 11월에 전월(48)보다 하락한 45.9를 기록했고, 서비스업/제조업 지수도 2005년 8월 이후 최저치인 53.1을 기록함.
  - 유로화 강세와 더불어 식품가격과 유가가 급등하고 대출비용이 상승함에 따라 유로지역 경기둔화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음.

〈표 1 -27〉 EU의 주요 경제지표

(단위: 전기대비, %)

|                      | 2005년 | 2006년 |       |       |       | 2007년 |     |       |       |     |
|----------------------|-------|-------|-------|-------|-------|-------|-----|-------|-------|-----|
|                      | 연간    | 1/4   | 2/4   | 3/4   | 4/4   | 연간    | 1/4 | 2/4   | 3/4   | 10월 |
| 실질GDP                | 1.4   | 0.8   | 0.9   | 0.6   | 0.9   | 2.8   | 0.7 | 0.3   | 0.7   | -   |
| 산업생산                 | 1.3   | 0.3   | 0.5   | 0.1   | 0.5   | 4.0   | 0.1 | -0.1  | 0.4   | -   |
| 소비자물가 <sup>1)</sup>  | 2.2   | 2.3   | 2.5   | 2.1   | 1.8   | 2.2   | 1.8 | 1.9   | 1.9   | 2.6 |
| 실업률(%)               | 8.6   | 8.1   | 7.9   | 7.8   | 7.6   | 7.8   | 7.2 | 7.0   | 7.2   | 7.2 |
| 경기체감지수 <sup>2)</sup> | 98.4  | 103.0 | 107.2 | 108.6 | 110.3 | 107.3 | 110 | 111.5 | 109.3 | 106 |
| 수출 <sup>1)</sup>     | 7.4   | 16.5  | 9.5   | 7.8   | 11.6  | 11.1  | 9.5 | 8.9   | 9.3   | -   |

주: 1) 전년동기 대비 2) 100 기준

자료: European Central Bank(ECB) Monthly Bulletin, Eurostat

■ 중국경제: 고성장세 지속, 뚜렷한 긴축정책 기조

- 중국의 고성장세 지속으로 물가상승 압력이 더욱 증대됨.
  - 에너지 과소비산업 및 환경오염산업 억제노력 등에 따라 10월 산업생산이 예상보다 낮은 17.9%(전년동월 대비)의 증가율을 보임.
  - 고정자산투자와 수출은 호조세를 유지
  - 총통화는 중국당국의 긴축정책에도 불구하고 신규대출의 확대 등으로 소폭 증가 추세를 보임.
  - 이와 함께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6.5%를 기록함.
  - 11월 무역수지 흑자는 전월보다 축소된 262억8,000만 달러를 기록
- 물가상승이 심각해지면서 더욱 강력한 긴축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10월 중 소비자물가는 식료품가격의 상승 등에 기인하여 6.5% 상승
  - 특히 돼지고기와 채소의 가격이 각각 55%, 30% 상승하는 등, 음식가격의 상승이 임금인상 압력을 심화하고 안정적 경제운용에도 장애요인으로 작용
  - 이와 관련해 후진타오 국가주석은 “내년 최우선 과제는 인플레이 등 경기과열을 억제하고 건전하고 높은 성장을 지속하는 것”이라고 언급
  - 최근 들어 중국의 물가는 더욱 급등하여 11월 중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 대비 6.9% 상승

- 중국 통화당국은 기준율과 금리를 인상하고 대출규제를 강화하는 등 더욱 강력한 추가적 긴축정책을 발표했으나 그 효과는 아직 불분명한 상태

〈표 I -28〉 중국의 주요 경제지표 추이

(단위: 전년동기 대비, %)

|                      | 2005년 | 2006년 |      |      |      | 2007년 |      |      |      |      |
|----------------------|-------|-------|------|------|------|-------|------|------|------|------|
|                      | 연간    | 1/4   | 2/4  | 3/4  | 4/4  | 연간    | 1/4  | 2/4  | 3/4  | 10월  |
| 실질GDP                | 9.9   | 10.3  | 11.3 | 10.6 | 10.4 | 10.7  | 11.1 | 11.9 | 11.5 | -    |
| 산업생산                 | 16.4  | 19.0  | 18.0 | 16.2 | 14.8 | 16.6  | 18.3 | 18.3 | 18.1 | 17.9 |
| 소비자물가                | 1.8   | 1.2   | 1.4  | 1.3  | 2.0  | 1.5   | 2.7  | 3.6  | 6.1  | 6.5  |
| M2                   | 17.6  | 18.9  | 18.5 | 17.7 | 16.9 | 16.9  | 17.3 | 17.0 | 18.4 | 18.5 |
| 고정자산투자 <sup>1)</sup> | 27.2  | 29.8  | 31.3 | 28.2 | 24.5 | 24.5  | 25.3 | 26.0 | 26.6 | 26.9 |
| 무역수지(억 달러)           | 1,019 | 232   | 380  | 487  | 678  | 1,775 | 464  | 663  | 732  | 271  |

주: 1) 누계기준

자료: 중국국가통계국(통계공보)

## (2) 원유 및 국제원자재

### ■ 2007년 들어 원자재가격 상승기조

- 10월 중 지속적인 중동정세 불안과 미국시장의 재고 감소 등으로 사상최고치를 경신하던 유가는 11월 말 미국경기의 둔화 가능성 증대에 따른 수요감소 전망 등으로 소폭 하락
  - 10~11월 중 유가는 달러화 약세에 따른 투자수요 증대와 수급의 불균형 등으로 상승기조를 유지
  - 카타르 에너지 장관은 12월 5일 OPEC 장관회담까지 생산량 변동에 대해 언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함.
  - OPEC은 수급불균형에 따른 증산요구를 거부하며 유가급등은 공급보다 정제능력 부족과 달러약세와 같은 수요측면에 기인한다고 주장
  - CRB선물지수는 곡물가격을 중심으로 10~11월 중 상승기조에 있으나, 11월 중 유가가 상대적으로 안정되면서 전월에 비해 감소

- 금선물지수는 달러화 약세와 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투자자들의 안전자산 선호에 힘입어 10월 중 급등했으나, 단기차익 실현을 위한 매물의 증가로 11월 중 소폭의 하락세를 보임.

〈표 1-29〉 유가 및 CRB지수(기말기준)

(단위: 달러/배럴, 1967년=100)

|                       | 2005년  | 2006년  | 2007년  |        |       |        |        |        |        |
|-----------------------|--------|--------|--------|--------|-------|--------|--------|--------|--------|
|                       | 12월    | 12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 유가현물(Dubai)           | 53.16  | 56.48  | 63.48  | 66.31  | 69.55 | 67.92  | 73.32  | 81.24  | 83.90  |
| CRB선물지수 <sup>1)</sup> | 331.83 | 307.26 | 311.46 | 315.74 | 324.1 | 308.76 | 333.67 | 351.01 | 339.84 |
| 금선물                   | 517    | 636.7  | 660.50 | 649.65 | 664.3 | 673.40 | 743.60 | 796.59 | 783.75 |

주: 1) CRB선물지수는 CRB(Commodity Research Bureau)사가 곡물, 원유, 산업용원자재, 귀금속 등의 주요 21개 품목의 가격에 동일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지수화한 것으로 1967년=100을 기준으로 함.

자료: 한국석유공사, CRB

## 제Ⅱ장

# 국내경제전망

1. 대내외 여건
2. 경제전망



## 1. 대내외 여건

### (1) 대외여건

- 2007년 세계경제는 유로지역과 일본의 회복세 및 신흥국들의 고성장에 힘입어 5%대의 성장세를 유지할 전망이나, 국제금융시장 불안의 심화 등의 영향으로 2008년에는 4%대의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 미국경제, 뚜렷해진 둔화 징후
  - 올해 3/4분기 실질GDP 성장률이 1%포인트 상향조정 되었으나, 주택시장 침체와 이에 따른 금융시장의 불안 등으로 경기둔화의 우려가 커지고 있음.
  - 달러약세에 따른 수출 호전과 재정적자의 소폭 개선이 있으나 2008년 미국경제 성장률은 올해보다 다소 부진할 것으로 전망됨.
  - 그간 안정세를 보이던 물가도 유가 및 원자재 가격의 급등으로 상승기조를 보이며 인플레이 압력이 증가하고 있음.
- 중국경제, 세계 경기 둔화와 위안화 절상으로 2008년 성장률은 올해보다 부진할 전망이다.
  - 2007년 중국경제는 지준율 인상 등 경기 진정책에도 불구하고 고성장세를 지속할 전망이다.
  - 이와 더불어 유동성 과잉과 식품가격을 중심으로 한 물가급등으로 중국정부의 긴축정책 기조가 더욱 강화할 전망
  -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 위원들로 구성된 중국 경제공작회의는 내년 통화정책 기조를 1997년 이후 처음으로 기존의 '신중'에서 '긴축'으로 변경(12월 7일)
  - 지준율 인상 및 은행간 대출규제, 해외투자 활성화 등의 유동성 완화정책으로 위안화 절상과 더불어 향후 경기과열이 다소 진정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됨.
  - 2008년에는 주요 수출대상국인 미국과 유럽의 경기둔화가 위안화 절상에 따른 수출감소 효과와 겹쳐져 중국의 수출증가세가 올해보다 큰 폭 부진할 것으로 전망됨.
  - 대내적으로도 북경 올림픽 이후 중국 당국의 더욱 강력한 긴축정책이 예상됨.

- 일본경제, 경기회복세 완만한 둔화
  - 유가급등과 금융불안, 건설규제 등으로 소비지출과 기업이익이 감소하면서 내수의 회복이 불확실해지고 있음.
  - 2008년에는 올해 경제회복의 중추역할을 하던 수출시장의 부진에 따라 올해 보였던 회복세가 주춤할 전망이다.
  
- 유로지역경제, 경기회복세 둔화
  - 2007년에는 수출과 투자를 중심으로 견고한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내수회복세도 본궤도에 오름.
  - 그러나 2008년 세계경제 둔화 등으로 수출시장이 위축되고 인플레이 압력이 증대됨에 따라 내년 성장률은 올해보다 소폭 낮아질 전망
  - 더불어 지난 2년간 급증한 주택가격 등으로 인해 영국 등 유럽 일부지역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함.

〈표 II-1〉 주요국의 경제성장 전망

(단위: %)

|       | 2006년 | 2007년 |                    | 2008년 |                    |                    |
|-------|-------|-------|--------------------|-------|--------------------|--------------------|
|       |       | IMF   | OECD <sup>2)</sup> | IMF   | OECD <sup>2)</sup> | 투자은행 <sup>3)</sup> |
| 세계성장률 | 5.5   | 5.2   | 2.7                | 4.8   | 2.3                | -                  |
| 미국    | 3.3   | 1.9   | 2.2                | 1.9   | 2.0                | 2.1                |
| 일본    | 2.2   | 2.0   | 1.9                | 1.7   | 1.6                | 1.6                |
| 유로    | 2.8   | 2.5   | 2.6                | 2.1   | 1.9                | 1.9                |
| 중국    | 11.1  | 11.5  | 11.4               | 10.0  | 10.7               | 10.4               |

주: 1) 2006은 IMF통계임.

2) OECD 전체에 국한된 성장률 전망 통계임.

3) ABN Amro, Bank of America, Barclays capital, Citigroup, Credit Suisse, Deutsche Bank, Goldman Sachs, JP Morgan, Lehman Brothers, Merrill Lynch, Morgan Stanley, UBS Warburg, BNP Paribas의 9월 말 전망치를 평균한 수치임.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October 2007.

OECD, OECD Economic Outlook, December 2007.

■국제유가: 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달러약세와 수급 불균형 등의 유가상승 요인들이 심화됨에 따라 국제유가는 올 하반기에는 70달러(두바이유 기준), 2008년에는 80달러 내외에서 등락을 보일 전망

- 신흥국들의 성장세 지속 및 달러약세에 따른 가격 상승 요인은 내년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 동시에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도 높아져 투자 및 투기수요 증대를 유발하고 있음.
- 반면 공급은 2008년에도 원활치 못할 것으로 보임.
  - 지정학적 위험에 따른 공급불안 전망
  - 유가 급등에도 불구하고 OPEC은 원유증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선진국 원유재고 감소와 수급차질 우려 증가
  - 이란 핵문제 및 이라크 정정불안 등 중동지역의 불안 지속
- 이와 같은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정 및 수급의 불균형은 최소한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
  - 내년 6월 이후 국제금융시장은 안정을 되찾을 것으로 보이나, 이후 계절적 요인 등으로 유가는 2008년 하반기까지 지속적인 상승추세를 유지할 전망
- 따라서, 국제유가는 올 하반기 70달러(두바이유 기준), 2008년 80달러 수준에서 등락을 거듭할 것으로 전망됨.

■국제금융시장, 신용경색 및 달러약세 등으로 불안정성 증대

- 금리인상 기조를 보이던 각국 중앙은행들은 최근의 금융시장 불안으로 정책금리를 동결하거나 인하함.
- 미 연준은 지난 10~11월간 두 차례에 걸쳐 연방기금금리를 4.75%에서 4.25%로 0.5%포인트 인하했으나, 12월 FOMC 성명에서는 향후 추가적 금리인하에 대한 시사가 없음.
  - 경기침체와 함께 물가급등이 미 연준에 이중부담으로 작용

-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미 연준이 경기침체를 피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기준금리를 3%대로 인하할 것이라고 전망함.
- 일본은행은 11월 14일 콜금리를 0.5%에서 동결함.
  - 일본은행은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3/4분기에 콜금리 인상이 예상되었으나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으로 0.5%에서 동결함.
  - 신용경색이 해소됨에 따라 금리인상 압력이 되살아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까지 두 차례 정도의 콜금리 인상이 있을 것으로 보임.
  - 한편 엔화는 일본과 미국 및 유로지역의 금리차이로 2008년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 ECB는 12월 현재 정책금리를 4%로 동결했으나, 인플레이 압력이 가중됨에 따라 내년 상반기에 한 차례 금리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전망됨.
  - ECB는 애초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짐에 따라 금리인상을 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국제금융시장의 신용경색으로 2007년 12월 정책금리를 4%에서 동결함.
  - 그러나 유가인상 등으로 내년 물가상승률이 억제목표치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인플레이 압력이 가중됨에 따라 향후 금리인상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
- 인민은행은 11월에 이어 12월에도 기준율을 1%포인트 오른 14.5%로 끌어올리면서 긴축정책 기조를 더욱 강화하고 있음.
  - 11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6.9%로 10월보다 0.4%포인트 상승
  - 인민은행은 올해 들어 10번의 기준율 인상을 단행했으며, 기준율을 1%포인트 인상한 것은 2003년 9월 이래 처음으로 강력한 긴축정책 도입을 시사
  - 시장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인민은행의 신뢰도를 높이고 인플레이 기대심리의 억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함.
  - 중국 위안화는 대외적 불균형에 따른 국제적인 위안화 절상압력과 물가상승으로 인한 긴축정책의 필요성 증대로 2008년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2) 대내여건****■ 새 정부의 경기활성화 추진기대로 소비심리 회복세 유지**

- 내년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전망으로 소비심리 회복세가 영향을 받겠으나 새 정부의 경제활성화 정책 적극적 추진에 대한 기대감으로 현 수준의 소비심리는 유지될 전망
  - 과거 김영삼 정부는 ‘신경제 100일 계획’을 추진했고, 김대중 정부는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카드활성화 등 내수진작책을 실시
  - 새 정부가 실용성을 강조하는 만큼 실질적인 경제활성화가 기대됨.

**■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험의 완화**

- 지난해 북핵실험(10/9) 이후 지속되어 온 북핵 관련 위험이 점차 완화되고 있음.
  - 올 2월 13일 6자회담에서 비핵화 초기단계 이행에 합의를 이루었으며 이후 국제 원자력기구(IAEA)의 북한 핵 시설의 폐쇄 등 검증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왔음.
  - 올 9월 27~30일 제6차 6자회담 2단계회의에서 회담 참가국들은 북한의 모든 핵 시설을 연내에 불능화하기로 합의
- 또한 10월 2~4일 중에 있었던 남북정상회담(10월 2~4일)도 평화정착과 경제협력의 확대를 통해 한반도 정세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 통화정책의 긴축기조 지속**

- 내년 경기회복세, 과잉 유동성과 물가불안에 대한 우려 증가 등 국내 펀더멘털 및 통화정책 여건상 통화정책이 완화될 가능성이 크지 않음.
  - 생산, 소비, 수출 등 주요 실물지표들의 호조가 지속되고 선행지수도 상승세를 보이는 등 국내 경기는 회복세가 지속될 전망
  - 더구나 통화 및 대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고 국제원자재가격도 크게 상승하면서 국내물가 상승압력이 높아지고 있음.
  - 실제로 한은은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3.3%로 전망했는데 이는 2004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며 물가안정목표의 상한선에 근접하는 수준, 한은은 물가안정을 이유로 콜금리 인상을 재개할 가능성

■ 재정정책은 확장적 기조

- 정부는 내년 지출 예산규모를 2007년(238.4조 원) 대비 7.4% 증가한 256조 원으로 책정
  - 내년 총지출 증가율은 올해의 5.8%보다 1.6%포인트 높은 것으로, 지난 2002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

## 2. 경제전망

### (1) 경제성장

#### ■ 2008년 실질GDP 5.1% 성장 전망

- 2007년 실질GDP는 하반기에 전년동기 대비 5.1% 증가하여 연간 4.8% 성장할 것으로 예상
  - 5.0%('06 연간) → 4.8%('07 연간): 4.5%(상반기), 5.1%(하반기)
  - 2006년 대비 건설 및 설비투자를 중심으로 내수부문이 소폭 개선되었으나 수출 증가세의 둔화 등의 영향으로 2007년 실질GDP는 4.8% 성장할 것으로 전망
- 2008년 실질GDP는 민간소비의 회복세와 설비투자 호조의 지속으로 연간 5.1% 성장할 것으로 전망
  - 5.0%('06 연간) → 4.8%('07 연간) → 5.1%('08 연간)
- 세계경제의 성장둔화로 수출증가세는 소폭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건설 및 설비투자와 민간소비 등 내수부문의 증가로 인해 2008년 실질GDP는 5.1% 성장할 것으로 전망
  - 2007년 세계개편(안) 등에 의해 민간소비 여력이 다소 개선되어 2008년 민간소비는 연간 4.8% 증가할 것으로 전망
  - 2008년 민간 주택건설부문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나 공공부문 건설투자의 주도로 전체 건설투자는 2.8% 증가할 것으로 전망
  - 2008년 설비투자는 내수회복에 따라 2007년의 회복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나 세계경제 성장둔화 등의 대외여건으로 인해 증가율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어 8.0% 증가할 것으로 전망
  - 2007년 9.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출은 미국경제의 성장 둔화와 함께 세계경제의 성장 둔화로 인해 2008년 총수출증가세는 8.4%로 둔화될 전망

■ 2008년 민간소비 4.8% 증가 전망

- 2007년 민간소비는 하반기에 전년동기 대비 4.7% 증가하여 연간 4.4% 성장할 것으로 예상
  - 4.2%('06 연간) → 4.4%('07 연간): 4.1%(상반기), 4.7%(하반기)
  - 올해 주식시장의 호황과 함께 2007년 2/4분기 실질GDP의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에도 불구하고, 미흡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가계부채 상환 및 부동산 관련 세금 부담의 증가 등으로 민간소비 여력 확충이 미흡
  
- 2008년 민간소비는 정부의 2007년 세제개편안 및 소비심리 개선 등에 의해 연간 4.8% 증가할 것으로 전망
  - 4.2%('06 연간) → 4.4%('07 연간) → 4.8%('08 연간)
  
- 정부의 2007년 세제개편안과 소비심리 개선으로 민간소비 증가가 예상되나 가계부채 문제로 인해 민간소비 증가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 소득세 과세표준구간 조정, 초·중·고 교육비 공제범위 확대, 출산·입양 소득 공제 신설 등으로 소비여력의 확충 기대
  - 성실 자영업자에 대한 의료비 및 교육비 공제를 허용하는 등의 영세·성실 자영업자 세부담 경감대책으로 소비여력의 확충 기대
  - 2006년 하반기부터 기준선 100을 하회하던 소비자기대지수는 올해 2/4분기 이후 개선되어 기준선을 상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주식시장 호황과 고용지표 개선 기대로 소비자심리 회복 지속 예상
  - 그러나 2010년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환부담과 최근 이자율 상승에 의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이자부담은 민간소비 증가에 제한요인으로 작용

〈표 II-2〉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환부담 추이<sup>1)</sup>(추정)

(단위: 조 원)

|                        | 2007년 | 2008년 | 2009년 | 2010년 |
|------------------------|-------|-------|-------|-------|
| 주택담보대출잔액               | 214.5 | 214.5 | 214.5 | 214.5 |
| 만기일시상환                 | 84.9  | 69.4  | 53.8  | 40.8  |
| 분할상환                   | 129.6 | 145.1 | 160.7 | 173.7 |
| 거치기간 만료 분할상환대출         | 19.5  | 21.8  | 48.6  | 15.9  |
| 원리금 상환부담 <sup>2)</sup> | 13.7  | 14.4  | 15.6  | 16.7  |
| 만기일시상환                 | 5.5   | 4.6   | 3.7   | 2.8   |
| 분할상환                   | 8.2   | 9.8   | 11.9  | 13.8  |

주: 1) 일시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대부분 만기도래 시 연장 또는 대환이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하여 차주의 현금흐름 부담액 산정 시 이자지급분만 포함.

2)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6.0%. 분할상환대출은 만기 20년의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조건으로 취급된 것으로 전제(2006년 원리금 상환부담은 2006년 말 현재 주택담보대출 잔액 및 거치기간 분포를 기준으로 추산)

자료: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 2007. 4.

#### ■ 2008년 건설투자 2.8% 증가 전망

- 2007년 건설투자는 하반기에 전년동기 대비 0.1% 증가하여 연간 1.6% 증가할 것으로 예상
  - 0.4%(’06 연간) → 1.6%(’07 연간): 3.5%(상반기), 0.1%(하반기)
  - 지난해 감소했던 건설투자는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회복기미를 보이고 있으나 공공부문 증가세 둔화 가능성과 지속되는 민간부문의 주택건설 부진으로 하반기 건설투자는 0.1% 증가에 그쳐 연간 1.6% 증가 전망
- 2008년 건설투자는 공공부문의 주도로 연간 2.8% 증가할 것으로 전망
  - 0.4%(’06 연간) → 1.6%(’07 연간) → 2.8%(’08 연간)
- 민간부문의 건설투자는 크게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나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및 기업도시의 착공과 평택 미군기지 이전 공사 등으로 공공부문이 주도할 것으로 전망

- 민간부문의 건설투자는 주택부문의 부진으로 개선되기 어려울 전망
- 내년 상반기 중 착공 예정인 혁신도시는 부산, 대구, 광주·전남, 울산, 강원, 충북, 전북, 경북, 경남, 제주 등
- 내년 상반기 중 착공 예정인 기업도시는 무안, 무주, 원주, 충주

■ 2008년 설비투자 8.0% 증가 전망

- 2007년 설비투자(무형고정자산 포함)는 하반기에 전년동기 대비 3.6% 증가하여 연간 7.0% 증가할 것으로 예상
  - 7.8%('06 연간) → 7.0%('07 연간): 10.5%(상반기), 3.6%(하반기)
  - 2007년 상반기 설비투자 증가를 주도했던 ATM 교체투자를 포함한 기계류의 증가세가 하반기에 둔화되면서 연간 7.0% 증가 전망
- 2008년 설비투자는 2007년의 회복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나 세계경제 둔화에 따른 수출 둔화로 인해 그 증가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어 연간 8.0% 증가 전망
  - 7.8%('06 연간) → 7.0%('07 연간) → 8.0%('08 연간)
- 내년 민간소비의 회복세와 2007년 3/4분기 이후 설비투자압력 증대에 의해 내년 설비투자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경제 성장둔화에 따른 수출 둔화로 제한적 설비투자 증가세 전망
  - 내년 민간소비 소폭 증가: 4.4%('07 연간) → 4.8%('08 연간)
  - 10월 제조업 생산 증가율이 제조업 생산능력 증가율을 크게 상회하며 설비투자 압력이 기준치 8%포인트를 크게 상회하는 12.8%포인트 수준으로 증대
  - 내년 한 자릿수 수출증가율 전망: 9.7%('07 연간) → 8.4%('08 연간)

〈표 II -3〉 설비투자조정 압력 추이

(단위: 전년동기 대비, %, %p)

|                    | 2006년 |      |      |     | 2007년 |     |     |      |
|--------------------|-------|------|------|-----|-------|-----|-----|------|
|                    | 1/4   | 2/4  | 3/4  | 4/4 | 1/4   | 2/4 | 3/4 | 10월  |
| 제조업 생산 증가율(A)      | 13.4  | 12.1 | 11.8 | 5.6 | 3.4   | 7.1 | 8.5 | 18.3 |
| 제조업 생산능력 증가율(B)    | 4.6   | 4.0  | 3.2  | 2.1 | 1.5   | 2.7 | 4.3 | 5.6  |
| 설비투자조정 압력(A-B)(%p) | 8.7   | 8.1  | 8.6  | 3.4 | 2.0   | 4.4 | 4.2 | 12.8 |

자료: 통계청

## (2) 대외거래

### ■ 2008년 수출증가율, 대외여건 악화로 소폭 둔화 전망

- 2008년 미국경기는 주택경기 하락, 서브프라임의 여파로 성장률이 2% 미만으로 둔화될 전망
  - 주택경기가 하락하는 가운데 모기지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미국 가계의 이자 부담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소비 및 경기 둔화
  - 미국의 경기둔화는 일본, EU지역, 중국 등의 대미수출이 감소를 통해 세계경제 성장세를 둔화
  - 우리의 대중국수출의 상당 부분<sup>2)</sup>이 미국 등 제3국 수출으로의 우회수출인 점을 감안할 때 중국수출의 둔화는 우리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
- 중국은 2008년에도 인플레이션, 경기과열, 자산가격 상승 등을 억제하기 위해서 긴축적인 금융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임.
  - 이로 인해 중국의 성장 속도가 낮아지면서 우리의 대중국 수출증가세도 둔화될 전망

2) 2005년 회계연도의 중국 현지법인(전체 13,224개 중 4.5%인 598개가 분석대상이며 투자잔액 기준으로는 57.8%)의 매입 중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약 140억 달러로 전체 우리나라 대중국수출의 약 23%를 차지. 중국 현지법인의 매출 중 36.3%는 제3국으로의 수출(한국수출입은행, 『2005 회계연도 중국 및 미국 해외직접투자 경영분석』, 2006. 12)

- 달러약세 및 국제 원자재가격 인상도 우리 수출에 부정적인 요인
  - 국제 원자재가격의 강세는 교역조건 악화뿐 아니라 인플레이 방어를 위한 각국의 금리인상을 통해 세계교역을 위축시키는 요인
  - 또한 위안화 절상 가속화로 중국의 수출이 둔화되면 우리의 대중국 부품 및 투자재의 수출 둔화가 불가피

■ 하지만 악화된 대외여건에도 불구하고, 수출다변화, 비가격경쟁력 제고 등에 힘입어 두 자릿수 수출증가율 유지 전망

- 1996년 17%였던 대미수출비중은 2006년에는 13%로 감소한 반면 대중수출비중은 9%에서 21%, 대EU수출비중은 12%에서 15%로 증가하는 등 수출지역이 다변화됨.
  - 대미수출비중이 낮아지고 대중수출비중은 높아진 점에서는 같으나 대 EU수출비중이 감소 내지 정체한 여타 아시아 지역의 국가들과는 다른 모습

〈표 II-4〉 중국, 미국, EU에 대한 아시아 각국의 수출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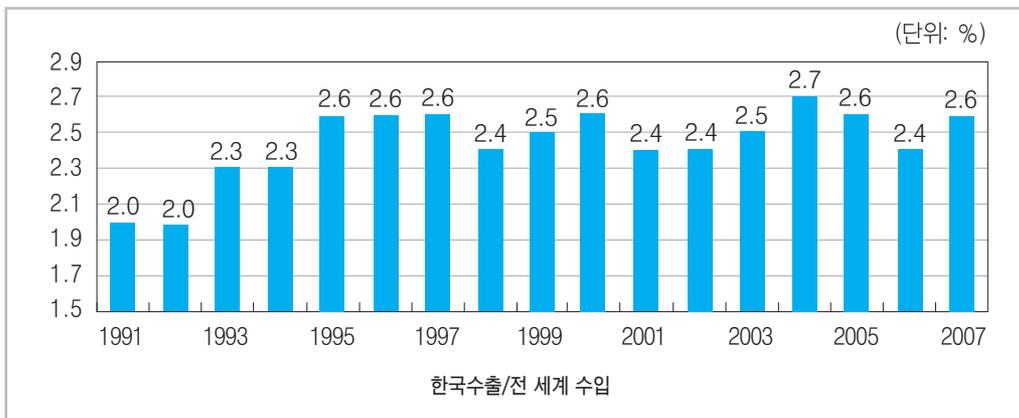
(단위: %)

|       | 1996년 |      |     | 2006년 |      |     |
|-------|-------|------|-----|-------|------|-----|
|       | 대중국   | 대 EU | 대미국 | 대중국   | 대 EU | 대미국 |
| 중국    | -     | 16   | 18  | -     | 19   | 21  |
| 홍콩    | 34    | 15   | 21  | 47    | 14   | 15  |
| 인도    | 2     | 26   | 20  | 7     | 22   | 17  |
| 인도네시아 | 4     | 17   | 14  | 8     | 12   | 11  |
| 한국    | 9     | 12   | 17  | 21    | 15   | 13  |
| 말레이시아 | 2     | 14   | 18  | 7     | 13   | 19  |
| 필리핀   | 2     | 19   | 34  | 10    | 19   | 18  |
| 싱가포르  | 3     | 13   | 18  | 10    | 11   | 10  |
| 대만    | 1     | 14   | 23  | 23    | 12   | 14  |
| 태국    | 3     | 17   | 18  | 9     | 14   | 15  |

자료: 국제금융센터, 『한국경제에 대한 해외시각』, 2007. 9. 10.

- 지속된 원화절상에도 불구하고 높은 수출증가율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우리 수출품의 비가격경쟁력이 개선된 데 기인
  - 수출시장 점유율은 수출품의 비가격경쟁력 등을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 우리 수출의 세계시장점유율은 환율하락이 지속된 2000년대에도 2.4~2.7% 수준을 유지

〈그림 II-1〉 주요국별 세계수출시장 점유율



자료: 한국무역협회, KOTIS DB

- 2008년에는 경상수지가 1998년 404억 달러 흑자로 전환한 이후 10년 만에 처음으로 적자(약 14억 달러)를 기록할 전망
- 우선 수입증가율이 수출증가율을 상회하면서 상품수지의 흑자폭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
  - 수입증가율은 내수회복세, 원화절상, 원자재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2007년 하반기에 이어 2008년에도 수출증가율을 상회할 전망
- 서비스수지는 국내 서비스부문의 경쟁력 부족, 원화절상 등으로 해외 서비스 수요 증가하면서 적자확대 추세를 지속할 전망
  - 법률, 회계, 광고 등의 분야는 경쟁력 열위에 있고 여행, 교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는 내국인들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증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국내 소비심리가 개선되고 원화가치가 상승하고 있는 데다 내년 베이징 올림픽으로 인해 해외여행 수요 확대 추세는 더욱 강화될 전망

### (3) 물가

■ 2008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국제 원자재 가격 강세, 내수회복, 중국발 인플레이션 등의 영향으로 2007년(2.6%)보다 높은 3.2%로 전망됨.

- 원유 등 국제 원자재가격은 세계경제가 급락하지 않는 한 강세 국면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됨.
  - 내년 세계경제 성장세는 선진국 경기 둔화를 중국, 인도 등 신흥공업국의 성장세가 일부 상쇄하면서 완만한 둔화에 그칠 전망
  - 곡물 등 국제 원자재가격도 수급불균형 문제<sup>3)</sup>에 달러약세, 인플레이션 기대심리에 따른 원자재 등 실물자산 투자 증가가 가세하면서 당분간 강세를 보일 전망
- 내수 경기회복세는 수요측면에서뿐 아니라 원가상승을 반영하는 데 용이한 환경<sup>4)</sup>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물가상승요인
  - 실제로 국제 밀가격 상승을 반영하여 제분업체는 지난 9월 밀가루 가격을 최고 15% 인상한 데 이어 12월에도 최고 34% 인상했음.
  - 이처럼 밀가루 가격이 급격히 오르면서 제과·제빵·라면 등 밀가루 관련 제품의 가격인상과 유가 상승을 반영하기 위한 전기, 가스 공공요금 인상도 불가피
- 중국발 인플레이션도 점차 국내에 파급될 것으로 보임.
  - 세계 공장으로 일컬어지는 중국의 물가상승은 결국 위안화 평가절상, 수출보조금 축소 등과 맞물려 전 세계 인플레이션으로 파급될 위험성

3) 신흥공업국의 경제발전, 곡물을 원료로 하는 바이오 연료 생산 증가 등으로 곡물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지구온난화 등에 따른 가뭄 및 홍수로 인해 작황은 부진

4) 경기상승기에는 원가상승분을 가격에 반영하기가 경기하락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용이

#### (4) 시장금리

##### ■ 2008년 시장금리는 평균 6.5%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 국내외 실물 경제의 견조한 성장세에 따른 자금수요의 증가와 2008년 상반기 동안은 글로벌 신용경색 등에 따른 자금공급 부족현상이 간헐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여 2008년 시장금리(회사채 수익률 기준)는 평균 6.5%로 전망됨.

##### ■ 2008년 국내외 경제의 양호한 성장에 따른 자금수요 증가

- 국내 경제는 수출의 견조한 증가세가 유지되는 한편 내수 회복세도 가시화될 전망이어서 2008년 경제성장률은 5.1%에 이를 것으로 전망
- 한편 해외 경제의 경우 미국 및 유로 지역의 성장률은 다소 둔화될 전망이지만 중국 등 개도국의 고성장이 지속되어 세계 경제의 성장을 견인할 전망
  - 미국의 경우 2008년 성장률이 둔화되어 1% 후반~2% 초반의 성장률이 예상되지만 세계경제는 4.8%(IMF 전망)의 견조한 성장세를 시현할 것으로 전망됨.

##### ■ 정책금리 인상 가능성과 자금조달 경쟁 격화

-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이 해소되지 않았고 본격적인 성장세가 가시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당분간 현 수준의 정책금리 유지할 것으로 전망
- 하지만 인플레이 압력이 지속된다면 금융시장 불안이 해소되는 시점을 계기로 2008년 상반기 이후 정책금리 인상 가능성 존재

##### ■ 채권시장의 수급여건 양호

- 수출증가세의 지속 및 내수경기의 회복세 등으로 기업 자금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2008년 회사채 발행은 호조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며 국채 발행도 최소한 올해 수준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됨.

- 국가채무 전망: 302.0조 원('07년) → 318.8조 원('08년) → 335.3조 원('09년)
- 한편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남북경협 사업을 위한 추가적 국제발행의 가능성도 존재

■ 금리하락 요인도 상존하고 있으나 그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

-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해결되지 않고 손실규모가 확대되어 미국발 글로벌 경기침체가 도래할 경우 금리는 하강 기조로 반전
  - 주식시장의 침체와 함께 안전자산 선호경향이 강화되면서 채권수익률 하락
- 하지만 미국의 경우 정책당국의 적극적인 시장개입 의지가 표명된 가운데 실물경기도 견조한 양상을 보이고 있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연착륙(soft-landing)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

## (5) 환율

■ 2008년 원/달러 환율은 2007년(약 930원)보다 소폭 낮은 910원대에서 등락할 전망

- 원/달러 환율은 국제금융시장이 안정을 되찾으면서 상반기의 하락추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12월 중 외국인 투자자들의 주식배당 역송금 등으로 상승기조로 돌아섬.
- 향후 원화 강세요인이 약세요인을 압도하면서 2008년 원/달러 환율은 910원대에서 등락할 것으로 전망됨.
  - 글로벌 달러 약세 현상 등으로 원/달러 환율은 하락세를 지속할 것
  - 또한 2008년에는 외국인의 국내주식 순매수 경향이 두드러질 가능성이 크고, 남북경협에 따른 국가신용등급의 상향조정 등이 원화강세의 추가적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 그러나 올해 원화강세의 요인이었던 해외차입의 증가와 수출기업의 달러선물 매도는 2008년 상반기까지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임.
  - 또한 미국경기의 둔화와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적자 등은 원화 하락세에 제한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 따라서 2008년 원/달러 환율은 910원대에서 등락할 것으로 전망됨.

〈표 II -5〉 2007~2008년 국내경제전망

(단위: 전년동기 대비, %, 억 달러)

|                   | 2006년  | 2007년  |        |        | 2008년  |        |        |
|-------------------|--------|--------|--------|--------|--------|--------|--------|
|                   | 연간     | 상반기    | 하반기    | 연간     | 상반기    | 하반기    | 연간     |
| GDP               | 5.0    | 4.5    | 5.1    | 4.8    | 5.3    | 5.0    | 5.1    |
| 민간소비              | 4.2    | 4.1    | 4.7    | 4.4    | 4.9    | 4.7    | 4.8    |
| 건설투자              | -0.4   | 3.5    | 0.1    | 1.6    | 1.8    | 3.7    | 2.8    |
| 설비+무형고정자산         | 7.8    | 10.5   | 3.6    | 7.0    | 6.3    | 9.7    | 8.0    |
| 수출(재화+서비스)        | 12.4   | 10.9   | 11.0   | 10.9   | 8.8    | 8.0    | 8.4    |
| 수입(재화+서비스)        | 11.3   | 12.0   | 10.0   | 11.0   | 9.0    | 9.3    | 9.2    |
| 소비자물가             | 2.2    | 2.3    | 2.8    | 2.6    | 3.4    | 3.0    | 3.2    |
| 생산자물가             | 2.3    | 2.2    | 3.0    | 2.6    | 3.9    | 3.1    | 3.5    |
| 경상수지(억 달러)        | 60.9   | -16.3  | 89.8   | 73.5   | -26.8  | 13.0   | -13.9  |
| 상품수지(억 달러)        | 292.1  | 130.1  | 185.4  | 315.5  | 123.1  | 156.6  | 279.6  |
| 수출(억 달러, BOP 기준)  | 3318.4 | 1793.6 | 1986.2 | 3779.9 | 1986.9 | 2175.0 | 4161.9 |
| 증가율%              | 14.8   | 13.6   | 14.2   | 13.9   | 10.8   | 9.5    | 10.1   |
| 수입(억 달러, BOP 기준)  | 3026.3 | 1663.6 | 1800.8 | 3464.4 | 1863.8 | 2018.5 | 3882.3 |
| 증가율%              | 18.4   | 14.5   | 14.5   | 14.5   | 12.0   | 12.1   | 12.1   |
| 서비스및 기타수지         | -231.2 | -146.4 | -95.6  | -242.0 | -149.9 | -143.6 | -293.5 |
| 환율(원/달러, 평균)      | 954.8  | 934.0  | 923.0  | 928.5  | 915.0  | 904.8  | 910.0  |
| 회사채수익률(3yrs, AA-) | 5.2    | 5.4    | 6.0    | 5.7    | 6.6    | 6.4    | 6.5    |
| 실업률(%)            | 3.5    | 3.4    | 3.1    | 3.2    | 3.3    | 3.0    | 3.2    |



# 제III장

## 이슈분석

### 2008년 우리 경제와 새 정부의 과제

1. 현 상황에 대한 인식 및 주요 현안 이슈
2. 금융시장 및 거시경제 이슈와 대응방안
3. 기타 현안관련 정책 주안점



## 1. 현 상황에 대한 인식 및 주요 현안 이슈

■ 새 정부가 맞게 될 2008년 거시경제 사정은 지난 정부들에 비해 비교적 양호할 전망

- 지난 두 정부는 출범 첫째 어려운 거시경제 여건에서 출발
  - 국민의 정부는 취임 첫째인 1998년 본격적으로 시작된 외환위기의 충격으로 7% 가까이 성장이 위축
  - 참여정부 역시 취임 첫째 2003년에 신용카드 버블 붕괴의 후유증으로 심각한 내수위축을 경험
- 2007년 들어 민간소비가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내년까지 지속되면 내수회복의 근간을 제공할 것임.
  - 따라서 금년 말과 내년 초 사이 기간에 이런 추세를 위협할 수 있는 문제 악화나 돌발 상황을 경계해야 함.

■ 본고는 잠재 불안요인과 신속한 대응을 요하는 이슈를 살피고 바람직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2007년 8월에 본격적으로 부상한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국제 및 국내 금융시장에 심각한 불안요인으로 작용
  - 12월 들어 국내 외환 및 자금시장이 불안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시중금리들이 가파르게 상승
  - 금리의 고공행진이 계속되면 주택 및 건설시장의 문제를 악화시켜 한국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키울 가능성을 무시하지 못함.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과제
- 수그러들지 않는 유가 및 원자재가 고공행진은 물가불안, 소비자 구매력 위축 등으로 경제활성화의 주요 걸림돌이 될 수 있음.

## 2. 금융시장 및 거시경제 이슈와 대응방안

### (1) 금융시장 불안과 한국판 서브프라임 사태 발생 가능성

■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 지속에 따른 국제금융시장 여건 악화는 국내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 2007년 8월 이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국제금융시장, 미국경제 전망에 심각한 불안요인으로 부상

- 2003년 이후 소득 증빙이 없는 저신용 주택수요자에게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 규모가 급증

- 2005년 이후 연체율 상승, 주택가격 하락, 유질처분(foreclosure) 주택수 증가 등 서브프라임 대출 부실화

  - ▶ 2007년 9월 기준 주택판매가격 전년동기비 4.9% 하락

- 모기지 금융회사와 주택저당담보부채권(MBS), 주택담보부증권(CDO) 등에 투자한 헤지펀드, 은행 등 금융기관의 손실로 확대

  - ▶ 전체 손실 추산액 약 2,500~5,000억 달러에 이르며 관련 손실로 인해 최근 메릴린치(84억 달러 상각), 씨티그룹(137억 달러 상각) 회장이 사임하는 등 금융시장 불안 지속

- 2008년까지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지속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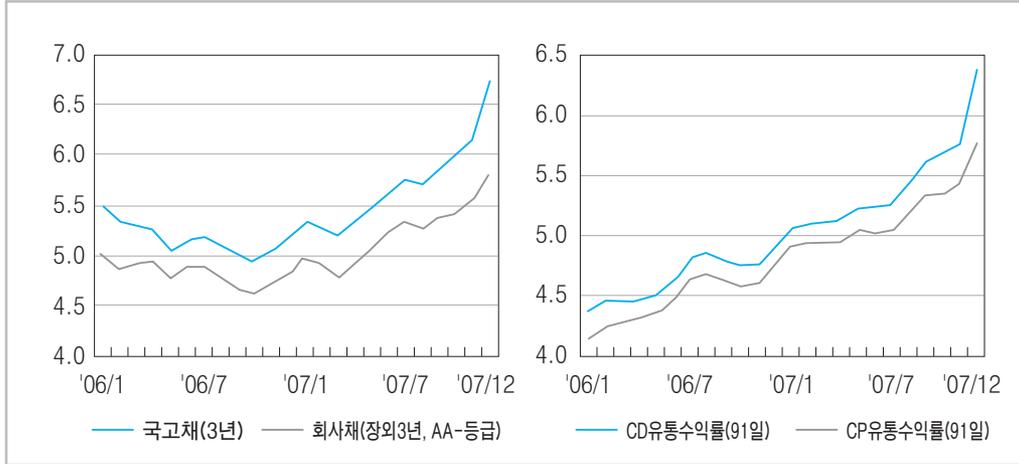
- 전체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 잔액 중 2004년 이후 대출분이 90% 이상

- 무디스 전망에 따르면 2008년까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악화

  - ▶ 연체자 수는 2006년 92만, 2007년 120만, 2008년 130만 명, 유질처분 건수도 동 기간 내 51만, 76만, 93만 채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 관련된 신용위축은 내년 미국경제 및 세계금융시장 주요 불안요인
  - 금융회사 유동성 악화 및 리스크 관리 강화로 기업대출감소, 각종 채권 발행여건 악화로 인한 자본비용 상승으로 투자위축 초래
  - 주택가격 및 주가 하락 등으로 미국경제 소비위축 조장 가능
- 국제금융시장 여건 악화에 따른 국내 금리 급등으로 주택금융발 금융경색이 악화되고 실물경제가 위축될 가능성 고조
- 자금시장 경색으로 시중 장단기 금리 급등. 이 추세 지속은 주택금융 출 및 관련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로 이어져 금융권 위기 촉발 가능
- 상반기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던 장기 금리는 글로벌 신용경색 악화로 급등세
    - ▶ 국고채 수익률: 4.92%('06년 12월 말)→5.43%(8월 말)→5.81%(12월 20일)
    - ▶ 회사채 수익률: 5.29%('06년 12월 말)→5.85%(8월 말)→6.72%(12월 20일)
  - 단기금리는 8월 콜금리 인상 이후 빠른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최근 은행권의 자금부족으로 CD발행이 급증함에 따라 단기금리도 급증
    - ▶ CD(91일) 수익률: 4.86%('06년 12월 말)→5.29%(8월 말)→5.78%(12월 20일)

〈그림 Ⅲ-1〉 장기(좌) 및 단기(우) 금리 추세



- 금리 급상승은 주택금융시장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큼.

- 우선 약 90%의 주택담보대출이 CD금리에 연동되어 있어 단기금리 상승은 바로 기존 대출자 및 신규 대출자들의 금리 부담상승으로 이어짐.
  -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중 전체의 94%가 변동금리대출이며 기준금리로는 CD 수익률이 86%, 금리변동주기는 3개월 이하가 85%

- 주택시장이 취약한 가운데 금리 급상승은 주택금융시장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큼.

- 증가세의 미분양 주택수, 상당한 한국형 ‘서브프라임’ 주택대출문제, 그리고 주택건설 관련 PF 잠재부실 문제 등 위험요인
- 먼저 한국형 ‘서브프라임’ 대출증가세를 살피면
  - ▶최근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경우도 전체의 약 12%(은행대출 9%, 비은행대출 25%)가 저신용 주택담보대출임.
  - ▶비록 아직 연체율은 높지 않지만 문제가 빠르게 악화될 가능성을 무시하지 못함.

- 다음으로 미분양 주택문제도 개선되기보다 악화 추세
    - ▶ 공식 통계에 따르면 10월 말 현재 미분양 주택은 10만 가구를 상회. 주택업자들이 미분양 가구를 절반으로 보고하는 관행 감안 시 실제 미분양 규모는 더 큰 것으로 보임.
    - ▶ 전체 미분양 중 악성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 수가 15.8천 건
    - ▶ 주택담보 대출 금리가 금년 들어 약 2%p가량 급등하여 향후 미분양 문제를 악화시킬 것으로 보임.
  
  - 주택경기 악화의 직접적으로 노출된 부동산 PF
    - ▶ 2007년 9월 말 현재 금융권 부동산 PF 대출 및 유동화 규모는 대출 62.3조 원, 유동화 자산 18.2조 원으로 총계 80.5조 원에 이룸.
    - ▶ 이런 대출이 상기한 문제들로 인하여 부실화된다면 금융권 전체의 구조적 위험도(systemic risk)를 크게 높여 금융시장 경색을 초래함.
    - ▶ 금융의 악화가 주택가격의 하락과 맞물려 나타나면 바로 역자산 효과 등의 경로로 실물경제의 위축으로 이어질 우려가 매우 큼.
  
  - 이미 몇몇 외국계 모기지 업체들이 한국시장에서 철수를 준비하거나 영업개시를 늦추는 사례가 있었음.
    - ▶ 코리아센트럴모기지(2006년 리만브라더스 설립), 페닌슐라캐피탈(메릴린치 대주주) 등이 철수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프라임 파이낸셜(스탠다드차타드 설립)은 영업개시 지연(중앙일보 2007. 12. 7)
- 주택·건설시장의 문제로 인해 금융시장이 심각한 경색을 겪는 것을 막을 대책을 마련해야
- 현재 나타나고 있는 징후를 종합하면 한국의 상황은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전개과정을 답습하는 듯, 문제가 확산되는 것을 막아야
- 정책금리를 현 수준에 유지한 가운데 시중금리 하향 안정화 유도
    - ▶ 최근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도 전체의 약 12%(은행대출 9%, 비은행대출 25%)가 저신용 주택담보대출임.

- ▶한은은 다양한 채권을 담보대상으로 인정하여 다양한 만기의 유동성을 공급하여 자금시장 경색을 풀어야
- 부실 PF에 대비해 관련 자산의 정리 절차 고려
  - ▶PF건별, 투자 주체별 옥석을 가려 부실이 상당히 심각한 곳 몇 건을 정리하고 나머지에 대해 지원책을 명백히 해서 부실정리, 시장심리안정을 꾀해야
  - ▶이 과정에서 부실 저축은행 등이 발생할 경우 금융시장 불안 확산을 막기 위해 금감원·예보·한은 등의 실시간 정보공유와 업무협조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 부동산 관련 세금의 조속한 개편을 통해 미분양 해소를 도와야
  - ▶그동안 지나치게 높게 책정된 양도세, 거래세 조합의 합리화를 통해 정상적 주택거래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해야

## (2) 고유가·원자재가가 소비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

- 고유가 및 곡물류 가격 양등은 물가상승, 소비둔화 등 경제활성화에 장애요인으로 작용. 부담 완화 방안 마련 필요
- 그동안 현 정부의 유류세 인하 거부에는 세수감소가 주된 이유였는데 이를 보전할 방도가 있어 설득력이 없음.
- 고유가 부담완화를 위한 탄력적으로 유류세를 10~20% 정도 한시적으로 인하해야
  - ▶휘발유가격에서 유류세의 비중은 약 57%(교통세 34%+교육세 5%+주행세 9%+부가세 9%) 정도로 일본, 캐나다, 미국에 비해 높음.
  - ▶유류세 인하를 통해 소비자 세금 및 기업의 생산원가 부담을 줄임으로써 소비와 투자의 회복세를 유지
  - ▶현 시점에서는 조금이라도 소비자들의 구매력을 보전해 주는 대책이 필요
- 서비스 제공기관의 효율성 제고를 통해 공공요금 인상요인을 최대한 억제해서 물

가부담을 완화

- ▶전기, 대중교통 등 공공요금의 원가에는 유가와 더불어 인건비 등도 중요한 부분
- ▶때문에 요금인상에 앞서 공공서비스 제공기관의 자체적 원가인하 노력을 우선해야 함.

• 곡물, 원자재 가격 급등에 대한 대책

- ▶최근 국제 원자재 가격 크게 상승(소맥: 2004년 12월 307.5센트/부셸 → 2007년 11월 867.0센트/부셸, 동: 2004년 12월 3,264.0달러/톤 → 2007년 11월 6,960.5달러/톤)

• 식료품의 경우 단기간 내 다양한 품목의 수입확대 등을 통해 안정을 도모해야

• 현시점에서 소비회복 지원을 위한 상기 대책이 필요하나 중장기적으로는 더욱 긴 시각의 대책 수립

- ▶차량의 연비 높이기 등을 장려하여 에너지 효율성 제고
- ▶해외유전 개발 및 대체 에너지 활용도 제고
- ▶장기계약, 수입선 대체 등을 활용해 원자재를 안정적으로 확보
- ▶해외자원 투자사업과 국제 정보 네트워크를 강화

### (3) 바람직한 거시정책 대응

- 현 상황은 금융불안, 물가불안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상황 악화에 따라 실물경제 위축도 가능한 것으로 보여 각 상황에 적절한 대응 필요

- 금융불안과 물가불안은 개별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상이한 정책 대응을 요함.

• 먼저 금융불안은 금융시장의 단기자금 경색에 따라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 통화정책 스탠스와 무관하게 단기 대응이 있어야

- ▶앞 절에서 살핀 바와 같이 통화당국은 단기 유동성을 공급하여 금리 급등이 주택금융 불안과 경제활동 위축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아야 함.

- ▶ 아울러 감독당국과의 긴밀한 공조를 이루어 주택금융 악화 상황에 대해 실시간 상황 파악과 협조체계를 갖추어야
- 물가의 경우 현재의 상황은 고유가 등 전형적 비용상승에 따라 나타나는 상승압력의 발현인데 두 가지 대응이 가능함.
  - 첫째, 비용상승 요인에 의한 실물경제 악화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물가안정을 우선시하여 금리인상으로 총수요를 압박하는 것
    - ▶ 물가안정목표제(Inflation Targeting)를 절대적으로 해석하는 입장에서 이런 대응을 주문할 수 있음.
    - ▶ 하지만 뚜렷한 비용상승요인에 의한 물가불안에 대한 이런 대처는 물가상승과 실물악화가 동시에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을 초래함.
  - 두 번째는 물가불안 조짐에도 불구하고 실물경제 악화를 완화하기 위해 금리동결이나 인하로 총수요 진작에 나서는 것
    - ▶ 이런 대응은 비용상승요인이 없어진 후에도 물가가 안정되는 속도를 늦출 것이나 상대적으로 실물경제의 위축은 완만하게 나타남.
- 현재 국내외 경제상황은 미국을 진원지로 하는 독자적이고 심대한 금융시장 불안요인으로 불확실성이 고조되어 있어 경제심리의 심각한 경색을 완화하는 정책방향이 바람직함.
  - 악화되었을 때 미칠 수 있는 부정적 파급효과가 큰 하방위험(downside risk)이 높기 때문에 우선 확실히 국내 금융시장 상황의 안정화를 도모해야 함.
  - 아울러 금리정책은 금융시장 안정과 불안요인을 감안하여 현 수준에서 유지하고 향후 추세를 좀 더 살핀 후 2008년 상반기에 정책변화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유럽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운영 및 유동성 공급 대응의 예가 시사하는 바가 큼.

- 유럽 중앙은행은 2007년 들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부상한 여름까지 물가 안정을 강조하여 금리를 인상하는 추세였음.
    - ▶ 유럽중앙은행은 연초 3.5%에서 3월, 6월 두 차례에 걸쳐 4.0%까지 금리를 인상
  - 하지만 금융시장불안이 본격화된 이후 미국의 연지준은 공격적 금리인하를 단행하였고, 미국과 유럽중앙은행은 과감한 유동성 공급에 나서고 있음.
    - ▶ 미 연준은 8월 이후 단기정책금리와 유동성공급 창구의 재할인율을 지속적으로 인하하였고 지금도 은행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유동성 공급에 나서고 있음.
    - ▶ 유럽 중앙은행도 금리인상을 중단하고 하반기 지속적으로 미 연준과 마찬가지로 유동성 공급에 나서고 있음.
    - ▶ 영국의 영란은행도 금리인하, 유동성 공급 정책을 펼치고 있음.
  - 주목할 만한 것은 미 연준과 유럽중앙은행은 고유가로 인한 물가상승이 가시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이런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점
    - ▶ 미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를 넘어섰고, 유로지역의 물가도 유럽중앙은행이 목표수준인 2%를 훨씬 상회하고 있음.
  - 우리가 꼭 이런 정책을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나 이들이 과거 경험에 비추어 금융시장 불안에 대한 우려가 상당하며 적절한 대응방안에 대한 판단은 참고하여야 함.
- 환율의 경우 어느 때보다 더 유연한 대처가 필요
- 수출에 미치는 영향에도 불구하고 현시점에서는 원화가치절상이 비용상승요인의 효과를 상쇄하는 효과도 중요함.
    - ▶ 따라서 원화가치를 절하하려는 노력은 바람직하지 않음.
    - ▶ 아울러 단순히 외채만 구조개선을 내세워 외화차입을 고집하는 것도 상황변화에 대한 유연한 대처를 어렵게 하기 때문에 제고되어야
- 재정정책의 경우 현 시점에서 가능한 한 소비자 구매력과 기업투자 진작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운용되어야 함.

- 본격적 기조는 새 정부 취임 이후에 확정될 것이나 2008년 경제상황은 수출둔화에 따라 민간소비와 투자의 중요도가 한층 더 높아질 전망
  - ▶유류세 등의 탄력적 인하, 부동산 관련 세부담 완화 등의 조치가 바람직
- 재정 전반의 규모, 건전성 확보 등의 이슈는 새 정부가 추진할 국책사업, 민영화 등 주요 지출과 수입이 구체화된 이후 논의하여 확정하는 것이 바람직

### 3. 기타 현안관련 정책 주안점

#### (1) 조속한 주요 규제완화 방향과 일정 제시를 통한 기업투자 촉진

■ 조속한 시일 내에 수도권 및 토지사용 규제에 대한 완화 방침과 일정을 제시하여 기업들의 투자계획 수립을 적극 유도해야

- 수도권 및 토지사용 규제는 그동안 기업투자 부진의 중요한 원인이었기 때문에 이 분야 개혁은 기업투자 활성화의 촉매제가 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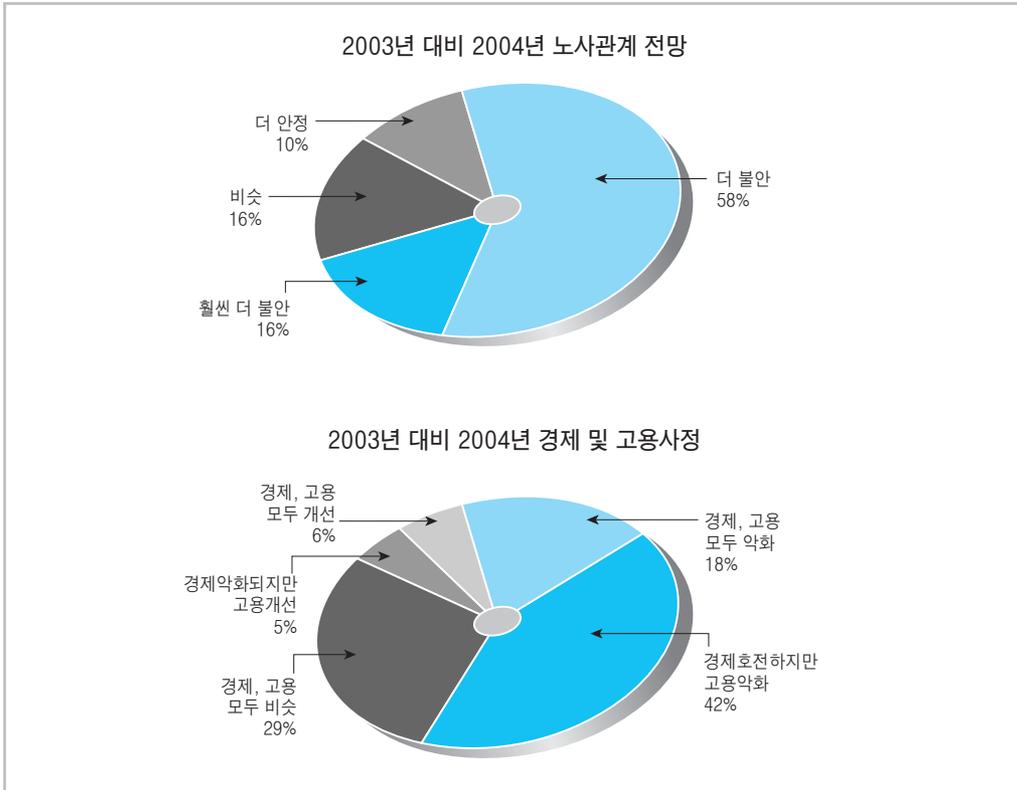
- 인수위는 관련 부처 간 협의를 주도하여 규제개혁의 방향과 대강의 시간표를 작성 빠른 시일 내에 공표해야
  - ▶ 이는 기업들이 2008년과 그 이후 투자 계획을 더욱 적극적으로 수립하도록 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임.
  - ▶ 수도권 규제의 경우 인수위가 서울 및 경기도와 직접 협의를 펼침으로써 광역 수도권의 활용방안에 대해 기틀을 마련하고 규제개혁에 이를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
- 참여정부와 달리 수도권 시설 신증설은 개별심사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허가하나 예외적으로 불허하는 방식의 접근 필요
  - ▶ 참여정부는 수도권 공장설립과 관련하여 건별로 심사하여 예외적으로 허가해주는 접근법을 따랐음.
  - ▶ 이런 접근방식은 공무원들이 역할을 돋보이게 하는 효과는 있으나 실제로는 모든 사안마다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중첩적으로 적용하는 결과를 가져옴.
- 따라서 원칙 허가로 중대한 이의가 있는 부처나 지방정부가 이 이유를 충분히 설득하지 못하면 관련 프로젝트가 바로 진행되도록 해야
- 가능한 한 조기에 이런 원칙하에 추진 사례를 만들어야 정부취임 이후 공백 없이 후속 투자사업이 뒤를 이을 것임.

## (2) 새 정부 법질서 준수원칙 취입 초부터 확실히 해야

■ 사회안정성 관련하여 잠재 불안요인과 신속한 대응을 요하는 이슈 존재

- 2008년 중 강성 노동계 단체 등이 새 정부의 의지를 시험하기 위한 각종 도발적 집단행동을 펼칠 가능성 큼.
  - 참여정부는 2003년 경기부양을 위한 다양한 정책시행 했으나 효과가 크지 않았음.
    - ▶ 수도권 규제완화, 임시투자세액공제한도 6개월 연장, LG-필립스 파주공장 신설허용(3월), 신용카드사 유동성 지원(4월), 금리인하 2회(5, 6월), 추경 4.5조 원(7월), 2005년부터 법인세 2% 인하(12월)
  - 참여정부 원년의 경기부양책이 효과를 내지 못한 중요한 이유는 2003년 초부터 시작한 극심한 노조와 이익집단의 불법행동
    - ▶ 두산중공업(연초), 화물연대 파업과 물류대란(5월), 철도, 지하철 등 '궤도연대' 파업(6~8월), 조흥은행, 현대차 파업(7월)
  - 이런 경험은 노사관계, 경기 및 고용 상황에 대한 비관적 전망으로 이어지면서 기업 투자심리를 악화시킴.

<그림 III -2> 노사 및 인사담당 임원대상 2004년 노사관계 전망조사(경총)



■ 이런 경험은 엄정한 질서 확립과 사회안정성 확보가 성공적 경제활성화의 전제조건이라는 교훈을 시사

- 경제활성화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엄정한 법질서 확립
  - 사회적 피해를 초래하는 이익집단의 사적 이익 추구 관행 종식
  - 명분에 상관없이 불법적, 폭력 시위는 엄격히 차단
- 그동안의 경험을 반영하여 일반여론은 노조활동에 상당히 부정적임.

〈표 III - 1〉 노사관계 국민의식조사(2,000명) 결과

|                                    |      | 1989년 | 2007년    |
|------------------------------------|------|-------|----------|
| 근로자 요구조건의 정당성                      | 정당하다 | 67.0% | 41.3%    |
|                                    | 과도하다 | 32.4% | 57.1%    |
| 근로자가 기업으로부터 정당한 대우받는지 여부           | 정당하다 | 26.3% | 52.3%    |
|                                    | 부당하다 | 64.5% | 41.3%    |
| 노동조합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                 | 좋다   | 53.3% | 16.0%    |
|                                    | 나쁘다  | 26.4% | 57.8%    |
| 근로자 임금인상 요구가 경제 여건 및 회사사정에 비해 과도하다 |      |       | 70.3% 찬성 |
| 성장을 위해 노조활동을 자제                    |      |       | 74.1% 찬성 |

자료: 노동연구원(2007)

### (3) 현 정부와 협조하여 조기 한·미 FTA 국회비준 추진

■ 한·미 FTA의 실질적, 상징적 중요성을 감안할 때 조기 비준추진이 중요

- 한·미 FTA는 개방경제 한국의 앞날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칠 이슈. 새 정부는 취임 이전 현 정부와 공조하여 국회비준 방안을 모색해야
  - 당장 경제 불안으로 이어질 사항은 아니나 2008년 중 국회 비준이 미루어질수록 미국의 대선일정과 충돌하여 연중 양국 비준이 어려워질 가능성 큼.
  - 선진국 경제 둔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인 미국시장 선점 등 조금이라도 경쟁국에 비해 비교우위를 차지하는 것이 경제활성화 관점에서도 중요
- 한·미 FTA 비준동의안 조기 의결의 필요성
  - 미국 의회의 보호무역 기조가 예상 외로 높아 한·미 FTA의 조기 비준이 불투명한 상황이고 ‘재협상’을 요구해 올 가능성도 있음.
  - 우리 국회에서의 비준동의안 조기 의결은 미국 의회에 한·미 FTA 비준을 압박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됨.
  - 한·미 FTA 비준동의안 조기 의결은 현재 진행 중인 한·EU FTA 등 다른 FTA

협상에서 우리의 협상력을 증대하고 조기 타결을 유도할 가능성이 있음.

- 참여정부 임기 내 한·미 FTA 국회비준을 해야 할 필요성
  - 한·미 FTA의 이행을 위해서는 24개의 법률 개정이 필요함(〈표 Ⅲ-2〉 참조).
  - 국회비준이 새 정부 출범 이후로 늦춰질 경우 국내법 개정 논의도 동시에 늦춰져 새 정부에서의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불확실성이 나타날 우려가 있음.
  - 현 정부의 정책 중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는 한·미 FTA의 조기 비준에 적극적으로 협조함으로써 자유무역에 대한 새 정부의 의지를 나타낼 필요가 있음.

<표 III-2> 한·미 FTA 이행 관련 입법 추진 현황

| 법 른                           | 기 관     | 추진상황        |
|-------------------------------|---------|-------------|
| 관세법                           | 재정경제부   | 상임위 상정      |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         | 상임위 상정      |
| 특별소비세법                        |         | 상임위 상정      |
| 공인회계사법                        |         | 규제심사 중      |
| 세무사법                          |         | 국무회의 통과     |
| 외국법자문사법                       | 법무부     | 법제처 심사 중    |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 상임위 회부      |
| 지방세법                          | 행정자치부   | 상임위 의결      |
| 행정절차법                         |         | 상임위 회부      |
| 저작권법                          | 문화관광부   | 법제처 심사 중    |
|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 산업자원부   | 상임위 상정      |
| 특허법                           |         | 상임위 상정      |
| 실용신안법                         |         | 상임위 상정      |
| 디자인보호법                        |         | 상임위 회부      |
| 상표법                           |         | 법제처 심사 중    |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 상임위 상정      |
| 전기통신기본법                       | 정보통신부   | 2008년 입법    |
| 전기통신사업법                       |         | 입법예고 완료     |
|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         | 법제처 심사 중    |
|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         | 상임위 회부      |
| 우편법                           |         | 상임위 상정      |
| 약사법                           | 보건복지부   | 규제심사 중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 법제처 심사 중    |
| 방송법                           | 방송위원회   | 2008년 이후 입법 |

## 〈부록〉

# 주요 경제지표



경제성장률 · 소비 · 투자

|       | 경제성장률      |      | 1인당    | 소비         |     | 투자    |      |      |
|-------|------------|------|--------|------------|-----|-------|------|------|
|       | GDP        | 제조업  | GNI    | 민간         | 정부  | 총고정투자 | 설비   | 건설   |
|       | 전년동기 대비(%) |      | US 달러  | 전년동기 대비(%) |     |       |      |      |
| 2003년 | 3.1        | 5.5  | 12,720 | -1.2       | 3.8 | 4.0   | -1.2 | 7.9  |
| 2004년 | 4.7        | 11.1 | 14,193 | -0.3       | 3.7 | 2.1   | 3.8  | 1.1  |
| 2005년 | 4.2        | 7.1  | 16,413 | 3.6        | 5.1 | 2.4   | 5.7  | -0.2 |
| 2006년 | 5.0        | 8.4  | 18,372 | 4.2        | 5.8 | 3.2   | 7.6  | -0.4 |
| 2003년 | 1/4        | 3.8  | 5.8    | 0.7        | 4.0 | 4.7   | 2.3  | 7.7  |
|       | 2/4        | 2.2  | 3.3    | -1.5       | 3.7 | 4.2   | -0.4 | 7.9  |
|       | 3/4        | 2.3  | 4.2    | -2.0       | 3.7 | 2.7   | -4.6 | 7.7  |
|       | 4/4        | 4.1  | 8.6    | -2.0       | 3.8 | 4.3   | -2.0 | 8.3  |
| 2004년 | 1/4        | 5.4  | 11.9   | -1.3       | 3.7 | 2.4   | -0.1 | 4.9  |
|       | 2/4        | 5.7  | 13.6   | -0.3       | 4.8 | 4.7   | 6.4  | 3.8  |
|       | 3/4        | 4.7  | 11.7   | -0.7       | 3.7 | 2.9   | 6.8  | 1.0  |
|       | 4/4        | 3.3  | 7.7    | 0.9        | 2.8 | -1.1  | 2.4  | -3.3 |
| 2005년 | 1/4        | 2.9  | 5.4    | 1.6        | 3.9 | 0.5   | 3.8  | -3.3 |
|       | 2/4        | 3.4  | 5.1    | 3.6        | 4.8 | 2.1   | 3.1  | 1.1  |
|       | 3/4        | 4.8  | 7.5    | 4.4        | 6.0 | 2.2   | 5.5  | -1.1 |
|       | 4/4        | 5.5  | 10.1   | 4.8        | 5.4 | 4.3   | 10.8 | 0.4  |
| 2006년 | 1/4        | 6.3  | 9.9    | 5.2        | 5.4 | 3.5   | 7.0  | 0.2  |
|       | 2/4        | 5.1  | 9.3    | 4.1        | 5.2 | 0.1   | 7.2  | -5.0 |
|       | 3/4        | 4.8  | 9.0    | 4.0        | 5.8 | 4.6   | 11.1 | -0.1 |
|       | 4/4        | 4.0  | 5.7    | 3.7        | 6.8 | 4.5   | 5.3  | 3.2  |
| 2007년 | 1/4        | 4.0  | 3.8    | 4.1        | 5.6 | 7.0   | 10.8 | 3.9  |
|       | 2/4        | 5.0  | 5.9    | 4.2        | 5.9 | 6.7   | 11.9 | 3.2  |
|       | 3/4        | 5.2  | 6.4    | 4.7        | 3.9 | 1.4   | 1.6  | 0.9  |

무역 · 국제수지

|          | 무역      |            |         |            | 국제수지  |       | 외환보유액 <sup>1)</sup> | 대미환율    |
|----------|---------|------------|---------|------------|-------|-------|---------------------|---------|
|          | 수출(FOB) |            | 수입(CIF) |            | 상품    | 경상    | (기말)                | (기말)    |
|          | 억 달러    | 전년동기 대비(%) | 억 달러    | 전년동기 대비(%) | 억 달러  |       | 원/달러                |         |
| 2003년    | 1,938.2 | 19.3       | 1,788.3 | 17.6       | 219.5 | 119.5 | 1,553.5             | 1,197.8 |
| 2004년    | 2,538.5 | 31.0       | 2,244.6 | 25.5       | 375.7 | 281.7 | 1,990.7             | 1,043.8 |
| 2005년    | 2,844.2 | 12.0       | 2,612.4 | 16.4       | 334.7 | 149.8 | 2,103.9             | 1,013.0 |
| 2006년    | 3,254.7 | 14.4       | 3,093.8 | 18.3       | 292.1 | 60.9  | 2,389.6             | 929.6   |
| 2005년 6월 | 237.1   | 9.5        | 212.9   | 14.8       | 35.7  | 21.1  | 2,049.9             | 1,024.4 |
| 7월       | 232.4   | 10.6       | 215.1   | 17.0       | 30.5  | 12.4  | 2,056.8             | 1,028.3 |
| 8월       | 233.4   | 17.9       | 220.0   | 21.4       | 14.7  | -5.3  | 2,067.1             | 1,031.0 |
| 9월       | 245.2   | 17.7       | 227.2   | 24.9       | 27.1  | 14.9  | 2,067.3             | 1,038.0 |
| 10월      | 253.5   | 11.9       | 226.5   | 11.0       | 34.8  | 28.3  | 2,073.1             | 1,042.7 |
| 11월      | 258.3   | 11.9       | 238.5   | 17.4       | 31.9  | 20.6  | 2,082.3             | 1,036.3 |
| 12월      | 256.3   | 10.5       | 241.9   | 15.4       | 16.7  | 2.8   | 2,103.9             | 1,013.0 |
| 2006년 1월 | 232.6   | 3.6        | 230.9   | 18.7       | 14.8  | 0.9   | 2,169.3             | 971     |
| 2월       | 237.9   | 16.6       | 235.1   | 27.8       | 8.4   | -7.8  | 2,159.5             | 969     |
| 3월       | 268.4   | 12.1       | 259.5   | 13.9       | 29.1  | -4.3  | 2,173.4             | 975.9   |
| 4월       | 255.9   | 11.9       | 244.9   | 15.3       | 18.8  | -16.1 | 2,228.9             | 945.7   |
| 5월       | 279.3   | 20.8       | 262.1   | 23.9       | 28.2  | 13.6  | 2,246.9             | 947.4   |
| 6월       | 279.5   | 17.9       | 260.2   | 22.2       | 27.1  | 9.4   | 2,243.6             | 960.3   |
| 7월       | 257.7   | 10.9       | 255.5   | 18.8       | 16.2  | -3.9  | 2,257.2             | 953.1   |
| 8월       | 272.9   | 16.9       | 270.3   | 22.9       | 14.4  | -6.4  | 2,270.2             | 959.6   |
| 9월       | 296.5   | 20.9       | 276.4   | 21.6       | 31.7  | 14.1  | 2,282.2             | 945.2   |
| 10월      | 280.2   | 10.5       | 256.2   | 13.1       | 26.9  | 17.6  | 2,294.6             | 944.2   |
| 11월      | 306.0   | 18.5       | 267.7   | 12.2       | 57.1  | 42.4  | 2,342.6             | 929.9   |
| 12월      | 287.8   | 12.3       | 275.2   | 13.8       | 19.5  | 1.5   | 2,389.6             | 929.6   |
| 2007년 1월 | 281.1   | 20.8       | 275.7   | 19.4       | 12.9  | -4.3  | 2,402.3             | 940.9   |
| 2월       | 262.3   | 10.3       | 254.2   | 8.1        | 23.9  | 4.0   | 2,428.1             | 938.3   |
| 3월       | 303.9   | 13.2       | 292.9   | 12.9       | 23.6  | -16.4 | 2,439.2             | 940.3   |
| 4월       | 299.5   | 17.0       | 295.8   | 20.8       | 15.2  | -20.8 | 2,472.6             | 929.4   |
| 5월       | 310.4   | 11.1       | 298.0   | 13.8       | 22.4  | 8.4   | 2,507.4             | 929.9   |
| 6월       | 320.1   | 14.5       | 285.0   | 9.6        | 32.1  | 12.7  | 2,507.0             | 926.8   |
| 7월       | 302.1   | 17.2       | 292.4   | 14.5       | 30.4  | 15.5  | 2,548.4             | 923.2   |
| 8월       | 310.0   | 13.6       | 296.3   | 9.6        | 29.1  | 5.7   | 2,553.0             | 939.9   |
| 9월       | 293.2   | -1.1       | 271.4   | -1.8       | 37.3  | 23.0  | 2,572.9             | 920.7   |
| 10월      | 344.0   | 23.9       | 326.6   | 27.4       | 37.4  | 25.6  | 2,601.4             | 907.4   |
| 11월      | 358.4   | 17.1       | 337.1   | 25.9       |       |       | 2,619.3             | 929.6   |

주: 1) 가용외환보유액 기준

물가·실업·이자율

|          | 물가 <sup>2)</sup> |          | 실업률      | 제조업        | 통화 <sup>3)</sup> |      | 회사채    | 주가지수       |
|----------|------------------|----------|----------|------------|------------------|------|--------|------------|
|          | 생산자              | 소비자      | (계절조정)   | 명목임금       | 신M2              | M3   | 수익률    | 80.1.4=100 |
|          | 전년동기 대비(%)       |          | (%)      | 전년동기 대비(%) |                  |      | 연%, 평균 | 기간평균       |
| 2003년    | 2.2(3.1)         | 3.5(3.4) | 3.6      | 8.7        | 7.9              | 8.8  | 5.43   | 679.8      |
| 2004년    | 6.1(5.3)         | 3.6(3.0) | 3.7      | 9.5        | 4.6              | 6.1  | 4.73   | 832.9      |
| 2005년    | 2.2(1.7)         | 2.8(2.6) | 3.7      | 7.8        | 6.9              | 7.0  | 4.68   | 1,073.6    |
| 2006년    | 1.8              | 2.5      | 3.5      | 5.6        | 8.3              | 7.9  | 5.17   | 1,352.2    |
| 2005년 5월 | 2.0(1.1)         | 3.1(2.0) | 3.5(3.7) | 7.4        | 7                | 6.6  | 4.12   | 939.0      |
| 6월       | 1.6(0.6)         | 2.8(1.7) | 3.6(3.8) | 11.0       | 7.4              | 7.2  | 4.18   | 991.3      |
| 7월       | 2.0(1.4)         | 2.6(2.1) | 3.7(3.8) | 6.6        | 7.9              | 7.5  | 4.52   | 1058.7     |
| 8월       | 1.4(1.7)         | 2.0(2.4) | 3.6(3.7) | 9.6        | 7.7              | 7.6  | 4.75   | 1101.8     |
| 9월       | 1.6(2.2)         | 2.5(2.9) | 3.6(3.9) | 5.6        | 6.5              | 6.9  | 4.92   | 1171.0     |
| 10월      | 1.6(2.4)         | 2.3(2.7) | 3.6(3.8) | 10         | 6.5              | 6.9  | 5.2    | 1190.9     |
| 11월      | 1.1(1.9)         | 2.5(2.3) | 3.3(3.6) | 6.7        | 6.6              | 7.2  | 5.5    | 1253.3     |
| 12월      | 1.7(1.7)         | 2.6(2.6) | 3.5(3.5) | 0.7        | 7                | 7.3  | 5.49   | 1338.8     |
| 2006년 1월 | 2.1(0.6)         | 2.2(0.6) | 3.7(3.4) | 24.1       | 7.3              | 7.2  | 5.5    | 1379.3     |
| 2월       | 1.7(0.6)         | 2.0(0.8) | 4.1(3.5) | -11.8      | 7.2              | 7.4  | 5.33   | 1341.7     |
| 3월       | 1.4(0.7)         | 2.0(1.4) | 3.9(3.5) | 5.7        | 6.6              | 7    | 5.3    | 1331.7     |
| 4월       | 1.5(1.5)         | 2.0(1.5) | 3.5(3.5) | 4.1        | 6.8              | 7.4  | 5.24   | 1415.9     |
| 5월       | 2.6(2.1)         | 2.3(1.7) | 3.2(3.4) | 8.1        | 7.1              | 7.6  | 5.05   | 1388.8     |
| 6월       | 3.2(2.1)         | 2.4(1.5) | 3.4(3.5) | 3.4        | 7.7              | 7.3  | 5.17   | 1249.2     |
| 7월       | 2.8(2.5)         | 2.4(1.9) | 3.4(3.5) | 5.9        | 7.7              | 7.3  | 5.18   | 1278.0     |
| 8월       | 3.4(3.4)         | 2.7(2.5) | 3.4(3.5) | 5.3        | 7.5              | 7.4  | 5.1    | 1316.1     |
| 9월       | 3.1(3.6)         | 2.5(2.8) | 3.2(3.4) | -0.2       | 8.9              | 7.9  | 5.02   | 1356.5     |
| 10월      | 1.9(2.6)         | 2.2(2.3) | 3.3(3.4) | 13.1       | 10.1             | 8.7  | 4.93   | 1354.0     |
| 11월      | 1.9(2.1)         | 2.1(1.8) | 3.2(3.4) | 6.1        | 11.1             | 9.4  | 5.05   | 1403.9     |
| 12월      | 2.2(2.2)         | 2.1(2.1) | 3.3(3.3) | 6.9        | 11.4             | 9.6  | 5.18   | 1418.8     |
| 2007년 1월 | 1.5(0.0)         | 1.7(0.2) | 3.6(3.3) | -13.5      | 11.3             | 9.8  | 5.32   | 1379.3     |
| 2월       | 1.7(0.2)         | 2.2(0.9) | 3.7(3.2) | 28.1       | 11.5             | 9.9  | 5.28   | 1434.9     |
| 3월       | 2.2(0.7)         | 2.2(1.5) | 3.5(3.2) | 6.3        | 11.5             | 10.2 | 5.2    | 1431.6     |
| 4월       | 2.5(1.8)         | 2.5(1.9) | 3.4(3.3) | 7.2        | 11.1             | 10.1 | 5.34   | 1517.1     |
| 5월       | 2.5(2.4)         | 2.3(1.9) | 3.2(3.4) | 5.9        | 10.9             | 10.1 | 5.49   | 1614.9     |
| 6월       | 2.7(2.6)         | 2.5(1.9) | 3.2(3.3) | 6.2        | 10.9             | 10.4 | 5.64   | 1754.3     |
| 7월       | 2.4(2.8)         | 2.5(2.3) | 3.2(3.4) | 9.6        | 10.9             | 10.0 | 5.75   | 1911.6     |
| 8월       | 1.7(2.8)         | 2.0(2.4) | 3.1(3.2) | 8.8        | 11.4             | 10.3 | 5.70   | 1815.0     |
| 9월       | 2.1(3.6)         | 2.3(3.0) | 3.0(3.2) | 12.3       | 11.0             | 10.3 | 5.85   | 1879.0     |
| 10월      | 3.4(3.8)         | 3.0(3.2) | 3.0(3.1) |            |                  |      | 5.98   | 2004.6     |
| 11월      | 4.4(4.3)         | 3.5(3.2) |          |            |                  |      | 6.16   | 1924.8     |

주: 2) ( ) 안은 전년말월 대비 증가율

3) 평잔기준

산업활동

|            | 산업생산 |              | 수요관련지표     |                         |                          |            |          |      |       |      |
|------------|------|--------------|------------|-------------------------|--------------------------|------------|----------|------|-------|------|
|            | 전산업  | 평균<br>가동률(%) | 도소매<br>판매액 | 소비재<br>출하 <sup>4)</sup> | 국내기계<br>수주 <sup>5)</sup> | 설비투자<br>추계 | 건설<br>수주 | 건설기성 |       |      |
|            |      |              |            |                         |                          |            |          | 공공   | 민간    |      |
| 전년동기 대비(%) |      |              |            |                         |                          |            |          |      |       |      |
| 2003년      | 5.2  | 78.3         | -0.8       | -3.4                    | -8.7                     | -2.3       | 19.3     | 16.6 | 10.7  | 20.6 |
| 2004년      | 10.2 | 80.3         | -0.4       | -1.4                    | 6.8                      | 3.7        | -3.7     | 11.1 | 4.9   | 14.8 |
| 2005년      | 6.3  | 79.7         | 2.9        | 2.1                     | 1.5                      | 6.3        | 7.4      | 4.1  | -3.7  | 7.5  |
| 2006년      | 10.1 | 81.1         | 4.2        | 4.9                     | 14.2                     | 7.4        | 9.0      | 3.7  | 1.9   | 4.9  |
| 2005년 5월   | 3.6  | 79           | 4.5        | 1.4                     | -14.5                    | 8.0        | 50.2     | 8.8  | 1.8   | 12.5 |
| 6월         | 3.7  | 80           | 3.2        | 3.8                     | -12.2                    | 1.7        | 35.4     | 8.6  | 2.6   | 11.4 |
| 7월         | 7    | 80.6         | 3.6        | 4.1                     | 26.2                     | 11.1       | 4.3      | 2.8  | -4.2  | 5.7  |
| 8월         | 6.8  | 79.8         | 5.6        | 6.3                     | 18.3                     | 1.4        | 16.2     | 2.8  | -12.1 | 9.4  |
| 9월         | 7.6  | 79.2         | 3.8        | 4.8                     | 0.1                      | 0.2        | 23.7     | 0.8  | -11.1 | 6.9  |
| 10월        | 8    | 79.2         | 2.5        | 4.9                     | 0.7                      | 7.2        | -36.5    | 1.8  | -4.8  | 4.2  |
| 11월        | 11.8 | 81.3         | 5.8        | 8.1                     | 11.7                     | 13.0       | 0.8      | 10.0 | -4.4  | 16.5 |
| 12월        | 11.3 | 79.9         | 5.6        | 8.7                     | 42.8                     | 21.7       | -18.6    | 4.5  | 1.3   | 4.5  |
| 2006년 1월   | 7.7  | 83.1         | 4.5        | 3                       | -2.3                     | 1.5        | 10.9     | 0.6  | -12.5 | 6.5  |
| 2월         | 21.4 | 80.9         | 3.3        | 12.4                    | 37.5                     | 4.7        | 29.0     | 8.0  | -13.5 | 16.6 |
| 3월         | 10.7 | 81.3         | 4.2        | 5.9                     | -0.6                     | 11.7       | -34.1    | 4.3  | -9.6  | 10.5 |
| 4월         | 10.7 | 79.3         | 4.2        | 4.7                     | 15.3                     | 13.9       | -17.7    | 0.2  | -6.4  | 3.4  |
| 5월         | 12.6 | 80.9         | 5          | 6.8                     | 12.3                     | 5.7        | -21.7    | -0.8 | -5.5  | 1.1  |
| 6월         | 11.2 | 81.9         | 4.3        | 5.5                     | 35.1                     | 0.7        | -6.8     | -0.2 | -5.6  | 2.3  |
| 7월         | 4.9  | 76.7         | 0.4        | -1.9                    | -2.4                     | 3.9        | 6.8      | -2.4 | -2.0  | -1.4 |
| 8월         | 11.7 | 81.2         | 4.3        | 3.3                     | 15.0                     | 14.4       | 15.0     | 1.7  | 8.4   | 0.5  |
| 9월         | 17.6 | 84           | 8.4        | 14.2                    | 33.0                     | 17.7       | 98.5     | 14.4 | 19.1  | 12.1 |
| 10월        | 5.5  | 81.9         | 3.4        | 0.3                     | 34.2                     | 5.6        | -0.2     | 6.1  | 18.7  | 2.2  |
| 11월        | 7.1  | 81.6         | 4.8        | 4.4                     | 10.1                     | 7.8        | 44.9     | 5.6  | 10.1  | 4.7  |
| 12월        | 3    | 80.5         | 3.8        | 1.9                     | -4.5                     | 2.3        | 29.8     | 6.3  | 10.4  | 5.0  |
| 2007년 1월   | 7.5  | 81.4         | 5.1        | 6.4                     | 24.9                     | 15.4       | 9.7      | 10.5 | 14.1  | 9.3  |
| 2월         | -0.6 | 82           | 7.2        | 4.0                     | 17.1                     | 12.8       | 40.1     | 8.3  | 25.9  | 2.3  |
| 3월         | 3.1  | 81.4         | 3.7        | 3.2                     | 6.4                      | 7.0        | 32.0     | 2.0  | 17.3  | -4.1 |
| 4월         | 6.8  | 82.3         | 4.5        | 6.0                     | 0.7                      | 15.7       | 48.9     | 6.1  | 7.4   | 3.2  |
| 5월         | 6.7  | 83.3         | 4.6        | 6.2                     | 13.0                     | 11.4       | 5.2      | 5.4  | 15.1  | 1.0  |
| 6월         | 7.6  | 82.7         | 4.2        | 2.1                     | 1.1                      | 9.2        | 28.8     | 4.2  | 10.9  | 0.5  |
| 7월         | 14.3 | 83.1         | 7.7        | 10.4                    | 32.1                     | 1.0        | -14.9    | 12.3 | 13.8  | 9.8  |
| 8월         | 11.2 | 83.5         | 4.6        | 5.4                     | 3.5                      | 1.7        | 13.4     | 7.5  | 3.4   | 7.4  |
| 9월         | 0.3  | 80.6         | 1.1        | -8.6                    | 21.5                     | -8.3       | -9.8     | -7.2 | -8.8  | -7.2 |
| 10월        | 17.8 | 83.4         | 9.2        | 9.9                     | 40.9                     | 3.3        | 104.7    | 7.8  | -5.1  | 11.8 |

주: 4) 내수용 5) 내수용, 선박 제외

## keri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1판1쇄 인쇄/2007년 12월 26일

1판1쇄 발행/2007년 12월 31일

발행처/한국경제연구원

발행인/김중석

편집인/허찬국

등록번호/제318-1982-000003호

(150-756)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8-1 전경련회관  
전화(대표) 3771-0001 (직통) 3771-0057 팩시밀리 785-0270~1

<http://www.keri.org/>

© 한국경제연구원, 2007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3771-0057